

타이공

1981



국민교육헌장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얼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독립의 자세를 확립하고, 밖으
로 인류공영에 이바지 할 때다. 이에 우리의 나아갈 바를 밝히 교육
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과 튼튼한 몸으로, 학문과 기술을 배우고 익히며, 타
고 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혁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과 질서를 앞세우며
능력과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박은 상부상조의 전통
을 이어 받아, 명랑하고 따뜻한 협동 정신을 복돋운다. 우리의 창의
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나의 발전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책임과 의무를 다하며, 스
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는 국민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길이며, 자유세
계의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조
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 긍지를 지닌 근면한 국민으로서 민족
의 슬기를 모아 즐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2월 5일

한·아세안
새 협력시대

전 두환대통령 각하 내외분 아세안 5개국 순방



◇ 인도네시아 대통령궁에서의 환담 (6. 25 자카르타)



◇ 경례 (6. 29 쿠알라룸푸르)
환영식장에서 양도국기에 대한



공군 제 176 호

卷頭言

民主主義의 理實的 適用方案

◆ 새 時代 새 물결 ◆

特 「팀·스피리트 81」訓練의 意義와 成果

資源民族主義 擡頭와 우리의 活路

輯 蘇聯의 膨脹主義 政策

北韓 主体哲學의 官學的 性格

南北 聯邦制論 批判 〈Ⅱ〉

새 共和國의 經濟課題



李相敏 (2)

空軍教理 윤재진 (84)

·俞光震 (4)

航空
軍事
科學

蘇聯 航空支援의 發達 최양수 (95)

프로그 戰鬪機李建淳 (109)

蘇聯의 霸權主義 박종언 (122)

·文道彬 (12)

·丁泰垣 (20)

·李基鐸 (30)

空軍漫像 鄭雲夔 (82)

高麗名將 姜邯贊 (144)

군
가

우리는 대한국군 (147)

은익의 노래 (148)

보라매의 꿈 (149)

비행 행진곡 (150)

·申一澈 (38)

·編輯室 (59)

·編輯室 (70)

短篇宣告 프라자 카프카 (151)

◆ 제임스 미 태평양 공군사령관 절경



◆ 전두환대통령각하 내외부(6. 26 차카르타)
인도네시아 각계인사를 접견하고 계시는



◆ 공근이 회근침보총장(6. 17 포항)
실내체육관 개관 테이프를



〈6. 29 부일만(부일만)〉

◆ 받고 계시는 정부인이 순차여사
말레이시아의 한 어린이로부터 꽃다발에



◇ 6. 17. 공군 슬라 처독관
참모총장배 탁구대회 개최



◇ 6. 12. 제1회 '2010' 연세대학교 50주년 기념대회 개최

◇ 〈7. 4 40회 강교〉
공본 주제발표 경연대회 개최



◇ 〈5. 4 40회 강교〉
군악 연주 및 이장 시범

공군

제 176 호

1981년 제 3 호



參謀總長 統率方針

完璧한 領空防衛態勢 確立

恒 時 戰 場

精 兵 強 軍

節 用 增 強

恒 時 戰 場

政訓監 大領 李 相 敏

民族的 悲劇인 6·25동란이 勃發한지도 올해로서 31년이 건만, 北傀의 赤化忘想은 오히려 더해가고 있기에, 우리는 祖國分斷과 同族異質化의 아픔을 씹으며 오늘도 쉬임없는 警戒 속에 統一에의 꿈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

1953年, 迂餘曲折 끝에 全文 5條6項의 休戰協定이 締結되어, 일단 戰爭의 砲聲은 멎었지만, 北傀의 好戰性和 挑發屬性에 의해 休戰協定은 事實上 死文化되고 80年末까지 協定違反件數는 무려 5萬件에 이르고 있다. 즉 北傀는 休戰協定을 오히려 그들의 再侵準備를 위한 制度的 方策으로 惡用하면서, 1962年末 4大軍事路線이란 것을 채택한 이래 戰爭準備에만 광분해온 것이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正義로운 民主福祉國家建設을 爲해 온 國民이 合心努力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모든 發展이 安保의 바탕 위에서만 可能함을 再認識하여, 다시는 無備에서 오는 有患이 없도록 해야 한다.

마침 80年代의 國際情勢는 新冷戰時代에로의 복귀현상이 두드러지고 있어, 韓半島의 緊張은 더욱 高潮되고 있다. 따라서 參謀總長統率方針에提示된 바와 같이 우리는 恒時戰場의 狀況認識을 더욱 確固히 하여 빈틈없는 경계태세를 堅持해 나가야 한다.

그러면 과연 緊張高潮의 動因은 무엇인가?

첫째로, 國際情勢의 新冷戰體制 突入을 들 수 있다. 1970年代의 東西和解(데탕트) 무드가 1980年代에 들어오면서 서서히 퇴색되고, 1960年代의 冷戰·兩極體制와 같은 새로운 냉전체제가 나타나고 있다. 그렇게 되면 北傀는 외부여건이 근본적으로 자기들의 好戰主義를 감싸주는 것으로 誤



判하여 可能한 挑發과 攻勢를 恣行하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戰法이므로 긴장이 고조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둘째로, 소련의 使賊에 의한 도발의 위험성을 들 수 있다. 즉 美·日·中共이 제반 協力體制를 구축할 움직임이 强하게 보일수록 소련이 북괴를 자극시켜 韓半島에서 戰爭을 惹起시킬 위험성이 높아진다는 것이다.

끝으로, 북괴의 도발속성이 격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80年代에 金日成이 계속 집권할 경우, 그의 남은 수명을 감안하여 最後行動을 벌일지 모른다는 것이며, 김일성이 죽고 金正日이 집권하게 되면 북한 주민의 反撥과 金日成에 대한 세찬 罵倒의 기운에 의해 그의 政治的 生命이 위기에 놓일 가능성이 커지며, 이로 인해 대남도발의 위험성이 높아질 것인데, 만약에 제3의 權力者가 집권하더라도 그 狀況에는 變動이 없으리라 예견된다. 이와같이 누가 집권하더라도 80年代에는 특히 도발의 위험성은 큰 것이다.

이상의 諸要因을 굳이 부각시키지 않더라도 북괴의 最終目標가 韓半島의 赤化統一에 있는만큼, 결코 그들에 의한 위험성은 사라지지 않겠지만, 특히 80年代가 고비가 될 것이므로, 우리는 이 時代를 克服할 수 있도록 最善·最大의 努力을 경주해야 한다.

休戰은 終戰 아닌 戰爭狀態이므로 寸陰도 放心할 수 없으며, 북괴의 非人道的 만행을 저주·규탄만 할 것이 아니라 國力배양과 國防態勢強化에 盡力해야만 安定 속에 發展을 거듭할 수 있고, 나아가 淸요 속에 統一된 새 時代를 謳歌하게 될 것으로 確信한다.

民主主義의 現實的 適用方案

— 우리 實情에 맞는 民主主義의 定立을 위하여 —

자유롭고 풍요한 福祉社會의 實現을 위해 우리는 國家發展에 헌신하는 정신자세를 確立해야 하겠다.

1. 머리말

「自由와 秩序의 調和가 이룩된 가운데 安定 속에서 착실한 政治發展을 이룩하자」는 國民의 合意를 바탕으로 차질없이 進행되어 왔던 第5共和國의 건설은 國會議員選舉를 成功的으로 끝냄으로써 명실상부한 國基安定과 正統性을 완벽하게 確立하였다.

民主主義의 土着化, 福祉社會의 건설, 正義社會의 구현 그리고 教育革新과 文化暢達을 國政指標로 삼아 역사적 前進의 巨步를 내디딘 第5共和國은 「舊憲法, 舊政府 등의 舊時代의 論理,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일체의 진통과 애증으로부터 결별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創造과 改革과 발전의 기치 아래 大和合의 政治展開를 추진하고 있다.

그러한 터전 위에 새로운 價値를 추구하는 「創造의 意志」, 국가사회에 새로운

△政博·東國大 法政大教授▽
俞 光 震

活力素를 주입하려는「改革의 意志」, 훌륭한 傳統과 民族的 正統性을 살찌게 하는「發展의 意志」를 한데 모아 나가는 것이 새 時代의「時代精神」이며, 이 時代精神을 體質化하는 것이, 곧 지금까지 우리 民族史가 苦痛스럽게 겪어왔던 그리고 겪고 있는 역사적 宿願을 克服하고 解決하는 열쇠임이 분명한 것이다.

80年代의 時代精神을 강조하는 보다 더 큰 구체적인 理由는 解放 이후 36년은 彷徨과 混沌의 시대였으며, 특히 70年代는 물질적인 成長에 치우쳐 精神의인 성장이 도외시된 시대였으며, 長期執權에서 緣由하는 해괴한 政治作態와 黑白論理가 횡행하던 시대였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한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80년대는 한 時代를 마감하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의미를 갖고 있다.

創造, 改革, 發展의 時代精神에 입각하여 民族史가 요구하고 있는「民主福祉國家」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安定과 和合이 前提되어야 한다. 安定과 和合은 또 자유와 多樣性을 調和하는 民主主義價値를 生活信條로 實踐해 나가야 한다.

이러한 막중한 使命을 지고 있는 우리는 民主主義를 實踐해 오는 과정 속에 그렇게 뼈저리게 겪었던 오류를 다시는 범하지 말아야 한다. 誤謬와 試行錯誤의 惡循環을 克服하지 못한다면 우리의 울

바른 民主主義國가는 영원히 건설될 수 없다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이다. 그러면 올바른 民主主義를 확립하기 위하여 民主政治의 가능조건을 일반론적 입장에서 알아 보기로 한다.

2. 民主主義의 可能 條件

민주주의는 자연계의 생물과 같이 생활환경이나 조건에 민감한 반응을 나타내는 生命體이다. 植物이 토질, 양분, 기후 등 環境條件에 민감한 것처럼 民主政治도 그것이 정상적인 生命力和 活動을 유지하려면 역사적 전통, 경제·사회적 환경과 構造 그리고 정치문화 및 國內外의 政治의 여건을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현대사회와 같은 變動要因이 많은 조건하에서 민주주의의 價値를 실현하고 政治制度를 유지 운영한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물며 근대적 民主主義의 정신적 基盤과 전통이 全無하며 政治傳統과 풍토 및 社會여건이 다른 나라에 민주주의의 理念과 制度를 그대로 수용하여 실현한다는 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이러한 경험적 敎訓은 우리나라 憲政 33年史가 잘 立證해 주고 있다.

그러면 民主政治를 가능케 하는 필수적인 諸般 條件은 무엇인가를 알아 보기로 한다.

첫째, 民主政治의 정상운영은 국제적인 平和와 국내적인 安定의 환경을 필요로 한다. 民主政治制度가 확고하게 뿌리 내린 나라도 國家의 存立과 社會秩序를 근본적으로 威脅하는 內外的 緊張요인이 발생하면 非常大權과 같은 緊急手段으로 활용하는 것이 보통이다.

權力構造와 制度의 측면에서 볼 때 民主主義는 權力構造가 多元化하여 각 政治集團간의 均衡을 이루는 환경조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더우기 政治文化的 요인에서 본다면 民主政治는 參與的政治文化가 가장 적합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普及되어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를 하나의 生活方式로 파악하고 있는 「에벤스타인」(William Ebenstein)은 ① 自由로운 결사의 믿음 ② 관용성과 다양성 ③ 국가의 手段視 ④ 暴力手段의 배격 ⑤ 자발적 활동원칙의 高揚을 들고 있으며, 민주적 思考와 행동양식을 제시한 「린드만」(Edward C. Lindeman)은 ① 多樣性 최생있는 統合 ② 理想과 현실의 타협 ③ 手段은 目的과의 一致 ④ 會議는 民主主義手段 ⑤ 計劃은 民主主義수호를 위한 代價 ⑥ 民主主義는 制度的으로 보장 ⑦ 民主主義는

教育과정이라고 하였다.

둘째, 民主主義는 經濟的 安定과 繁榮을 누리는 社會環境에서 實現된다는 점이다. 「바이카」(Ernest Barker)도 일찍이 국민들이 가난하여 基本的인 生存이 위협을 받을만큼 經濟적 安定이 이루어지지 못하면 民主政治는 성공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러한 經濟的 安定이 民主政治의 關鍵이라는 점은 民主主義의 발전과정에서 충분히 立證되고 있으며, 經濟적 不安과 脆弱이 民主主義體制를 근본적으로 威脅하는 요인임을 알 수 있다.

세째, 經濟的 富와 함께 社會構造가 分散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이다. 「라스웰」(Harold D. Lasswell)은 民主社會의 특징을 富, 權力, 尊敬이 사회전체에 넓게 分散되어 있는 社會라고 보았다. 일찍이 「아리스토텔레스」도 民主政治를 中産階級の 지배와 同一視한 이래 中産層을 중심으로 하는 다이아몬드型 社會構造를 민주정치체제의 존속을 위한 可能條件으로 삼아 오고 있다.

이러한 社會構造는 經濟的, 社會的, 文化的 同質性を 띠고 있으며, 동시에 社會分化를 바탕으로 하는 多元的인 社會集團간의 상호 견제와 均衡이 잘 이루어진 사회인 것이다.

네째, 民主主義의 성공과 失敗는 社會規模의 크기 특히 人口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일찌기 「루소」는 민주政治는 그리스의 都市國家와 같은 나라에서만 可能하다고 말한 바 있다. 오늘날 광활한 地域과 방대한 人口를 가진 나라에서는 高度의 技術, 文化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民主主義의 理想을 실현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提起시키었다. 근대 歐美先進諸國에서도 民主主義의 危機가 자주 論議되는 것도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니다.

다섯째, 社會心理的 요인으로서 近代의인 價值觀과 政治行態定向이 국민간에 普遍化됨이 없이는 民主社會를 이룩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近代의이라 할 수 있는 行態定向은 平等主義, 實績主義, 普遍性, 專門性 등에서 발견할 수 있으며, 國家, 政府, 政治指導者에 대한 合理的, 世俗的 태도와 相對主義, 實證主義, 經驗主義 世界觀을 갖추어야 한다. 따라서 이러한 사회에는 民主의 人格 즉 ① 開放된 自我體系 ② 多元的·分散共有的 價值觀 ③ 人間의 잠재능력에 대한 信賴 ④ 공포와 不安으로부터의 해방 등의 요건을 갖춘 人間型이 중심을 이루는 것이다.

이와 같이 民主主義가 可能하려면 적어도 政治, 經濟, 社會, 文化, 心理 등 諸條件을 具備하지 않으면 안 된다.

3. 韓國 現實與件과 民主主義

民主主義의 可能條件에서 提起된 諸問題를 우리나라는 과연 어느 정도 갖추고 있는 것일까. 적어도 西歐民主主義의 移植 이후 많은 시행착오를 해오면서 模倣에만 그치고, 그것을 우리의 現實與件과 環境條件 그리고 역사적 전통에 알맞도록 主體의 創造의 노력이 부족하였던 것만은 사실인 것 같다.

첫째, 政治環境要因부터 국제적 平和와 國內的 安定的 요건을 구비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 北韓共產集團의 끊임없는 武力挑發企圖은 國內外平和와 安定的의 위협요인이 되고 있음은 公知의 事實이다. 국제적 緊張緩和가 韓半島의 安定條件이 된다고 하지만 이와는 반대로 韓半島의 準戰時狀態가 국제적 緊張을 완화시키느냐 못시키느냐 하는 關鍵이 되고 있다. 물론 이러한 與件下에서 民主主義가 전혀 實現不可能하다는 것은 아니다. 民主主義를 실현하는 과정에서 國家安保를 위하다 보니 西歐의 民主主義와 같은 형태를 취할 수 없다는 特殊性을 지니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政治文化的 要因으로 보아도 參與的 政治文化의 보편화에는 아직도 時間을 요하고 있으며, 民主

主義의 生活樣式 또는 行態類型이 우리 생활에 土着化하려면 역시 상당한 時間과 노력이 요청된다 하겠다. 이러한 狀況下에서는 역사적 傳統 속에서 우리의 民主的 價値를 발굴하여 우리의 特性에 맞는 制度를 現實에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둘째, 경제적 요인부터 國民經濟가 고도로 발달하여 安定과 繁榮을 끌고루 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론 우리나라는 急速한 經濟成長을 해 왔음은 周知의 사실이나 일반국민이 安定된 경제 생활을 營爲하고 있는 것도 아니며 오히려 급격한 成長으로 인하여 社會的 不安과 緊張이 감돌았던 것도 사실인 것이다. 경제성장이 너무 급속하게 進展될 때 社會經濟制度和 機能上的 不條理가 더욱 크게 露呈되며, 또 生産과 所得의 分配를 둘러싸고 反目과 葛藤이 深化表出됨으로써 民主政治의 安全性을 위협한다는 論理를 간파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急速한 경제성장이 物質的 生活水準을 급격히 향상시킨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반면 貧富의 격차, 都市와 農村, 政府와 국민간의 거리감을 확대시킨 결과를 가져왔던 것이다.

세째, 社會構造的 요인으로서 우리나라는 前近代의 社會構造와 社會文化로부터 근대적인 社會構造로의 再論 및 文化

構造類型으로 轉換하는 過渡期에 있다고 하겠다. 이것은 아직도 근대적인 의식구조나 行爲樣式보다도 현실적으로 近代化된 意識구조나 行爲樣式이 더욱 강력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다는 점을 의미한다. 또 우리나라 국민의 性格이나 人間類型에 있어서도 民主政治制度를 정상 운영하는데 적합한 市民精神을 가진 生活方法을 營위하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하물며 民主主義가 단순한 정부제도나 憲法規定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의 生活方式, 行態類型으로 본다면 더욱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하겠다.

네째, 社會心理의 要因으로서 우리 국민은 아직도 民主主義的 人間型的 특징에 도달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급격한 政治變動을 몇번 經驗하면서 점차적으로 民主的 市民性的 특징으로 接近해 나가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選舉나 投票行態에서 나타나는 類型을 보면 開放性, 進取性, 伸縮性, 관용성, 自發性, 多元的 價値性, 平等主義 등에는 크게 接近하지 못하고 있다 하겠다.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아직도 우리나라 政治의 現實與件은 西歐民主主義의 理念과 制度가 성공적으로 뿌리 박아 結實할 수 있는 모든 環境과 條件을 충분히 갖추고 있다고는 볼 수 없다. 그러면 民主主義를 포기하여야 한단 말인가. 결코

그런 意味에서 主張하려는 것이 아니라 문제는 世界民主諸國이 각기 自國의 特性에 맞추어 民主制度를 발전시켜 나가듯 民主主義의 일반론적인 價値를 尊重하면서 우리의 特性에 알맞는 制度를 創出하여 民主主義를 土着化시켜야 한다는 점에서 지적한 것이다. 그러면 과연 우리의 特殊性에 알맞는 民主主義를 어떻게 土着化시킬 것인가를 알아 보기로 한다.

4. 韓國民主主義의 定立方案

政治體制나 政治理念이 아무리 崇高하고 확립하게 만들어졌다 하더라도 그 자체를 목적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그 社會集團의 公同欲求를 충족하며 그 集團의 정치적 目標을 달성하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生成되고 發展하여 온 것이다. 따라서 欲求充足과 目標達成을 위한 効用性에 의하여 政治理念이나 制度의 價値는 평가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그러면 오늘날 우리 民族의 基盤적 욕구는 무엇이며, 달성하고자 하는 當면 政治的 目標은 무엇인가. 현재 우리민족의 公同된 欲求를 크게 보면 ① 統一, 獨立된 民族國家를 이루어 국가이익을

수호·伸張·擴大하려는 욕구 ② 民族文化 傳統의 繼承·發展을 통한 自主의 民族生存樣式을 創造하려는 욕구 ③ 國家安保와 經濟繁榮을 통한 福祉·正義社會를 실현하려는 욕구 등으로 집약될 수 있다.

이러한 엄청난 課題를 실현하는데 있어 西歐民主主義 방식으로 가능한 것일까. 우리의 욕구실현은 우리 실정에 맞는 민주주의의 理念과 制度하에서 効果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이며, 그럴 때 비로소 그 存在價値가 인정될 수가 있는 것이다.

사실 우리나라가 당면하고 있는 과제는 첫째로, 앞에서 지적한 우리 민족의 公同된 욕구는 해결되지 못한채 서로 복잡하게 얽힘으로써 정부를 끊임없이 壓迫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엄청난 課題를 동시적이고 지체없이 해결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이다.

둘째로, 정부가 수행하는 課題가 아무리 어렵다 하더라도 정부의 公正하고 誠實한 政策遂行으로써 국민의 信賴를 획득할 수 있으며 또 국민의 自制와 諒解로써 정부에 대한 要求가 과도하지 않을 때 민주정치는 순탄할 수가 있다. 그러나 우리 국민은 國家安保를 강력히 요구하면서도 또 한편으로 완전한 自由와 民主도 원한다. 급속한 經濟成長도 원하면서 福祉政策도 강력히 요구한다. 이러한

要求에 對處하는 政治도 때로는 國家利益의 觀點에서보다 또는 國民的 合意의 觀點에서보다 黨利黨略과 政權의 차원에서 원색적인 對決을 일삼았다는 불행한 經驗을 갖고 있다. 對話와 討論을 통한 民意反映의 進路으로서의 國會가 되어야 하며, 行政府도 信賴와 誠實로서 政策의 優先順位에 따른 執行을 해 나가야 한다.

세째로 民主政治의 발전을 위해서는 國內政治體制와 國際的인 支援機構과의 關係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이미 앞에서 言及한 바와 같이 산적한 民族的 課題를 해결해 나가는데 있어서 自由民主主義방식을 가지고는 그 現實的 効用性에 대해서는 의심스러운 일임에 분명하다. 더구나 西歐民主政治를 移植시키 土着化시킨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諸般現實與件이 不備한 狀態에 있음을 감안할 때 그 어려움은 더욱 절실하다고 하겠다.

해방 후 국민성과 政治文化에 뿌리박지 못한 自由民主主義의 명분이 그나마 維持될 수 있었던 것은 「유엔」과 美國을 위시한 自由友邦이 主導하는 國際體制였다. 그 이후에도 국제적인 協調와 後援이 外部的인 壓力과 內部的 危機를 감당해 내는데 큰 역할을 하였던 것이다.

이와 같은 課題를 지닌 우리는 우리의 現實狀況에 알맞는 兩面的 接近過程을

밟아 나가야 할 것이다. 즉 우리나라의 現實狀況 그리고 國民性格을 西歐民主主義의 理念과 價値에 접근하게끔 改造 發展시켜 나가야 한다는 측면과 다른 하나는 서구민주주의의 理念과 制度를 우리나라의 현실상황과 政治文化, 국민성적에 알맞도록 變容·改造해 나가는 방법이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는 우리의 民主主義로 歸一시켜 土着化된 創造的 民主主義로 定立해 나가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민족의 欲求充足과 目標達成을 위해서는 우리 나라의 政治社會를 自由民主主義의 價値를 尊重케 하는 풍토를 만들어 나가면서 自由民主主義를 韓國化하는 接近方法을 통해서만이 가능할 것이다. 바로 지금이 그러한 과정을 실천에 옮기고 있는 중이라고 해도 틀리는 말은 아닐 것이다.

5. 맺는 말

아무리 좋은 衣冠이라도 입는 사람의 몸에 맞추어 입을 수 밖에 없으며, 아무리 좋은 음식이라도 먹는 사람의 體質에 맞게 먹을 수 밖에 없는 것이다. 또 자기 몸을 생각지 않고 衣冠이 크다 작다고 말해야 소용없으며, 자기 체질을 생각지 않고 음식을 트집잡아야 소용없듯

이 우리의 역사적 傳統과 政治文化 그리고 意識水準을 고려하지 않고 각자가 소망하는 政治體制나 理念이 당장 실현되기를 바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러한 立場에서 우리가 定着시켜야 할 현실적인 民主主義의 요건은 ① 共產主義의 위협으로부터 민족의 生存과 安全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하고 ② 國政의 非能率性을 배제하고 民意를 正常的으로 수렴할 수 있어야 하고 ③ 自由經濟體制의 활동을 보장하고 ④ 고유한 文化배경과 민족전통에 合致해야 하는 등이다.

사실 제5공화국 헌법체제는 民主主義 요건에 부합하려는 노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으며, 이를 위해 全斗煥大統領은 취임사에서 3大苦遁으로부터의 解放을 선언하였던 것이다. 즉 戰爭, 貧困, 政治的 탄압과 權力남용으로부터의 해방은

바로 民主政治를 올바르게 실현할 수 있는 관련임에 틀림없다 하겠다.

이것은 최고 지도자의 民族과 국가를 위한 예지임에 분명하지만, 이를 실현하는데는 최고지도자 한 사람의 意志만으로는 달성될 수 없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 전체가 일치단결하여 적극 참여하고 공동 합심하는 大和合의 참여정신이 긴요하게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민족국가 발전과 민주주의를 土着化하기 위한 前提가 바로 安定과 和合, 그리고 創造, 改革, 發展의 意志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自由롭고 중요한 福祉社會」의 實現을 위해 다 같이 國家發展에 헌신하는 정신자세를 확립해야 할 것이다. 이 길이 곧 민주주의를 보다 빨리 土着化할 수 있는 길이라 하겠다.

<名將 名言>

戰力은 단결에 있고, 團結은 곧 勝利를 낳는다.

— 맥 아 더 —

部下들에게 必勝의 信念을 갖게 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 勝利하는 機會를 자주 體驗시키면 되는 것이다.

— 롬 멜 —



실전과 같은 훈련을 통하여
익힌 전술 전기는 복귀의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도발도 즉각
응징 섬멸할 것이다.

새 次元의 戰略態勢를 誇示

韓·美연합군의 한반도 방위능력과 유사시 戰略機動 능력을 시험하는 「팀스피리트 81」 연합훈련이 지난 2월 1일부터 4월초까지 60여일간에 걸쳐 한국지역에서 실시되었다.

연합훈련 史上 최대규모인 16만1천여명의 韓·美양국군이 참가한 이번 훈련의 구체적인 목적은 『한국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돌발사태에 대응하기 위한 韓·美양국군의 전개, 수용, 운용 등을 연습』하는데 있었으며, 전반적인 훈련은 ① 전략적 전개 ② 야전기동 및 상륙훈련 ③ 해외투입부대의 주둔지 복귀 등 3단계로 진행된 것이 예년과 비슷했다.

「팀스피리트」(단체정신)로 불리는 韓·美연합훈련은 지난 76년 이래 이번이 6번째, 韓·美연합사령부 창설 후로는 3번

文

道

彬

〈서울신문·論說委員〉

제가 된다. 이렇듯 훈련 자체는 언뜻적으로 반복돼 오고 있다. 그러나 이번 훈련은 최근 韓·美 양국이 처해 있는 安保 환경의 급격한 변화양상을 감안할 때 예년에 비해 특별한 意義가 있었음을 우리는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선 이번 훈련은 駐韓美地上軍의 철수 계획이 완전히 白紙化된 상황에서 전개된 사실에 큰 뜻이 있었다고 하겠다.

지난 2월 초 「레이건」美國대통령이 全斗煥대통령과의 頂上회담 공동성명에서 撤軍계획의 백지화를 선언한 것은 北傀의 對南공격태세를 極東지역에서 급격히 증강되고 있는 蘇聯의 군사적 膨脹주의의 일환으로 보는 새로운 전략판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인 것이다. 다시 말해서 美軍의 韓國주둔은 단지 北傀도발에 대한 억지력으로서 뿐만 아니라 東北亞지역 자유국가들을 위협하는 蘇聯군사력에 대한 견제력으로서도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는 것이 美國 정부의 새로운 전략판단인 것이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이제까지 美國의 「아시아」지역 방위전략은 地上방위의 1차적 책임을 해당지역 우방국에 지운다는 69년에 발표된 이른바 「팜」선언에 기초를 두고 있었다.

69년의 「포커스·레티나」와 70년의 「프리덤·볼트」등 大空輪훈련은 바로 이같은

전략개념에 따른 「駐韓美 7사단의 철수에 대비한 「代替力量」의 준비훈련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같은 맥락에서 76년부터 실시된 「팀스피리트」 역시 잔여 美地上軍의 철수문제와 결코 無關한 것이 아니었다고 하겠다.

그러나 「레이건」대통령은 「카티」前행 정부가 급년들어 韓·美간에 재검토하기로 예정했던 철군계획을 백지화함으로써 그러한 의욕을 깨끗이 불식했다. 이로써 韓·美연합방위 전략개념은 國軍과 駐韓美軍 그리고 增援美軍을 주축으로 하는 3重의 억지력으로 地域安保에 기여하는 새 차원으로 재정립되었으며, 그 전략태세의 첫 시험이 이번의 「팀스피리트 81」 훈련이었던 것이다.

다음으로 우리는 이번 훈련이 직접적으로는 우리의 選舉期에 편승, 새 共和國의 출범을 방해하려는 北傀의 기도에 결정적인 制動을 걸었다는 사실을 또한 중요하게 평가하지 않을 수 없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연말 우리 國防당국은 全軍 지휘관회의를 통해 새해 들어 北傀는 對南침투를 그 어느 때보다도 격화시킬 것으로 판단하고 그들의 어떠한 형태의 군사적 도발도 즉각 응징할 수 있는 만반의 전투태세를 강화해 나갈 것을 다짐한 바 있다.

그러한 판단과 결의의 근거로서 軍지

취관들은 ① 최근 美國의 관심과 군사력이 中東지역에 집중되고 있는 반면 蘇聯의 군사력은 증강일로에 있어 東北亞지역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사실 ② 소위 제6차黨大會 이후 전례없이 공세적인 군사태세를 보이고 있는 北傀의 최근 동향 ③ 특히 우리의 제5共和國 출범을 앞둔 兩大選거기를 겨냥한 北傀의 도발격화 징후 등을 들었던 것이다.

이 일련의 정세판단에 의한 우리의 철통같은 대응태세가 「팀스피리트 81」로 과시된 것임은 더 말할 것도 없다. 「팀스피리트 81」훈련은 단일 복귀가 남침공격을 시도해 올 경우 韓·美연합군은 칠락군을 現前線에서 단호히 섬멸할 뿐만 아니라 敵의 心藏部에까지 致命的인 타격을 가한다는 韓·美연합방위 전략태세의 행동적 實證이다.

韓·美연합군의 이와 같은 전략태세를 北傀와 그 背後세력에 거듭 확실히 인식시킨 것이 이번 훈련이었던 것이다.

聯合防衛능력의 획기적 提高

「팀스피리트 81」훈련의 成果 역시 예년과는 비할 바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그것은 이번 훈련의 전개와 배를 같이해서

「존·워컴」韓·美연합군사령관이 지난 2월, 美議會上에서 행한 證言 내용과 그에 병행한 美國 정부의 몇 가지 조치에서 확인할 수 있다.

「워컴」장군은 그의 증언에서 北傀의 위협적인 南侵능력에 대응하기 위해 韓·美연합 방위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法的 뒷받침이 요청된다고 강조했으며 이에 대해 議會도 同調하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특히 그는 현재 北傀가 韓國에 대해 언제라도 기습공격을 감행할 수 있는 모든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것을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사실을 들어 경고했다.

즉 北傀는 外部의 지원이 없이도 최소한 60일간의 전쟁을 독자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고, 각종 裝備面에서 전반적으로 韓國측보다 2배 내지 4배로 우세하며, 세계 최대규모의 特攻隊와 이를 韓國후방에 투입하기 위한 2백 25대의 AN-2機 및 20척의 潛水艦 등 복수장비를 보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휴전선상에는 12개의 땅굴이 더 있을 것으로 推定되고 있는 한편 최근에는 비무장지대 근방에 새로운 탱크부대를 배치하고 있다는 사실을 열거했다.

그는 北傀의 이러한 군사력 증강이 한반도와 東北亞지역의 安定에 큰 위협이 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韓·美연합군이

이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韓國國軍전력증강을 위해 美議會는 지난 79년에 체결된 「나토」(北大西洋조약기구) 相互支援조약에 포함된 내용과 같은 새로운 法案을 승인해야 한다고 촉구함과 아울러 駐韓美軍의 증강조치와 그리고 北傀의 기습공격이 벌어질 경우 美國은 早期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美地上軍과 海 · 空軍을 추가로 증파하는 것이 절대 不可缺少하다고 力說한 것이다.

우리는 이상과 같은 요청이 「팀스피리트 81」훈련의 진행과정에서 美國의 政策에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반영된 사실을 눈여겨 보았다. 오랜 懸案이던 F-16戰爆機의 對韓판매결정과 군사판매 원조액의 증액조치, 駐韓美軍 전력증강을 위한 소요예산의 대폭적인 上向조정과 AN-2機 등의 低空침투에 대응키 위한 「스팅어」防空미사일 및 M-198 新銳곡사포의 신규배치 결정 등이 그것이다.

또한 美國防당국이 세계분쟁지역에서의 공격행위를 신속 저지하기 위해 최근 편성한 「신속배치군」(RDF)의 작전 범위를 「페르시아」灣 지역만으로 축소조정함과 함께 이 지역의 방위를 위한 별개의 작전사령부를 창설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진 것은 한반도 유사시 美國은 早期에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 增援軍을 한국지역에 투입할 수 있는 새 전략개념을 정

책적 차원에서 착실히 굳혀가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 하나 주목되는 사실은 美國정부가 韓 · 美양국의 군사협력관계를 원활히 하고 韓 · 美연합군의 전투태세를 강화할 목적으로 「나토」 상호 지원조약과 비슷한 내용의 「상호보급지원에 관한 行政協定」을 올해 안에 韓國정부와 체결할 방침이라는 소식이다. 이는 지난 2월 韓 · 美頂上회담에서 합의된 군사협력의 강화원칙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더 구체적으로는 美國이 對外군사지원정책에 있어 이제까지 「B그룹」에 속해 왔던 韓國을 앞으로는 「나토」圈과 동등한 「A그룹」의 最惠國으로 대우하겠다는 새로운 차원의 政策意志가 그에 담겨 있는 것으로 이해되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레이진」 행정부의 새 군사전략은 과거의 이른바 新孤立主義의 성향을 벗어나 蘇聯의 그칠 줄 모르는 군사팽창주의를 「連繫개념」(Linkage Concept)에 의해 저지하려는 전 세계적인 차원으로 재정립되고 있다.

이 전략개념에 따라, 현실적으로 蘇聯 군사력의 4분의 1을 極東지역에 固着시켜 「유럽」으로의 이동을 전제하고 있는 駐韓美軍과 韓國軍의 역할을 재평가하고, 또 國防費 부담에 있어서도 「나토」圈에 국민총생산(GNP)의 평균 2%선, 같은

A그룹」인 日本이 1%를 밀두고 있는데 비해 美國과 거의 맞먹는 6%를 지출하고 있는 韓國을 最惠國으로 格上 대우하겠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論理의 귀결이라 하겠다.

이밖에도 美國은 韓·美頂上 공동성명에서 「필요적절」한 장비류의 對韓판매와 防衛産業기술지원 그리고 긴급사태시의 「에너지」공급 등을 다짐한 바 있다. 「타임스피리트 81」훈련은 實戰的인 상황전개를 통해 韓·美간 「상호지원」의 所要를 충분히 산출해 냈을 것으로 믿는다. 그리고 오는 4월 하순에 열릴 韓·美安保협의회의에서는 이 훈련 경험을 토대로 해서 韓國軍과 駐韓美軍의 전력강화문제가 진지하게 토의되어 알찬 결론을 도출해 낼 것으로 기대된다.

「타임스피리트 81」훈련의 성과는 바로 이상과 같은 視角에서 한없이 소중하게 여겨지는 것이다.

北傀의 非難은 賊反 荷杖

「타임스피리트 81」훈련의 성과는 훈련실시를 전후해서 北傀의 모든 선전매체들이 거의 매일같이 신경질적인 對南 및 對美 비난의 반응을 나타낸 사실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는 「序頭」에서도 지적했듯이 훈련이 매차침 우리의 兩大選거기간중에 실시되었고 따라서 이 기간을 악용하여 對南도발을 피하려던 기도가 이번 훈련으로 말미암아 여지없이 좌절된데서 나온 斷末魔의인 반응인 것이다. 지난번 10·26사태 때 北傀는 이를 「18년만에 닦쳐온 革命高潮期」라고 좋아 날뛰며 「기회를 놓치지 않고 모든 힘을 다해 南韓人民의 혁명투쟁을 지원하겠다고 떠들어대다가 軍이 先導한 일련의 改革조치에 의해 우리사회가 질서와 안정을 되찾게 되자 그후부터는 軍에 대한 국민의 不信感 조성에 촛점을 맞추어 「혁명고조기」의 再燃에 출몰 혈안이 되어 왔다.

그들은 그 適期를 이번의 선거기로 보고 온갖 발악을 다하려다 「타임스피리트」에 의해 결정적인 제동이 걸린 것이다. 더욱이 이번 선거에서 민주·복지·정의사회를 구현하려는 우리 국민들의 단합된 의지가 유감없이 드러났고 새시대를 건설하려면 무엇보다도 튼튼한 安保체제의 구축이 최우선적 과제를 믿는 국민적 합의와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도가 높이 과시되자 그들은 對南모험을 어쩔 수 없이 留保하기에 이른 것이다.

北傀는 그들의 흥계가 좌절을 맛보자 또 다른 발악을 일삼고 있다. 얼마전 金

旧成은 平壤을 방문한 日本社會黨대표들과 만난 자리에서 金斗煥대통령과 「레이전」美國대통령에 대해 입에 못담을 극렬한 人身 공격을 퍼부으면서 韓·美 양국은 「北侵」을 위해 군사체제를 일층 강화하고 있다고 비난, 그 증거의 하나가 「팀스피리트 81」훈련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엉뚱하게도 이른바 「東北亞 非核지대」의 설정에 대한 국제적 승인이 필요하다고도 떠벌었다고 한다.

「팀스피리트」가 평화목적의 순수한 방어훈련임은 지난 2월 13일의 제4백5차 軍事停戰委 본회의에서 그들에게 충분히 설명된 바 있다. 이 회의에서 우리측 대표가 최근 휴전선 비무장지대 안에 불법 배치된 北傀병력이 5배로 늘어났을 뿐 아니라 공공연히 기습공격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는 사실을 폭로하면서 그것은 敵對의이며 파괴적인 군사행동을 멈추지 않는 한 韓·美 연합훈련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말하자 北傀측 대표의 말문이 막혀 버린 것은 그들의 「팀스피리트」에 대한 비난이 한낱 자신의 好機性을 호도하기 위한 생매에 불과한 것임을 스스로 是認한 것이라 하겠다.

「東北亞 非核지대」운운도 똑같은 억지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현행 核擴散금지 조약은 핵보유국을 美·英·佛·蘇·中 共 등 5개국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이 조

약에는 韓國과 日本이 이미 가입되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에 가입조차 하지 않은 北傀가 한반도와 日本에서 美國의 핵우산을 거둬가라는 것은 자신과 軍盟관계에 있는 蘇聯과 中共의 핵지원을 韓半島에서 독차지하겠다는 '속셈'이 담긴 僞裝 평화선전에 지나지 않는 것이다.

따라서 모든 군사태세를 철저히 공격 위주로 유지하고 있으며, 先制기습공격을 목적으로 하는 군사훈련을 비공개리에 거의 날마다 실시하고 있는 北傀가 우리의 「팀스피리트」훈련을 비난한다는 것은 한 마디로 賊反荷杖의 극치라 아니할 수 없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얼마 전 美國정부는 國務省대변인을 통해 「레이전」대통령 개인에 대한 비방까지를 포함한 北傀의 구태의연한 對美도발자세를 결코 더 이상 용납하지 않을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 바 있다.

현재 美國을 위시한 대부분의 「유엔」회원국들은 한반도 문제의 自主의이며 평화적인 해결을 위한 南北韓 최고책임자의 교환방문을 제창한 全대통령의 「1·12제약」을 하나같이 공명, 지지하고 있다. 특히 全대통령은 北傀의 이제까지의 반응을 아직 공식거부로 보지 않으며 金日成이 원한다면 언제든지 직접 만나서 전쟁방지에 관해 公開토론할 용의가 있

음을 최근 지방순사의 기회에 거듭 천명했다.

따라서 이제 北傀가 택할 길은 이제 의를 받아들여 민족의 생존과 번영을 위한 평화를 찾느냐, 아니면 부질없는 전쟁모험의 고집으로 自滅을 재촉하느냐의 두 길밖에 없다. 이번의 「타임스피리트 81」 훈련은 바로 그같은 命題를 金日成에게 거듭 明示의으로 일깨워주었다 할 것이다.

自主國防 決意를 새롭게 하자

결론적으로 이번 연합훈련의 종료에 즈음해서 우리 國軍이 새삼 다짐할 바는 더욱 완벽한 初戰능력을 갖추어야 한다는 한 바디로 집약된다.

현대전에서 초전이 전쟁의 승패를 가름하는 관건이 된다는 것은 최근의 여러 局地戰사례에서 너무나 분명하게 입증되고 있다. 더구나 北傀의 기습남침이 이른바 「3日戰」 등으로 불리는 短期速決戰 양상으로 벌어지리라는 것은 우리가 익히 예견하고 있는 터이다.

또 사실상 이에 대응키 위한 韓·美연합방위태세에 있어서 增援美軍이 韓國지역에 투입 전개될 때까지 初戰은 우리

國軍이 도맡아 수행해야 할 형편에 놓여 있다. 바로 이 점에서 독자적인 전선방어 능력과 일단 유사시 즉각적인 대량보복에 의한 초전섬멸능력을 완비해야 할 우리 國軍의 所任은 한없이 막중한 것이다.

물론 큰 틀에서 볼 때 韓·美연합방위 체제가 우리의 國家安保를 위해 결정적인 기능을 하고 있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美國의 對韓公約은 지난날의 越南을 상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국민 모두의 自主國防 노력을 前提로 해서 이행되고 있다는 엄연한 사실을 한시도 잊어서 안 될 줄 안다.

소대통령은 지난번 訪美 귀국인사에서 이 점을 강조했다. 즉 『美國은 어디까지나 우리를 돕는 입장이며 국가안보의 진정한 主體는 우리들이다』 『우리 자신이 나라를 지킬 결의와 자세를 갖추지 못하고 있을 때는 他國이 우리를 도우려 해도 도울 수 없게 된다』 『강한 빛을 갖기 위하여는 우리 자신이 강해져야 하며 弱者에게는 강한 빛은 물론이고 약한 빛도 없는 것이 국제사회의 현실이다』라고 강조한 대목들을 이제 우리는 初戰능력 완비라는 과제와의 관련하에서 거듭 가슴 깊이 명심해야 하겠다.

기실 「레이전」 美國대통령도 지난 1월 그의 취임사에서 『美國은 友邦들의 합조도에 따라 상응하는 지원을 하겠다』는

표현으로 對外지원공약의 이행방침을 밝힌 바 있다. 이 방침에 따른 對韓公約의 이행이 철근계획의 백지화, 韓國의 國防力 향상을 위한 지원에 있어서의 最惠國 대우, 駐韓美軍전력의 획기적인 강화조치 등으로 구체화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韓·美연합 방위능력을 계속 높은 수준으로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는 「협조도에 상응하는 지원」의 가치를 우리가 먼저 그리고 끊임없이 創出하는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 노력이 다름 아닌 軍·民 일체화된 自主國防 태세의 확립인 것이다.

일반 국민들의 입장에서서는 현대전이 총력전임을 깊이 인식하여 國軍전력증강과 방위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기 위한 防衛稅 부담을 기꺼이 나누어 맡음과 아울러 특히 北傀의 對南전략은 소위 「정규전과 비정규전의 배합」에 의한 前後方 동시적인 기습침공을 기본으로 삼고 있음을 직시하여 후방지역에 虛點이 없도록 豫備軍, 民防衛조직을 주축으로 한 自

衛노력에 가일층 힘써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사회혼란은 敵의 도발을 불러들이는 최대의 誘因임을 명심하여 사회 전반의 安定基調를 계속 확고히 다져나가야 하겠다.

한편 前線을 달고 있는 國軍장병들은 통수체계를 중심으로 한 일사불란한 단결 속에 적의 어떠한 형태의 도발이나 침투도 初戰에 자신있게 섬멸할 수 있는 힘을 꾸준히 연마해 나가야 하겠다. 소대 통령은 지난 겨울 전방부대를 시찰한 자리에서 투철한 정신무장, 강인한 체력, 효율적인 戰術戰技 등 3대요소가 유지되어야 비로소 우리 군은 強軍이 될 수 있다고 훈시한 바 있다.

이 3대요소의 부단한 강화문제야말로 곧 韓·美연합방위에 있어서의 初戰능력 완비를 위한 과제와도 직결된다고 믿는다. 따라서 이번 훈련을 계기로 우리 장병들이 새로이 다짐할 바가 무엇인가는 이제 더 이상 부연해서 설명할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

×

×

資源民族主義
擡頭와

우리의
活路

國際社會의 外交通念上 絶對
的인 우방국과 絶對的인 적대
국이 없다. 이것은 국가의 利
益과 目的이 環境에 따라 달라
지기 때문이다.

1. 資源民族主義의
概念

1. 資 源

資源이란 天然資源, 人力資源, 技術資
源, 食糧資源 등으로 이야기할 수 있으
나 大體的인 資源의 定義를 내리면 資源
이란 人類의 物의 生活과 그 手段을 可能
케 해주며 따라서 그것이 集體的으로 表
現될 때 國力의 土臺가 되는 稀少價値가
있는 天賦의 物理的 實體로서 人間의 努
力에 의하여 自然的 또는 人爲的 環境 속
에서 抽出 應用되는 合目的 機能을 수
행하게 되는 것으로 定義할 수 있을 것
이다.

資源으로서 가장 重要한 要件은 通設
的으로 技術的 妥當性(Technical Fea-
sibility)과 經濟的 妥當性(Economic

丁

泰

垣

△國際政治學 碩士▽

Feasibility)을 들고 있다. 첫째는 現在의 技術로 그 資源을 實用化시킬 수 있는가 하는 問題이며 둘째는 그렇게 해서 일반에 보급시킬 때에 어떤 經濟性이 있는가 하는 것이 問題가 될 것이다. 이 외에도 알렉산더스프 教授는 資源에 대한 文化的 認識을 強調하고, 또 交通經濟學者나 空間經濟學者들은 資源의 要件으로서 近接性을 重要視한다.

2. 民族主義

民族主義는 한 마디로 民族利益, 國家利益을 모든 價值보다 優先視하는 一連의 主義이다. 이러한 民族主義(Nationalism)는 한 민족이 자각적으로 民族國家(Nation State)를 수립하고 단결하여 政治的, 經濟的 또는 文化的으로 獨立하려는 意志이며 앞으로는 國民의 모든 生活制度—政治, 經濟, 社會 기타 文化—를 民族化(國民化, 社會化)하려는 노력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民族主義는 18세기 후반기 啓蒙思想과 프랑스 혁명과 더불어 대두된 것이다. 프랑스 혁명의 結果는 각각 그 特色을 유지한채 産業革命의 물결을 타고 資本主義化하였으며 결국은 自民族國家의 利益을 追求하는 重商的 民族主義, 나아가서는 植民地帝國主義로 發展된다. 대체로 初期 民族主義 時代의 發芽時에는 人本的이며

自由主義的이고 世界主義的이기도 했던 民族主義가 産業化, 物質化, 富國化를 指向하는 過程 속에서 自民族國家의 利益을 위해서는 他民族國家를 침해해도 좋다는 豫後된 論理를 正當化시켜 나갔던 것이다.

3. 資源民族主義

資源民族主義는 여러 가지 유형의 후진국 民族主義의 하나로써 한 마디로 定義하자면 基本的 資源이 있으면서 資本과 技術을 못가진 後進 開發途上國들이 政治的 獨立과 더불어 그 獨立을 確固히 하기 위해 必然的으로 自國의 有限한 資源을 外勢로부터 保護하며, 또한 效果的 利用으로 國家利益을 도모코자 함을 그 目的으로 하는 일종의 政治經濟的 이데올로기라고 할 수 있다. 아마도 20世紀의 汎民族主義 時代에 있어서 資源民族主義처럼 世界를 불안하게 한 것도 없고 根本的으로 모든 國家의 政策과 路線에 지대한 影響을 끼친 것도 없는 듯하다. 어쩌면 西歐의 民族主義는 17, 8世紀에 처음으로 主唱되기 시작한 이래 自由主義的 民主主義, 植民帝國主義, A. A 民族主義라는 分化過程을 거쳐 現今에 資源民族主義라고 하는 一連의 抵抗의 이데올로기를 派生시킴으로써 世界的인 혼란을 야기시켰고, 그럼으로써 그 自體

의 속성과 限界를 赤裸裸하게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2. 資源民族主義의 擡頭

1. 低開發國의 貧困化

資源民族主義의 近代의 대동은 일찍이 中南美지역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다. 1917년 멕시코는 혁명 후 「지하천연 자원은 국가소유입」을 헌법에 규정했고 곧 이어 1920년 베네주엘라가 석유탐사 및 개발이 외국기업에 의하여 이루어질 때 税金의 부과를 시작하였으며, 2차대전 이후에는 경영참가를 내용으로 하는 新石油法을 제정하여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천연자원에 대하여 배타적 이용권을 국제적으로 명시하기에 이르렀다. 中南美에서 發生한 石油資源의 國有化를 향한 점진적 조치는 中東아프리카 지역으로 번져가서 마침내 1951년 이란의 石油國有化가 이루어졌고 마침내 1952년 제7차 UN총회에서 「天然의 富에 대한 國有化」가 선언되었다.

이와 같은 일련의 조치는 2차대전 이후 植民地下에서 해방된 新생독립국가들이 政治的 독립은 성취하였으나 經濟的

自立을 구축하려는 그들의 노력이 對內外的으로 開發에 대한 經濟적 장벽에 부딪쳐 크게 좌절되자 植民地時代의 對宗主國들에게 일방적으로 흘러가기만 하던 천연원료 및 1차產品의 역사적 不等價교환에 대한 뒤늦은 보상을 촉구하면서 그들이 안고 있는 經濟的 낙후성을 해결하는데 선진국의 共同責任을 요구하였다. 한편 전후 이들 新생국들은 美·소 양대국을 축으로 하는 兩極化의 냉전체제 속에서 초연한 政治, 外交的 입장을 취하면서 「타롯새」가 지적한 대로 낙후성을 지닌채 자유주의 경제진영에도 공산주의 진영에도 속하지 않는 제3의 불록을 형성하였고, 그들의 주도세력들은 非同盟中立主義의 政治的 노선을 걸었다.

그러나 60년대에 접어들면서 이들 新생국가들이 국제경제 속에서 점유하고 있는 위치를 이해하는 데는 새로운 시작이 필요하다. 즉 국제경제구조의 多元化 추세 속에서 이들 新생독립국가들이 추구한 제3세계 운동이나 혹은 이들 가운데 그 주도세력들이 추구한 非同盟運動의 차원보다는 「프랭크·오리브」가 말한 南北관계에서 南으로 통칭되는 國家群들의 문제로 보는 것이 더욱 적절하다.

資源民族主義를 南北관계에서 볼 때 선진 고도공업국의 공산품과 資源保有 저개발국의 1차產品 사이의 국제교역에서

필연적으로 發生하는 不等價교환이 초래하는 빈부격차의 심화에 대한 南측의 항변이라고 볼 수 있다. 신생국의 이러한 움직임에 대하여 전후 경제부흥을 끝낸 소련을 위시한 東유럽 및 아시아의 사회주의 진영국가들은 50년대 중반부터 제3세계의 신생국가군에 접근을 시도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대하여 자본주의 선진제국들은 저개발국의 빈곤의 퇴치없이 는 자본주의 세계의 안정과 번영도 있을 수 없다는 인식을 확대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세계적 움직임의 결과 60년대에 접어들면서 UN총회에서는 「植民地獨立宣言」을 채택하여 신생독립국의 정치·경제적 지위에 관한 이슈가 국제정치적 전면에 나타나기 시작하였다.

2. 石油危機와 資源民族主義

南北관계에 南의 지위향상을 위한 국제적 노력은 1973년 10월 中東戰을 계기로 획기적 신국면으로 접어들었다. 1973년 제4차 中東戰을 계기로 OPEC에 의한 석유의 자원무기화의 단행으로 產油國은 석유산업의 국유화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그들은 석유의 가격결정 메카니즘에 생산자측의 의지를 제입시키고 선진국의 대 공산품 패리티

指數를 인상시킨 결과 산유국들의 대공업국 교역조건은 크게 상승되었으며, 이는 그만큼 석유소비국의 소득이 산유국으로 강제 이동되었음을 뜻한다. OPEC의 資源武器化 성공은 開途國들에게 중요한 교훈을 안겨 주었다. 資源을 保有하고 있는 南國은 그들의 자원을 무기로 단결하면 선진국의 자선적 施惠 없이도 그들의 경제적 지위와 국제정치에서의 비중을 선양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이후 資源카르텔의 형성이 石油 이외의 原資材에 이르기까지 파급되었고 南北관계에서 開途國이 戰後에 그렇게 부르짖어 오던 대등한 主權과 공평한 富의 분배를 실현하는데 그들의 단체 교섭력은 크게 강화되었다.

이러하여 지금까지 존재하여 왔던 원자재=저가격, 공산품=고가격의 등식은 깨어지고 원자재의 低價格 대량공급 시대는 그 종막을 고하게 되었다. 산유국들의 石油武器化의 성공으로 資源保有 開途國의 경제적 비중의 신장, 中共의 UN 진출, 제3세계 운동과 상승적으로 향상된 開途國의 政治的 지위향상을 배경으로 1974년 4월에는 UN資源特別總會가 개최되어 南北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상징하는 「新國際經濟秩序(NIEO)의 확립에 관한 선언과 行動綱領」이 開途國의 압도적 지지를 받아 채택되었다. 이 宣

음에서 開途國은 새로운 國際經濟질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주요원칙을 요구하였다.

① 開途國의 천연자원과 경제활동에 대한 완전항구권과 국유화를 위한 관리 및 개발권의 인정

② 開途國 交易조건의 지속적 개선

③ 다국적 기업의 규제 및 감시

④ 원조의 확대와 공여조건의 완화

⑤ 開途國의 개발촉진을 금융면에서 보증하는 국제통화제도의 개혁

⑥ 생산자 카르텔의 촉진 등이었다.

이러한 요구사항의 大綱을 선진국들은 지지하였고 이어서 그해 12월 UN총회에서 「諸國간의 경제권리 및 의무에 관한 헌장」을 채택함으로써 資源保有國은 賦存資源 국유화 권리와 자원 카르텔 형성을 국제적으로 확인받는데 성공하였다. 1976년 5월 나이르비에서 1백39개 국가가 참석한 UNCTAD 4차 총회에서 1차 산품의 綜合 프로그램이 채택되는 등 新經濟秩序는 선후진국간의 경제관계를 대등한 교역 당사자로 정립하는데 초점이 모아졌다.

3. 資源民族主義의 未來

OPEC에 의한 석유 무기화의 성공적 實證과 그에 따른 일련의 非石油 국제자원 카르텔의 형성 등 資源民族主義의 열

기는 오일달러의 産油國 집중으로 인한 국제무역구조의 커다란 변형과 非産油開途國, 국제수지의 구조적 逆調, 선진국 경제와 非産油開途國의 성장둔화와 高인플레이가 초래하는 장기적 스태그플레이션 현상을 일으켰다.

開途國들은 석유파동을 계기로 OPEC 구성원 산유국과 非産油國으로 구분되어 국제경제상의 지위가 크게 달라지고 선진국들은 석유자원의 보유 정도에 따라 이해관계가 상충됨으로써 종전과 같은 세계 경제의 南北관계는 그 양상이 상당히 달라지게 되었다. 특히 자원보유 開途國과 자원빈곤 開途國 사이에는 석유의 부존여부를 둘러싸고 새로운 유형의 「종속관계」가 전개되고 있다. 그리고 한편 선진공업국은 석유의 대량공급에서 구축한 消費文明에 커다란 調整(Adjustment)과 變換이 일어나게 되었다. 특히 세계인구의 5%의 국민으로서 세계 에너지 소비량의 30%를 점유하고 있는 미국의 독보적 에너지 多消費文化는 새로운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이러한 국제 경제환경의 변화 가운데서 79년 5월 마닐라에서 개최된 5차 UNCTAD총회는 어느 때보다 침울한 분위기 속에서 開途國 상호간 특히 신흥공업국(NICS) 産油國, 非産油國그룹 사이의 이해대립으로 제3세계의 공동보조에 균열이 일어났다.

코스타리카가 非産油開途國의 石油문제에 의한 국제수지의 어려움에 대하여 對産油開途國 석유평책의 수정을 제기하였으나 OPEC회원국은 이를 반대하였다. 한편 OPEC에 의한 자원민족주의의 공세에 대하여 선진공업국은 크게 단합된 보조를 취하는 대조적 현상이 일어났다. 제5차 UNCTAD총회에서는 남북간의 상호 의존관계, 多者간 무역협정(MTN), 기술이전문제, 완제품 및 반제품의 무역확대조치, 外債의 삭감 등이 논의되었으나 거의 실효를 거두지 못한 채 UNCTAD는 「다음 총회 때까지 노력하든지 연기하자」(Unit Next Conference, Try and Delay)로 종사하면서 폐막되었다.

資源民族主義의 열병을 치른 세계경제는 각 개별국가가 여전히 기본적인 국제경제 단위가 되지만 공동의 문화 및 정치이념의 배경, 지리적 近接性을 기초로 다국적 경제블록들이 국제적인 경제행동 및 교섭단위로 나타나는 경향이 크게 대두되었다. EEC의 선택에서 보는 바와 같이 수개의 복수국가들이 동일 경제단위화되어 가는 조직이 농후하다. 資源民族主義는 19세기 이래 서구적 發展상에 근본적으로 도전하면서 제3세계에 만연되고 있었던 천연부존자원의 고갈, 다국적 기업의 진출, 對外채무의 누적, 상

대적 빈곤화의 문제에 직면하여 「中心國」의존형의 「주변국」발전노선에 커다란 의문을 제기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하여 자원민족주의는 中心一周邊관계의 斷切에서 周邊國의 발전잠재력이 실체화 된다고 보고 전통적 국제분업 이론의 거부, 다국적 기업의 배제 등 자원의 힘에 의한 경제적 자력강생을 달성하는데 상당한 성공을 거두었다. 앞으로 다국화 되어 가고 있는 경제블록화의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우리에게서 오일쇼크 전후와 같은 자원민족주의의 열풍은 반복되지 않을 것이나 경기순환의 단기적 기복을 좌우할 정도의 자원파동은 계속될 것이다. 그리고 자원보유국의 集團化(Grouping)에 의한 힘의 집결은 국제경제 조류의 흐름에 커다란 변수로 앞으로 계속 남게 될 것이다.

資源民族主義는 전후 세계 경제의 지속적 확대균형에 커다란 파문을 불러 일으켰음에 틀림없다. 資源民族主義는 자원의 고갈에서 당면하게 될 인류의 비판적 장래를 앞당겨 예고하여 주었고 그에 따른 충분한 調整時間을 인류에게 가져다 주었다. 그리고 資源民族主義는 선진공업국의 독점적 資源消費文明의 향락에 계동을 걸고 제3세계의 貧困해결에 새로운 길을 열어 놓았다. 그러나 세계경제

는 南北의 유기적이고 공평한 相互依存 (Mutual Interdependence) 관계에서만 지속적 번영을 추구할 수 있다. 선, 후 진국들을 막론하고 세계는 商資源가격에 발맞추어 향후 20여년까지는 장기적 안목으로 신축적 조정기를 거쳐야만 될 것이다. 세계은행의 1979년도 世界開發報告書 (World Development Report)가 지적한 대로 선진국은 자원수요의 절제, 核發展의 안전적 개발, 합성연료의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야 할 것이며 산유국들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생불가능 자원의 수명에 발맞추어 새로운 開發戰略을 장기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고 여타 開途國들은 국내 부존자원의 개발 및 경제성 제고에 노력하여야 될 것이다. 이러한 국제경제질서 속에서 한국과 같은 비산유 NICS는 發展戰略의 대내외적 어려움이 고조되고 있어 위에서 제기한 3개의 경제전의 발전전략을 종합적으로 수용하는 신축적 자세가 요청된다.

이러한 일련의 노력들이 성공을 거두고 세계 전체생산이 신장하기 위하여는 국제상품교역, 국제적 자본이동, 에너지 자원개발 면에서 인류의 보편적 공동노력이 요구된다. 어느 한 요소, 예를 들어서 국제상품교역이 開途國의 資源民族主義 對 先進國의 보호주의 정책의 대립 때문에 파열이 생길 경우 비산유 개도국

(開途國)의 對外債務상환은 전면적 불능 상태에 직면하여 국제금융시장은 와해될 위기에 처하게 될 것이며, 이것은 당사국 모두에게 손실을 가져올 것이다.

南北간의 상호 의존성은 표면적인 경제적 이해보다는 더욱 깊게 얽혀 있다. 단기적 이익 (Ephemeral Gains)에 집착한 南의 資源民族主義나 혹은 北의 大國主義는 다 같이 互惠 不等의 관계로 발전적 승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資源民族主義와 우리의 活路

1. 資源確保政策의 問題點

가. 政策方向의 確立과 政策實踐의 積極化: 石油危機의 長期化展望을 고려하여 早期의 政策確立 및 이의 具體化 實踐이 요망되며 政府가 設定한 에너지 政策의 基本方向에 다음 事項이 確立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로 資源確保體制의 方向을 長期的으로 政府主導로 밀고 나갈 것인가, 또는 民間綜合商社 등 民間의 活動을 提高시킬 것인가의 確定과 이에 隨伴된 支援體制를 마련해야 한다. 그리고 에너지 價格構造의 正常化를 위하여 國內炭價가 輸入炭價의 1/2 程度이므로 이를

政府補助金으로 支援하고 있다. 國內價格決定도 物價에의 影響을 고려하여 抑制하는 등 에너지 價格을 物價政策의 범주 내에서 묶어주는 政策推進을 요망하고 에너지의 海外依存度가 더욱 增大할 우려로서는 에너지 確保上 커다란 制約要因이 될 것이므로 長期的으로 에너지 價格構造의 正常化 國際化가 試圖되어야 할 것이다.

나. 經濟協力の 未治 및 單調로운 協力方式: 우리나라의 對產油國 經濟協力は 中東石油輸出國에의 建設輸出과 이에 따른 人力 送出이 主宗을 이루었고 商品輸出도 石油事態 이후 급증세를 보였다. 그러나 各 產油國이 가장 바라고 있는 直·合作 投資面에서는 아직도 初步의 단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中東의 石油輸出國들은 建設輸出爲主의 進出은 實質의이며 長期的인 經濟協력이 아니라 는 見解를 表明하고 있어 直接去來를 통한 原油의 安定的 供給先 確保를 위해서는 合作投資, 技術提供 등의 實質의 經濟協력이 擴大되어야 한다. 經濟協力は 提供뿐만 아니라 導入도 重要な 協力方式이라는 見解에 입각하여 우리의 國際收支 惡化의 補填手段으로 中東國家의 잉여 오일머니를 導入하는 方案도 講究되어야 할 것이다. 產油國 資本의 國內導入은 產油國과의 經濟協力增進 및 原

油確保를 위한 效果的인 方案으로 評價되며 다른 部門에도 擴大, 協力深化에 努力해야 할 것이다.

다. 財源確保: 資源備蓄, 海外資源開發支援, 國內資源開發 補助, 原子力發電所 建設, 에너지利用 合理化 推進 등 綜合資源 對策을 위하여는 財源確保가 큰 과제이다.

79년의 國際收支惡化 및 80년의 어두운 展望을 勘案할 때 海外로부터의 財源補填에는 상당한 陰路가 隨伴될 것이나 資源確保의 重要性을 감안하여 石油備蓄, 原子力發電所 建設 등의 資金에는 積極的 借入이 必要하다. 日本의 경우에는 에너지 確保를 위한 財源確保方案으로 電源發展促進稅를 引上하고 特別會計를 新設하고 있다.

2. 資源外交의 強化

石油를 全量 輸入에 依存하고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石油 總力外交를 強化해야 할 必要가 절실하다. 특히 中東에서 全量을 輸入하고 있는 우리나라는 中東外交의 積極化 즉 訪問, 招請外交를 強化하고 資源擔當官의 新設 또는 增設과 아라비스트를 養成하여 石油情報를 正確히 把握하여 이에 대한 外交政策方向을 신속하게 대처해야 한다. 安定的인 原油確保를 위한 自主的 外交의 強化가 시급히

요청되나 우리나라는 팔레스타인承認問題로美國을 비롯한 強大國의 눈치를 보고 있다. 그러나 PLO와 관계개선을 하지 않고는 항상 石油危機를 극복하기 힘들 것으로 展望된다. 이에 韓·사우디, 韓·쿠웨이트의 頂上會談을 통하여 PLO의 事實上 승인을 하였다. 특히 PLO의 승인문제는 石油確保뿐만 아니라 제3세계의 關係改善에도 지대한 影響이 있다. 또한 우리나라는 產油國의 未修交國과의 外交關係樹立에 積極的 努力이 必要하다. 이들 對象國에는 우선 政治, 外交的 努力보다는 經濟, 文化 例面부터 시작하여 政府보다는 民間 베이스로 國家利益과 目標을 達成해야 한다.

3. 資源供給先의 多變化

우리나라는 中東地域 國家에서 100% 依存하고 있으므로 이 地域에 政變 또는 紛爭이 發生할 때에는 資源의 長期 安定的 確保가 어렵게 된다. 이에 우리나라는 原油의 導入地域 및 供給國의 多變化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 最近 멕시코를 비롯한 中南美 그리고 인도네시아 등에 상당량의 石油埋藏量이 發見되어 生産段階에까지 이르고 있다고 發表하였다. 이들 資源保有國들에게 長期的인 경제협력 및 資源外交를 강화하여 安定的인 資源確保 對策을 樹立해야 할 것이

다. 우리나라의 經濟構造가 輸出主導的 體制이므로 對美依存의 또는 對日依存의 狀態에서 과감히 脫皮하여 自主的 外交로 直接 또는 間接으로 資源保有國과 바터貿易을 強化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우리나라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에 必要한 資源供給을 中東諸國과 並行하여 여러 地域에서 供給先을 確保해야 할 것이다. 또한 資源保有國이면서 資本 또는 技術 不足으로 開發이 되지 않는 資源保有國에 대해서 資源開發을 통한 輸入도 強化해야 할 것이다.

4. 結 論

國際社會의 外交通念上 絶對的인 우방國과 절대적인 적대국이 없다. 이것은 국가의 利益과 目的이 環境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며 또한 그들 國家와 民族의 背景, 理念, 思想, 그리고 Nationalism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本稿는 中東 產油國의 政治, 經濟, 外交의인 測面을 資源政策의 次元에서 고찰해 보면 첫째, 그들의 국제적 地位強化 및 國家安保, 資源民族主義, 第3世界에서의 非同盟運動 그리고 經濟 및 社會開發 등이 우리나라와의 外交關係 改善에 밀접한 연관관계를 形成시킬 수 있다고 본다.

둘째로 60년대 以前의 UN外交를 中心으로 한 政治外交보다 經濟外交를 더욱 強化하며 우리나라가 欠乏 資源不足 그리고 수출증대, 또한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이룩하려고 하면 中東산유국에 對한 外交를 積極적, 능동적 그리고 自主的 外交를 強化하며 變動對應戰略外交를 檢討해야 한다. 세계로 中東產油國에 對한 外交 專門家를 養成할 必要性이 있다, 이것은 美國이 오일쇼크 直後 中東에 對한 石油專門家들이 없어서 당황했다는 事例을 보면 우리도 아라비스트를 대량 양성하며 자원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對한 외교정책방향을 신속하게 대처해야 할 것이다.

셋째로 자원의 중요성이 증대함에 따라 세계 각국은 中東산유국을 중심으로 자원확보에 對한 外交戰이 일어나고 있다. 이것은 세계 석유매장량의 60%가 中東產油國에 매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의 개발 또는 수입 등의 전략 수립에 政策을 集中시키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는 석유수출국으로 부상된 멕시코, 캐나다 그리고 중동, 인도네시아 등을 대상으로 供給先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우리나라의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들 국가에 대한 合作投資 또는 通商交易增進 그

리고 방문, 초청외교를 강화하고 전문자원담당관의 신설 또는 증설이 외교정책적 次元에서 다루어져야 한다.

다섯째로 자원위기를 勘案한 資源外交政策을 樹立해야 한다. 자원의 중요성이 충분히 인식되어 정책결정에 프라이어리티가 주어져야 하며 특히 각계 전문가의 지혜를 모아 장기적인 종합대책이 樹立되어야 하며 수립된 政策을 一貫性 있게 꾸준히 推進하여 국내 에너지 基盤強化를 추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에너지 위기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민적 이해와 協力이 切實히 要求되는 바 정부의 率直하고 알기 쉬운 홍보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로 자원위기에 대비한 자원비축정책이 시급하다. 선진국에서는 최소 60日에서 최장 180日分까지 비축량을 확대하여 지하, 지상, 해상에서 資源備蓄을 하고 있으며, 국내에 진출하고 있는 Gulf, Caltex, Union의 大石油會社의 불평 등 계약을 수정 또는 廢棄하여 그들의 폭리를 막고 國民經濟를 保護해야 한다. 끝으로 민족자본을 민족자원회사의 설립이 국가의 이익과 국민의 공지를 삼아 주는데 보탬이 될 것이며 자원위기의 國民的 和合이 이루어질 것이다.

蘇聯의 膨脹主義政策

李 基 鐸

△延世大 政大教授▽

— 目 次 —

- 一. 蘇聯의 膨脹政策의 歷史的 패턴
 1. 地政學의 要因
 2. 歷史的 傳統—짜르의 연장
- 二. 蘇聯의 아프카니스탄 侵攻과 問題點
- 三. 結論

一. 蘇聯의 膨脹政策 의 歷史的 패턴

蘇聯의 膨脹政策은 러시아의 짜르시대로부터의 歷史的 傳統에서 기인한다.

짜르政權으로부터의 역사적 傳統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의 소비에트의 世界政策도 이러한 러시아의 歷史的 傳統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한다. 러시아로부터 소비에트에 이르기까지의 膨脹政策을 보려 할 때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地政學的인 要因이며 또 하나는 歷史的 傳統에서이다. 蘇聯의 膨脹政策은 따라서 고전적인 傳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제2차 世界大戰 이후 가장 領土와 勢力圈을 확장하고 장악하고 있는 나라가 소비에트러시아인 것이다.

오늘의 蘇聯은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軍事的 侵攻에서 보듯이 혹은 石油地帶

인 中東問題에 介入하려는 態勢에서 보듯이 그의 領土의이며 勢力圈 領域의 확대를 그칠 줄 모른다. 아마도 美國의 새로운 레이건 政府가 이에 단호한 政策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도 蘇聯의 膨脹政策이 이 이상 展開될 때에는 「西方」의 「生命적 利益」(Vital Interest)이 침해당할 수 있다는 근원적인 출발점에서 그의 政策을 展開하려는 것을 충분히 理解할 수 있는 것이다.

1. 地政學的 要因

蘇聯은 기본적으로 「大陸國家」라는 점이다. 나폴레옹戰爭 이후 러시아는 大陸에서의 패권을 추구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는 비엔나體制의 특징인 유럽대륙에서의 러시아 세력의 霸權을 방지하기 위하여서 구축된 「勢力均衡」體制 때문에 霸權이 形成되지는 못하였으나 러시아의 기본적인 政策은 항상 중부유럽으로의 進出을 통한 유럽 大陸에서의 霸權의 樹立이 目標로 되어 왔다. 오늘에 이르러 러시아가 중부유럽인 獨逸까지 支配할 수 있게 된 것이, 그 대표적인 例라고 볼 수 있다. 거꾸로 파악한다면 歷史的인 意味에서의 西方은 항상 중부유럽의 強化를 통해서 러시아를 견제한다는 것이 1, 2次大戰을 거치면서 西方政策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

이다. 그러나 러시아는 결국 第二次世界大戰以後부터는 中部유럽에까지 進出할 수 있게 되었고 中部유럽을 東獨이라는 형태로 깊이 장악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러시아의 중부유럽에 대한 장악은 순수하게 軍事的인 것이다. 러시아가 오늘날 東獨을 支配하는 것은 직접적인 러시아 사단의 주둔을 통해서 실천되고 있는 것이다. 사실상 나폴레옹 戰爭 직후 英國이 가장 걱정하였던 것은 나폴레옹 軍의 몰락 이후 가장 큰 陸軍國으로서 등장한 러시아의 중부유럽진출을 어떻게 차단할 것인가 하는 것이 최대문제였던 것이고 따라서 英國은 中部유럽의 強化, 즉 獨逸의 形成을 통하여 이를 실천한 것이었다. 오늘의 獨逸問題의 解決은 獨逸의 해체를 통한 中部유럽의 弱化라는 해결로서 러시아와 西方이 타협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날 러시아의 政策의 核心은 역시 유럽大陸에서의 霸權樹立에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다. 러시아의 軍事政策의 核心도 역시 유럽戰場에 있는 것이다. 오늘날 蘇聯의 모든 軍事政策의 초점과 死活的인 戰略地點이 유럽에 있는 것도 러시아의 地政學的인 전통에서 기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러시아의 大陸의 性格은 러시아의 歷史的인 形成의 기원에서부터 시작

되었다. 러시아의 중부유럽으로의 팽창 정책은 地理的으로 항상 西方指向的으로 진행된 것이다. 폴란드의 3차에 걸친 分割政策이 그 代表的인 特徵이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오늘의 蘇聯의 外交軍事政策도 역시 그러한 地理的인 要因이 支配하고 있는 것이다. 中部유럽의 장악을 통한 유럽대륙에서의 霸權樹立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둘째, 地理的인 러시아가 地理的으로 「유라시아」라고 하는 特徵이다. 아마도 世界列強中에 大陸에 있어서나 海洋에 있어서나 간에 유럽과 아시아를 동시에 접하는 地理的 國家는 아마 蘇聯을 제외하고는 없다. 러시아는 유럽대륙과 함께 極東과 시베리아라는 東아시아까지 깊숙이 뻗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地理的 特徵은 러시아나 蘇聯의 對外關係에 있어서 깊은 영향을 받게 된다.

러시아의 歷史는 사실상 大西洋으로부터 太平洋에 이르는 國家的 努力의 均衡을 어떻게 잡아 가는가 하는 것이 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러시아가 그의 外交軍事上의 努力을 어느쪽에 보다 힘을 기울이느냐 하는 데에 대한 國家的 努力에 따라서 그 均衡이 大西洋 혹은 極東으로 나타나는 것이다. 러시아가 大西洋 혹은 太平洋으로의 進出方向의 선택이 한쪽으로 나타날 때에는 다른 反對

方向에서는 「엄호」적인 性格을 띠게 되는 것이다. 러시아의 이러한 선호적인 進出의 方向은 러시아의 國家利益이나 行動의 自由가 주어질 때에 그의 方向이 결정된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두 방향 즉 大西洋으로의 進出 혹은 對處인가 아니면 그 反對方向인 太平洋으로의 進出인가 하는 두 개의 方向은 항상 相互연관적으로 나타난다는 점이다. 러시아의 大西洋인가 太平洋인가 하는 두 개의 軍事外交의 努力과 方向이 相互的이라는 말이 된다. 러시아는 그가 진출하려는 方向의 反對方向에 대하여는 적어도 항상 外交的인 엄호정책이 작용하는 것이다. 때로 상황이 허용된다면 러시아는 進出의 反對方向에 대하여서도 軍事行動으로 나가기도 하는 것이 歷史的인 例인 것이다. 이는 진정으로 진출하려는 러시아의 方向에 대한 대대적인 힘을 기울이기 위한 努力의 일환인 것이다. 적어도 진출하려는 方向과는 反對方向에서 安全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가령 이러한 例를 1960년말에 있어서의 蘇聯에 의한 체코슬로바키아 侵略을 보기로 할 수 있는 것이다. 蘇聯에 의한 체코슬로바키아 侵略은 일단 보기에 따라서는 체코의 自由化를 탄압하기 위한 軍事措置로도 생각할 수 있다. 체코의 自由化를 그대로 내버려 둘 때에는 東유

럼 전체가 自由化의 영향을 받게 된다는 데서 蘇聯의 체코軍事措置가 나왔다고도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論理와는 달리 체코軍部自體의 情報評價에서는 보다 깊은 評價를 한 일이 있다. 蘇聯의 체코 侵攻으로 兵營에 갇혀 있었던 체코軍部の 첩보보고서와 두브체크에게 낸 綜合報告書에 의하면 蘇聯의 체코 侵攻은 그 目的이 다른데 있다는 것이었다. 蘇聯의 체코 侵攻은 단순히 체코라는 소국의 自由化를 염려하여서가 아니라 蘇聯의 체코 侵攻의 目的은 그 目的의 첫째로 中蘇國境問題 때문이며 둘째로 中蘇國境의 軍事對處를 위한 것이고 세째로 中共과의 앞으로의 本格的인 對處를 위한 것이 그 目的이었다고 結論짓고 있는 것이다.

蘇聯이 체코를 侵攻한 것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長期間의 中共과의 本格的인 極東에서의 對處에 대비하기 위하여서는 蘇聯은 일단 그 反對方向인 西歐, 적어도 東歐에 대한 鎮壓을 가할 必要가 있었다는 것이 체코 侵攻의 論理였던 것이다. 蘇聯의 체코 侵攻은 그 目的이 체코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中共에게 있다는 것이 그 論理인 것이다. 蘇聯의 체코 侵攻은 단순히 蘇聯의 東歐政策이라기 보다는 世界戰略의인 觀點에서 전개된 것이라는 점이다. 蘇聯 모스크바의 世界

戰略은 앞으로 極東에서의 蘇聯의 軍事政治의 對決이 蘇聯의 基本目標가 된다고 보았으며 이를 위해서는 西歐와의 「데탕트」와 적어도 東歐의 動搖를 鎮壓하거나 彈壓함으로써 그 反對方向인 極東에서의 蘇聯의 行動範圍를 확고하게 확보한다는 것이 蘇聯의 世界戰略下的 체코 侵攻이었다는 論理인 것이다.

이러한 地理的인 要因의 兩面性은 러시아와 蘇聯의 外交史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獨逸과의 對處를 위해서는 日本과의 不可侵條約을 서슴치 않으며 極東에서의 蘇聯初期의 混亂을 대처하기 위해서는 獨逸과의 秘密條約으로 現狀維持를 서슴치 않는 蘇聯의 外交가 이를 잘 證明하고 있는 것이다.

2. 歷史的 傳統 — 짜르의 연장

이러한 地理的인 要因과 함께 소비에트 外交나 軍事政策을 觀察하는데 重要한 것은 歷史的 傳統問題인 것이다. 蘇聯은 1920년대 초기에 짜르政權의 秘密外交文書인 「紅文書」(그라스노이·알히브)를 간행하기 시작한 일이 있다. 짜르政權의 外交文書を 간행하기 시작한 理由는 물론 짜르政權의 「帝國主義政策」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었다. 특히 짜르政權의 極東政策에 관한 重要한 資料가 간행

되기 시작하였다. 그러나 곧 중단되고 만다. 그 理由는 極東에 관한 많은 外交文書가 간행됨에 따라서 러시아의 立場에서 짜르政權의 極東政策이라는 것이 그들의 國家利益으로 볼 때에 극히 「타당한」 側面이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앞으로 소비에트政權이 追求해야 할지도 모르는 政策의 模型이 노출되기 시작한 것이다. 따라서 소비에트政府는 이 外交文書의 刊行을 중단한 것이다.

이에서 보듯이 사실상 소비에트政權은 짜르政權의 歷史的 傳統을 거의 그대로 이어 받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오늘의 소비에트外交나 軍事戰略을 고찰할 때에 중요한 方法의 하나는 러시아의 歷史的인 傳統을 깊이 관찰하거나 알고 接近하는 것이 아마도 最善의 方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만 蘇聯의 外交나 軍事戰略의 性格을 감플라지하게만 하는 「이데올로기」적인 要因을 제외하고서는 거의 짜르政權의 歷史的 보기를 그대로 계승받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짜르政權의 역사적 패턴의 계승이라는 것은 오늘의 蘇聯의 아프카니스탄 侵攻에서 잘 표현되고 있다. 蘇聯의 아프카니스탄 侵攻은 蘇聯의 이데올로기나 蘇聯의 公式的인 外交論理를 갖고서 무리를 해서도 설명될 수 없는 軍

事現象인 것이다. 蘇聯의 이데올로기나 기타 蘇聯外交論理를 갖고서 해석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이는 歷史的 傳統과의 論理를 갖고서만 해석될 수 있는 것이다.

실제상 러시아外交나 軍事戰略上的 進出은 세계의 方向으로 집약되었었다. 즉 그 하나는 中部유럽으로의 進出이고 또 하나는 反對方向인 極東으로의 진출로서 주로 中共과 日本과의 관계에서 形成되어간 것이다. 그 또하나가 「中央아시아」로의 진출인 것이었다. 오늘날 中央아시아에서의 문제인 中國問題, 아프카니스탄문제, 이란문제(진에는 페르샤문제) 등으로 집약되는 이 地域은 사실상 1907년 「英露條約」에 따라서 러시아의 中央아시아로의 進出을 제어하고 英國과 타결한條約의 結果로 現狀維持되어 온 地域인 것이다. 1907년의 英國과 러시아간의 對立을 中央아시아에서 지역적으로 타결한條約이었다. 여기에서도 페르샤문제, 아프카니스탄문제, 티베트문제를 타결함으로써 中央아시아 문제를 타결하고 오랫동안의 英國과 러시아간의 對立을 일단 現狀維持한 것이었다. 지금의 이란, 아프카니스탄, 中共 등과의 關係에서 거의 같은 패턴의 重要性을 띠면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실제상 歷史的 패턴이라고 할 때에 짜

르 政權의 對外政策의 核心이었던 「따뜻한 바다」로의 진출이며 이를 위해서는 바다와 가까운 地域에 대한 戰略的 掌握이나 突破로 나타난다는 것이다. 戰略的 掌握은 주로 地中海로의 進出을 위해서 항상 터키의 瓦解와 보스포루스해협과 다아다넬스 해협의 장악으로 나타났었다. 進出과 突破는 가능한 모든 바다로의 進出口에는 시도되나 中央아시아도 그 하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는 英國의 進出에 결국 失敗하거나 타협하게 되는 것이다. 사실상 2세기에 걸친 外交史는 大陸 러시아勢力의 바다로의 進出과 英國이라는 海洋國家의 이에 대한 견제와 對處의 歷史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의 소비에트歷史도 이러한 歷史의 패턴과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제2차 世界大戰以後는 英國 대신 같은 앵글로색슨인 美國이 대신하고 있는 것이 다른 점일 뿐이라고 할 수 있다.

二. 蘇聯의 아프카니스탄侵攻과 問題點

蘇聯의 아프카니스탄侵攻을 上記한 地理的인 要因과 歷史的인 패턴이라는 觀點을 전제하고 다음 구체적인 아프카니스탄 事態를 考察하기로 하자.

첫째, 蘇聯의 아프카니스탄侵攻은 「알타」體制에 대한 위협이 되지 않는가 하는 문제이다. 아프카니스탄地域은 실제로 「알타」체제에서 볼 때에 적어도 蘇聯의 勢力圈으로 구분된 곳은 아니었다. 따라서 蘇聯의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진출은 일단 「알타」체제에 대한 侵犯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아프카니스탄에 대한 地域的인 붕괴는 다른 곳에도 언제나 侵犯할 수 있다는 전제가 되기 때문에 역시 「알타」체제에 대한 붕괴로 연결될 수 있다는 點이다. 오늘날의 美國이 아프카니스탄事態에 대하여 極端的인 신경질적인 경계를 하는 것도 바로 이 점에 있는 것이다. 아프카니스탄을 그대로 러시아권에 넣어 두게 될 때에는 앞으로 中部유럽에서의 蘇聯의 進出이나 極東에서의 蘇聯의 進出 등 많은 예기하지 못할 蘇聯의 進出을 사전에 허용하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이는 알타體制라고 하는 第二次 世界大戰 이후의 終戰處理와 協約이 붕괴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蘇聯의 아프카니스탄侵攻이 알타體制에 대한 붕괴를 의미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가 된다. 이는 중요한 것이 아프카니스탄 侵攻을 그 形態로 볼 때에 완전한 「소비에트」化 過程임으로 보아서 역시 노골적인 侵略이라고 볼 수 밖에 없으므로 결국 고의적인 알타體制의 전반적인

침범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문제는 앞으로 이를 蘇聯의 의지에 맡겨둘 때에 올 문제점은 全世界的인 領域에서의 勢力圈의 재편성이 언제나 基準없이 進行될 수밖에 없으리라는 點이 지적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는 戰後를 벗어나 戰前 狀況으로 들어간다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 문제점은 中共에 대한 문제이다. 蘇聯은 長期間에 걸쳐서 특히 美·中共和解를 통한 中共의 變化에 대처하여 온 것이다. 中共은 파키스탄을 통하여 유일하게 印度洋으로의 進出을 꾀하여 온 것이다. 中共에게 敵對인 印度나 이 地域에 대한 蘇聯의 결정적인 進出은 결국 中共에 대한 蘇聯의 對處의 일관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이다. 蘇聯은 印支半島를 통하여 中共의 印度洋 出口나 페르시아灣에 대한 中共의 接近을 일단 저지하여 왔다. 中越戰爭이라는 蘇聯의 軍事線延長이 그것이었다. 오늘날 蘇聯이 中共에 대한 對處를 직접적인 戰爭政策을 통하여서 불가능하다면 이러한 간접적인 方法으로 밖에는 불가능한 것이다. 蘇聯은 中共에 대한 對處가 아프카니스탄 侵攻과 무관할 수 없는 것이다. 그 또 하나가 앞으로 있을 수 있는 蘇聯의 軍事線을 北韓으로 연장하여 만주를 포위하는 일인 것이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위험을 부담해야 함은 말할 필요

없는 것이다.

세째 문제점은 이란문제, 즉 石油地帶에 대한 接近이라는 관점이다. 사실상 1907년 英國과 러시아가 協商을 시도하였을 때에도 이 地域은 中國問題, 中央아시아문제, 페르시아문제 三者를 합하여 해결하였던 것이었다. 지금에 와서도 복합적으로 「이란문제」라는 石油資源에 대한 接近政策이 작용하고 있음은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특히 이란 問題는 美國의 領域을 벗어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이러한 混亂을 틈타 蘇聯은 간접적인 方法으로 이란을 위협한 것이다. 사실상 石油은 西歐資本主義의 基礎인 것이다. 이 地域에 대한 威脅은 단순한 蘇聯의 이데올로기나 西歐의 自由主義理論만을 갖고서 해결하기에는 너무나 死活이 관련되고 있는 地域이기도 한 것이다. 蘇聯의 아프카니스탄 侵攻은 어떤 意味에서도 이란問題의 接近과 깊은 관련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네째 문제는 印度洋과의 관련문제인 것이다. 中央아시아의 地政學的인 接近은 물론 印度洋과의 관련을 우선 생각할 수 있는 것이다. 印度洋은 제2차 世界大戰以後도 英國함대에 의해서 그의 勢力圈으로 되어 왔다. 그러나 이미 1960년을 境界로 하여 영국함대는 이 地域에서 철수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 地域은 美

國의 太平洋經路의 延長으로 軍事的으로 파악되어온 것이다. 그러나 특히 닉슨독트린 이후부터는 太平洋과 페르시아만의 연결은 중요한 性格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美國의 軍事戰略도 極東으로부터 페르시아灣으로 移動하고 있었다고 하여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따라서 印度洋은 앞으로 여러가지 意味에서 重要하다고 할 수 있다. 蘇聯의 中央아시아 進出은 印度洋에 대한 接近이라는 작도에서 중요한 進出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주로 蘇聯의 戰略的 價値에 대한 掌握이라는 觀點에서 중요한 接近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앞으로 蘇聯의 印度洋에 대한 직접적인 進出은 自由世界에 대한 차단으로 발전할 可能性을 戰略的으로 그 意味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다.

다섯째로는 蘇聯內의 少數民族問題와 관련한다. 蘇聯이 理論上으로 와해가능성이 있다면 少數民族問題라고 할 수 있다. 中央아시아에는 상금도 回教의 生活樣式과 思考를 갖는 엄청난 少數民族이 蘇聯領內에서 生活하고 있는 것이다. 이란 事態를 기점으로 回教民族의 民族主義的 傾向이 크게 蘇聯領內의 回教民族에게도 影響하고 있었다. 蘇聯이 가장 두려워하는 少數民族問題가 제기되어 온 것이다. 오늘날 中央아시아의 韓國民族界의 少數民族도 安保上 理由로 우라디보스톡으로부터 中央아시아로 強制移住시켰던 것이다. 少數民族의 國境너머의 연결은 蘇聯社會의 침투와 와해를 의미하

므로 이에 대한 對處의 일환으로 先制政策을 가한 것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다. 中央아시아의 상당한 地域 특히 아프카니스탄과 접경을 하는 광대한 地域은 回教地域인 것이다. 이 地域에 대한 回教少數民族問題가 이란事態를 전후하여 동요받고 있었고 動搖可能性이 큰 地域이었던 것이다. 이 地域에 대한 보호를 위해서는 蘇聯은 그 외곽지대에 대한 완충화를 시도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三. 結 論

러시아의 歷史的 傳統과 러시아의 고전적인 膨脹政策을 이어받은 소비에트는 소비에트政權樹立 이래 엄청난 膨脹政策을 展開하여 왔다. 다만 오늘날 아프카니스탄 侵攻이나 中東에 대한 進出에서 보듯이 소비에트 주변의 확보나 保護가 아니라 「世界政策」이라는 작도에서 世界的인 戰略과 특히 西方에 대한 직접적인 침해로 나타나고 있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을 「西方」이 인식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미 그의 膨脹政策에서 「이데올로기」적인 성격은 벗은지 오래인 것이다. 東歐圈에 대한 「勢力圈」確保政策도 사실상 「고전적」인 성격을 띠고 있으며 실체상 「帝國主義」政策的 성격을 크게 띠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소비에트의 世界膨脹政策에 직면하면서 새로운 대처를 하고 있는 것이 오늘의 레이건政府의 態度에서 상징적으로 나타나고있는 것이다.

北韓「主体哲學」의 官學의 性格

(1)

— 소련 「哲學教程」과의 比較 분석 —

申 一 澈

△ 高麗大 教授 ▽

— 目 次 —

(上)

1. 머리말
2. 북한 官用哲學의 성립과정
3. 「主體哲學」과 소련 「哲學教程」과의
관계
4. 소련의 철학논쟁이 북한에 미친 영
향
 - (1) 철학논쟁의 발단
— 스탈린의 언어학 논문 —
 - (2) 사회주의하의 모순논법
 - (3) 공산권 철학논쟁의 평가
5. 북한 「철학사전」의 「주체사상」적
성격

(下)

6. 「주체철학」의 기본적 성격
 - (1) 金日成 一人哲學의 構成
 - (2) 「哲學講座」의 기본구조
 - (3) 의식의 能動性 문제
 - (4) 「사람」결정론의 문제
7. 小結

1. 머리말

해방 이후 소련군의 進駐와 동시에 형
성된 북한의 哲學이테올로기는 소련의
國定哲學인 스탈린主義的인 「哲學教程」
「辨證法的 唯物論」의 도입에 의한 것이
었다. 북한의 共産黨 지배는 강력한 思

想統制政策에 기초해 있었고, 그 통제는 소련의 스탈린主義의 哲學敎條의 강요를 위한 것이었다. 따라서 북한에는 자유로운 철학연구도 허용된 바 없고 마르크스·레닌주의에 대해서도 黨과 金日成 외에는 그 해석권을 가질 수 없었다.

북한에는 다만 黨敎條가 있을 따름이고 김일성 1인에 의해 마르크스·레닌주의 해석의 독점이 있을 뿐이었다. 그러므로 북한철학 30여년의 전개과정은 자유로운 철학적 사색의 발전과정이 아니고 다만 思想統制의 1人獨裁로 경직화된 30년이었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 해석에 대한 김일성 1人獨占의 시기였다.

8·15직후 소련군의 進駐下에 북한에는 日帝下 고등교육을 받은 인텔리들의 사회과학적 지식과 특히 일본 유학층 좌익 사상을 습득하고 돌아온 지식분자들 중 사회주의나 共產主義 哲學에 대해 간혹 기초적 지식을 가진 소수가 있었으나 이들의 지식은 소련군과 더불어 수입된 소련공산주의 敎條와 스탈린 철학 앞에 서 무산되고 말았다.

1946년 2월「북조선임시인민위원회」라는 과도적인 중앙권력기구가 설치되면서 중·고등학교에서는「사회과학」또는「다원주의의 기본」이 사상교육의 교본이 낮은 수준의 마르크스主義思想을 학생들에게 주입했다. 그러나, 6·25동란까지의 북한 철학이데올로기는 소련의 「불새비키黨史」와 고급黨學校과정이나 大學에서

알렉산드로프의「변증법적 唯物論」, 콘스탄티노프의「史的唯物論」의 변안이 사상교육의 교본문을 하여 통치이데올로기의 전적인 소련依存에 머물러 있었다.

그러나, 북한의 철학이데올로기가 소련의 修正主義的 철학을 경계하면서 독자적인 철학교본의 개발에 착수한 것은 1966년 소위「自主宣言」이후로 볼 수 있고, 1970년대초에 와서 비로소 김일성일인독재의 철학적 합리화를 위한 북한형 마르크스·레닌주의 敎程으로 소위「主體哲學」을 조작한 것이다.

本論稿는 북한의 김일성 1인철학인「主體哲學」의 성격과 구조를 분석하여 그 철학의 정치적 通俗化의 내용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며, 그 방법은 주로 1958년 이후 소련의「哲學敎程」, 특히 1962년 판「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초」(1962)와의 비교연구를 통해 그「主體哲學」이 얼마나 소련의 철학교정을 借用·變造했는가를 구명해 보려 했다. 여기서, 주된 분석 對象으로 삼은 자료는 소위「김일성주체철학」의 방송대학강의록「철학강좌」이다. 북한의 철학이데올로기 연구에서는 그 자료적 제한 뿐만 아니라 북한 당국 자체가 철학의 저술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해 온 탓으로 김일성 1인 철학의 해설적교정 이외에는 없다는 난점에 부딪힌다. 본 연구는 소위「김일성주체철학」의 기본성격만을 구명하기로 했다.

2. 북한官用哲學의 성립과정

8·15해방 이후 북한에서는 다른 學界와 마찬가지로, 哲學界도 오랫동안 성립할 수 없었다. 1947년 10월, 소위「金日成綜合大學」이 설립되고 철학을 비롯한 人文·社會科學은 이 대학에서만 교수하고 다른 곳에서는 이데올로기적인 학문을 다룰 수 없었다. 「金日成大學」의 제1학부인 歷史學部에는 朝鮮史學科·世界史學科·哲學科의 세 과가 설치되었는데 이 중 哲學科는 黨이데올로기敎養과 黨政治幹部養成을 목적으로 하는 特殊學科로 운영되었다. 그리고 이 철학과 內에는 자유롭게 철학을 강의할 수 있는 교수가 한명도 없었고, 一例로 越北한 京城帝大出身 哲學教授 申某가 당면한 黨이데올로기와는 별로 무관한 「哲學史」를 강의할 정도였다. 6·25동란이전 북한에서의 마르크스·레닌주의 講義는 소련 모스크바大學에서 파견된 조브로프 1인에 局限되었고, 同大學 부총장인 소련출신 2세의 韓人인 소련 「哲學敎程」을 번안해서 강의했는데 그는 소련 市民權을 가진 한국인 2세인 工科大出身이었다.

따라서 黨 統制下 官學의 哲學界나마 형성된 것은 1964년 2월 「社會科學院」산하에 철학연구소를 두면서부터이다. 이 「社會科學院」은 1952년 10월 설치되었던

「科學院」산하의 사회과학연구위원회가 분리·독립된 것이며 특히 共產黨의 정책을 合理化하고 住民洗腦를 위한 思想敎養의 注入을 목적으로 한 官制아카데미에 불과했다. 그러나 1960년대에 들어서서 哲學界가 黨의 강력한 통제하에 성립되고 사회과학, 특히 철학의 소위「創造的 發展」을 도모한다는 연구使役이 시작된 것이다. 「社會科學院」산하에는 歷史, 哲學, 經濟學, 法學, 言語, 文學, 考古學 및 民俗學, 古典研究所라는 8개 研究所가 있는데, 연구원 序位는 唯物史觀의 價値尺度에 따라서 歷史이데올로기를 다루는 歷史研究所가 제1위이고, 哲學이 제2위이다. 科學院 體制下에 哲學研究所 초대 所長은 鄭鎭石이었음이 분명하다. 이 때 鄭鎭石이 주동이 되어 「조선철학사」(상권)를 저술했다. 이 哲學史의 集團的 著述은 國家課題로 생산된 것이 분명하다. 대개 연구소는 이미 黨에서 계획된 연구계획에 의해 연구업적이 계획 생산되는데, 그 때 연구과제는 크게 구분하여 ① 國家課題, ② 契約課題 또는 省課題 ③ 自體課題의 세 가지가 있다. 이 철학사는 직접 김일성의 지시에 의해 저술에 착수했고 그 정책적 목적은 1955년 이래 북한 이데올로기의 內面的 변화를 시사해 준다. 1956년 이후 非스탈린化로 인해 北韓 哲學界는 중·소이념분쟁과 현대판 수정주의 논쟁의 소용돌이 속에서 이데올로기의 據點을 상실했고

이 사상적 혼란 속에서 마르크스·레닌主義를 복한 현실에 소위「創造的 適用」한다는 명분에서 궁여지책을 개척했고 그것에 소련이나 중공의 思想路線을 들고 따왔고 경제적 失政을 만회하기 위해서「自力更生」의 구호를 내걸고 동시에, 思想面에서는 自主性·主體性을 저들기 시작했다. 「주체사상의 철학면에서의 대표적인 작업이「조선철학사」였다. 이와같은 非스탈린화에 대한 북한의 사상정책적 대응은 결국「小스탈린주의」 노선이었다고 할 수 있다.

러시아 민족주의 내지는 汎슬라브主義적인 소비니즘 경향도 어김없는 스탈린주의의 한 속성이었기 때문이다. 이미 스탈린主義는 마르크스主義의 國際主義와 아울러 소련市民의 民族的 自負心을 이용할 수 있는「社會主義的 愛國主義」의 원칙을 제시해 놓은 바 있다. 이에 따라 金日成도 애국주의의 원칙을 援用하여 그것이 프롤레타리아 國際主義와 모순되지 않는다고 지적한 바 있다.

북한의「主體」사상은 소련의 사회주의적 愛國主義의 이론적 바탕에서 출발하면서 국내의 政敵인 親蘇派·親中共派와의 권력투쟁에서 이들 政敵을 修正主義·教條主義, 또는 民族虛無主義, 宗派分子로 낙인찍고 金日成 자신의 개인우상화와 병행해서「主體」의 구호를 마련했던 것이다. 思想面에서도 북한의 소비에트化 과정은 먼저 소련 模倣을 거쳐 얼

마 후에 그 모방이 당의 이익이나 현실과 맞지않게 되었을 때 自己應化(Self-Accommodation)의 과정을 걷게 된다. 이 과정을 概觀하면 다음과 같다.

① 소련 일변도의 모방기(1945~1957)

이 시기에는 전적으로 소련을 모방하는데 분방한 나머지 哲學面에서도 스탈린 哲學, 즉 볼셰비키黨史 제4장「변증법적 唯物論과 史的唯物論」의 直輸入에 그쳤다. 이 시기 북한의 모든 黨員은「볼셰비키黨史」를 바이블처럼 암기하고 특히 제4장을 金科玉條로 신봉했다.

② 毛澤東思想의 부분적 混入期(1957~59): 1950년 이래 中共軍進駐의 영향으로 黨이데올로기에 소극적이거나 反蘇경향과 더불어, 中共의 토착동사상이 부분적으로 혼입된다. 특히 思想面에서 중·소간에 현대판 수정주의논쟁이 야기되었을 때는 중공편에 기울어진다.

③ 1960년 이래의 小스탈린주의적 金日成이데올로기 준비기

이미 1955년말 북한에서는「主體」를 강조하기 시작했고 그 결과로 1960년 4월에는 科學院 哲學研究所의 과제연구로「조선철학사」(상)가 생산되었다. 그러나 여기서의 主體는 아직 김일성 1인중배를 사상면에서 구체화한 김일성개인의 생애와 言說에 기초한 소위「革命傳統」옹호의 저술이 되지 못하고 史料를 유물사관적 방법으로 처리하면서도 朴殷植·申采浩 등의 애국계몽적 민족사관의 영향이

철학사의 바탕을 이론 감을 준다.

④ 1966년 8월 12일 「自主」선언 이후 주체 철학의 조작·체제화

일단 自主路線을 内外에 천명한 김일성은 그 노선을 철학적으로 합리화하기 위한 연구과제를 각 연구기관에 지시 하달했으며 철학연구소는 약 4년간에 걸쳐 「철학사전」을 편찬, 1970년에 완성했다.

⑤ 1973년 김일성 放送大學講義錄으로 「철학강좌」 발표

이 강의록에서 처음으로 「主體哲學」을 公式의으로 내세운다. 1966年 自主宣言의 思想路線인 「思想에 있어서의 主體」란 슬로건을 북한중심의 새 哲學教程의 생산 체제화 과정에 구현시켰다. 이 「主體哲學」의 체제화는 주로 소련의 철학교정 중 1960년의 修正된 Kuusinen編,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초」를 臺本으로 해서 이 체제에 김일성語錄을 加味해서 만든 것이다. 이 「主體哲學」이 제시된 시기는 그 강좌의 끝에 「1973. 4학년도 김일성의 주체철학강의를 전부 마친다」라고 한데서 1973년으로 추정된다.

⑥ 1970년대의 「조선철학사상과 연구」 등의 발간

70년대에 들어서면 「철학강좌」 이외에는 일체 哲學이데올로기의 발표는 없고 소위 「조선철학」이라 해서 우리나라 哲學思想에 관한 것만이 발표된다.

이상 概觀에서 추구해온 바와 같이 소위 「金日成 主體哲學」은 1973년 방송된

「김일성 방송대학 강의록 철학강좌」에서 준비되고 편찬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면 북한에서는 무엇 때문에 이와같은 金日成 一人偶像化的 철학적 합리화인 「主體哲學」을 내놓게 되었는가?

3. 「主體哲學」과 소련 「哲學教程」과의 關係

원래 공산권 내에서는 戰前에도 그랬거니와 戰後에도 哲學이데올로기는 각국의 黨이 독자적으로 개발하지 않고 소련의 분배비기黨史 제4장의 스탈린 哲學이나 소련의 「哲學教程」을 번역해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이 常例였다. 그러나 1956年 이후 非스탈린化的 結果로 不變의 經典化되었던 哲學教程도 불가피하게 修正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점에 관해서는 소련에서 1956년 6월 6일 소련 全高等教育機關에 DIAMAT (변증유물론)의 教程(공식적 교과서)을 실시하는데 관한 黨中央委員會의 決議에 주목해야 하며 이 결의로 1936년 이후 소련 뿐만 아니라 전 공산권에서 철학교정으로 고정화되었던 官制哲學인 스탈린의 「변증법적 유물론과 사적 유물론」이 폐지된 것이다. 이 조치는 일단 소련에서 DIAMAT에 얽매었던 철학연구의 습통이 트이게 되고 소련당국에서는 즉시 非스탈린化된 철학교정의 편찬에 착수하지

알을 수 없었다.

非스탈린化 2년 후인 1958년에 새로운 소련의 공식적 교과서로 편찬된 것이 큰 스탈티노프編 「마르크스주의 철학의 기초」이다. 이 교정은 蘇연망과 학원 철학 연구소의 집단적 저작으로 나온 것이며 750만부를 발간했다.

그러나, 이 1958년판 「철학교정」은 형식이나 내용에 있어서 스탈린 個人著作의 敎條化를 탈피하긴 했으나 아직 스탈린 철학의 DIAMAT적 경향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했다. 철학적 사색이나 그 논리전개면에서 스탈린주의 철학의 교조를 탈피하는 데는 수차의 論爭과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이다.

다시 1960년에 신판 소련 「철학교정」인 Kuusinen編 「마르크스·레닌주의의 기초」가 나왔다. 이 신판은 호루시초프의 非스탈린化를 여러 측면에서 구현했다고 평가된다. 이 신판은 1960년의 제1판보다 1952년의 제2판(수정판)에서 크게 개편되었고, 1971년에는 정치주의가 대폭 배제된 새 교과서가 되었다. 이 신판 「철학교정」이 호루시초프의 입장을 반영하는 것은 이 교과서에 명시된 反스탈린적인 서술부분에서 엿볼 수 있다.

특히 Kuusinen編 신판 「철학교정」의 제2판(수정판)은 스탈린 個人偶像化에 반대한 점에서 1960년대로 접어들면서 더욱 金日成偶像化를 격화시켜 가던 북한 의 강제 이데올로기 형성에 한층 더 逆行

하고 따라서 북한으로서는 도저히 그대로 수용할 수 없는 修正主義의 敎程이었다. 이 제2판(수정판)은 個人崇拜에 대해서 스탈린을 해임해야 한다고 12차 당 대회에 보내진 유명한 레닌의 遺書(1922년말 1923년초)까지 인용, 스탈린을 규탄했다. 이 유서는 지도자로서의 스탈린의 부정적 성질을 지적하여 「동료에 대해 난폭하고 불성실하고 權力濫用의 경향이 있다.」라고 표현하면서 당 서기장의 자리에서 해임하도록 호소했다. 이 문제에 대해 제2판(수정판)은 제6장 「역사에 있어서 人民大衆과 個性의 박탈」에서 「개인숭배는 마르크스·레닌주의와 모순된다」는 항목을 설정하고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레닌은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同志 스탈린은 黨書記長이 된 후부터 방대한 권력을 손아귀에 집중시켰는데 그가 항상 신중히 이 권력을 행사할는지 나에게 의문이다.> 레닌은 스탈린에 대해 그 특유한 狹量, 不誠實, 同志에 대한 무관심, 안하무인적 성격 등을 지적하면서 <스탈린은 심히 난폭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와같은 스탈린主義批判은 실질적으로 스탈린주의를 강화시켜가던 김일성 체제에 대한 일대 도전이었고 스탈린의 否定的性格 묘사는 그대로 김일성에게도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러한 소련 「敎程」을 철학에 있어서의 수정주

의적 경향으로 배척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소련의 「철학교정」 제3판(1971)은 다시 수정주의 경향을 더욱 강화하여 1962년의 제2판마저도 아직 스탈린시대의 인습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1962년판은 스탈린주의에 대한 철학적 비판에까지 이르지 못하고 다만 정치적 비판에 머물렀다는 것이다. 그러면서도 1971년의 제3판은 제2판의 혹독한 스탈린 비판의 노골적인 표현을 약간 완곡하게 완화시켰다.

제3판은 政治主義를 배제하고 철학 자체의 학문성에 철저하려고 했다. 이밖에도 제3판은 우선 「否定的 法則」을 법칙으로 내세우지 않게 되고 經濟的·歷史的인 必然의 法則도 약간 약화시켜 決定論的 색채를 수정하면서 人間의 주체적 실천을 강조했다. 또한 제3판은 階級鬭爭에 있어서의 공산당의 역할, 폭력혁명, 프롤레타리아 독재, 판공주의 문제 등 국제공산주의 운동에서 이데올로기 분쟁을 일으킨 이슈에 대해서 조심스럽게言及하기를 회피했다.

이상과 같은 소련 「철학교정」의 脫스탈린化 修正化過程은 전후 공산권의 정치, 경제적 변동도 그 요인의 일부이지만 주된 요인은 흐루시초프 집권 후 철학계의 解氷의 결과라고 보아야 한다. 소련에서의 철학에 관한 중요사건의 연대는 다음과 같다.

1947년 1월 : 알렉산드로프著 「哲學史」에 관한 철학연구소에서의 토론.

1947년 6월 16일~25일 : 위의 비판을 위한 회의, 이 회의에서 류타노프의 알렉산드로프 「哲學史」 비판연설.

1947년 9월 : 소련과학원 철학연구소, 「哲學의 諸問題」(Voprosy Filosofii) 창간호 발간.

1948년 3월 23일 : 高等教育相 카프다로프, 非政治的 형식논리학을 비난.

1948년 7월 : 고등교육성의 논리학 강령 발표.

1948년 7월 31일~8월 7일 : 루이생코 논쟁.

1950년 5월 : 「프라우다」紙 게재의 言語學에 관한 치바코바의 論說.

1950년 6월 20일 : 마르크스주의와 言語學에 관한 「프라우다」지의 스탈린 논문.

1953년 1월 18일 : 스탈린 死亡.

1955년 3월 : 相對性理論의 哲學的 問題에 관한 討論에서의 決定.

1956년 2월 14일~22일 : 제20차 당대회에서의 非스탈린化.

1956년 6월 : 全高等教育機關에 對해 辯證法的 史的唯物論의 教程을 실시하는데 관한 ZK의 決議.

1958년 10월 21일~25일 : 近代自然科學의 哲學的 諸問題에 대한 全소비에트 회의.

1958년 말 : 「마르크스主義哲學의 기초」

의 간행.

자료의 제한으로 위와같이 1947~58년
간에 국한시켜 소련哲學界의 중요한 사
건을 열거해 보았거니와, 이 年表에서
보듯이, 1950년 스탈린의 言語學論文을
기점으로 해서 스탈린主義的哲學의 1인
獨占이 해체되면서 어느 정도의 태반을
맞아졌다.

이런 소련 철학교정의 수정과정은 수많
은 철학논쟁을 거치면서 진행되었고 그
중 대표적 철학논쟁은 다음과 같다.

① 辨證法的 論理와 形式論理學에 관
한 논쟁

② 言語學 論爭

③ 土臺와 上部構造에 관한 논쟁

④ 自然科學의 哲學的 問題에 관한 논
쟁

⑤ 社會主義下의 모순논쟁

이런 소련 또는 공산권의 哲學論爭은
불가피하게 철학교정을 대폭 수정케 했
고 소련 이외의 공산제국의 공산당에 대
해서도 哲學이데올로기의 修正을 강요하
는 결과가 되었으며 그런 영향에서 북한
만이 예외일 수는 없었다.

「北韓總鑑」의 「哲學界」 항목에 의하면
북한의 官學的 哲學風土에서도 소련의
철학론의 영향이 파급되어, 주로 「土臺
와 上部構造」에 관한 논쟁을 비롯한 여
러 논쟁이 있었는데 그 밖의 대부분의
철학적 논쟁점 등은 公開의 討論에 붙이
지 않고 官制의 自己應化로 소화했다. 그

소화과정에서 북한이 택한 기본노선은
1966년의 「自主路線」이었고 또 한편으로
는 「조선철학사」 등 우리나라 전통사상
의 唯物史觀의 再肯定作業이었다.

6·25 이전 북한철학계의 중심적 論議
거리인 「朝鮮革命的 性格」에 관한 정치
적인 문제였고, 마르크스主義의 혁명이
론을 우리나라의 현실에 적용하는데에서
나타나는 논쟁이었다. 그러나 휴전 후 土
臺와 상부구조에 관한 논쟁이 북한 철학
계를 지배했다. 이 논쟁은 唯物史觀의
공식인 물질의 先次性에 관한 유물론의
원칙을 사회경제면에 적용하면 토대가
일방적으로 상부구조를 결정한다는 토대
결정론이 되는 유물사관의 공식문제에서
야기되었다. 戰後 북한이 공산화과정
에서 분단 후 경제적 토대면에서는 資本主
義의인 요소가 제거되었다고 한다면 그
「反映」으로서 상부구조인 이데올로기도
따라서 社會主義 내지는 共產主義의으로
개조된다는 결론이 나온다. 그러나 북한
에서는 오히려 계급의식, 사상교양 등 정
치적인 의식동원을 통해서 거꾸로 경제
적 토대를 바꾸려는 의식결정론적인 일종의
精神主義를 취해야 하는 이론적 딜레
마에 직면하게 된다. 토대와 상부구조에
대한 문제는 對內的 要因보다 오히려 對
外的 影響에 의한 것이며, 특히 1962년
소련 「철학교정」이 상부구조가 토대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수정을 가한 논
쟁결과가 파급되어 야기된 철학적 논쟁

이었다. 이 밖에도 북한 학계에서는 평화 공존에 관한 문제, 봉건사회로부터 공산사회로의 비약적 이행의 가능성 문제, 그리고 우리나라에서의 유물론철학의 발생과 발전에 관한 문제 등이 논의되었다 한다.

요컨대 1970년대 김일성의 소위 「主體哲學」의 조작적 체계화 작업은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의 受容過程에서 소련의 「철학교정」의 수차에 걸친 수정으로 인한 불가피한 自己防禦行爲였고, 소련 수정주의 철학의 유입이 북한의 김일성 1인 전제체제를 크게 위협했기 때문에 대응 조치이기도 했던 것이었다.

북한에서 1960년 이후 활발해진 傳統의 民族思想의 유물사관적 재평가작업도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의 修正主義化의 위협으로부터 金日成獨裁體制를 유지하려는 일종의 自閉的 이데올로기의 방공호요, 철학적 자기도피행위이기도 했다. 그러나 국제성을 띤 공산주의 이데올로기를 支配名分으로 내세우지 않을 수 없는 북한공산사회의 성격상, 아무리 「主體」를 강조한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통사상의 再肯定만으로는 그 사회의 통치 이데올로기를 代用하기는 곤란했기 때문에 따로 북한형 철학교정의 公式化가 필요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 「교정」은 소련의 철학교정 등에서 그 이론과 논리를 대폭 借用했던 것이다.

4. 소련의 철학논쟁 이 북한에 미친 영향

다음 「주체철학」형성의 배경으로서 1950년 이래 소련의 철학논쟁이 어떻게 등장되고 그 대표적 논쟁이 무엇이었는가를 개관하고자 한다.

1956년 흐루시초프의 非스탈린化를 계기로 해서 소련철학을 지배하던 스탈린에 의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유일한 해석권은 오직 스탈린 1인이 가진다는 〈철학의 1인독점〉이 해체된 것을 의미한다. 사실 스탈린 시대의 소련철학은 스탈린 자신이 집필한 것으로 되어 있는 「소련 共產黨略史」 제4장 「DIAMAT」와 「HIMAT」(사적유물론)로 공식화된 이때 絕對無謬의 「共產經典」으로 硬化되고 말았다. 스탈린은 黨僚支配를 위한 「철학의 당파성」 원칙과 일인독재의 강제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강제력의 정물화를 조작하기 위해 官製 이데올로기로서 「고정 철학」의 敎條化와 아울러 「철학의 독점」을 감행했던 것이다.

그러나 전후 소련철학은 여러 논쟁을 거쳐 자기 수정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本題와 관련된 대표적 철학논쟁을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① 1950년 「言語學論爭」

② 1950~52년 「論理學論爭」

③ 1950년대 「土臺와 上部構造論爭」

④ 1955~58년 社會主義下の 矛盾論爭

⑤ 1957년 이래의 「사회주의적 휴머니즘 논쟁」

이상과 같은 철학논쟁 중에서 가장 치열하고 공산권 전체의 가담으로 확대된 戰後 최대의 철학논쟁이 1955~58년의 「社會主義下の 矛盾論爭」이다.

이 논쟁은 한낱 소련철학계 内の 논쟁이 아니라 마침내 모택동이 흐루시초프의 平和共存路線을 골자로 하는 모스크바 선언에 관한 비판에서 흐루시초프를 「현대 관수정주의자」로 낙인찍는 데까지 치열하게 전개된 평화공존논쟁이기도 하다.

1963년 10월 중공당 중앙선전부 부부장 周揚이 중국 과학원 철학사회과학부 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철학·사회과학 공작자의 전투적 임무」라는 제목의 연설을 통해 소련의 「현대 수정주의」와 투쟁할 것을 역설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는 소련 철학자들의 「無葛藤論」(비적대적 모순에 관한 철학설)을 공격하면서 소련 철학자들의 「조화」, 「통일」, 「단결」의 변증법을 비난하기에 이른 것이다. 결국 모순논쟁은 중·소이념논쟁의 철학적 심부에 해당하고 이로써 근본적인 이데올로기 분열을 노정한 셈이다.

(1) 철학논쟁의 발단

— 스탈린의 言語學論文 —

전후 소련철학에 있어서 非스탈린化의

실마리를 마련해 줄 것은, 1950년(6월 20일) 「푸라우다」紙에 발표된 스탈린의 논문 「언어학에 있어서의 마르크시즘에 관하여」(Concerning Marxism in Linguistics)였다. 1950년(5월 9일자) 「푸라우다」에 한 무명의 대학교수(트비리시 대학 A·치바코바교수)가 「소련 言語學의 몇 가지 문제」란 논문으로 기왕의 지배적 언어학설이던 Nicolai Marr의 「언어·계급·상부구조설」을 반박한데서 언어학 논쟁이 야기되었고, 이 논쟁의 종결토론 형식으로 스탈린은 오히려 Marr 학설을 뒤엎고 「언어는 상부구조가 아니다」라는 아주 충격적인 수정을 폈던 것이다. 스탈린은 이 논문에서 언어는 상부구조와 다르고 언어의 계급성도 인정할 수 없다고 하여 「全人民的 民族語」의 존재를 용인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언어학 논문은 단지 언어문제에 그치지 않고 마르크스 후의 철학전반에 걸친 다각적 파급효과를 나타냈다. 우선 이 논문은 스탈린 자신의 「마르크스주의와 민족문제」 이래의 「민족」개념에 대해 크게 自己修正을 가했고 「학문의 당파성」 공식에 묶였던 형식논리학이 변증법 교조에서 해방되고 동시에 수학, 수학논리학, 심지어 「사이버네틱스(Cybernetics)」까지도 DIAMAT의 적용에서 벗어나 그 성격이 재규정되었다. 이처럼 「土臺와 上部構造」의 二分法의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는 언어수학과 같은 분야

를 용인하게 된 것은 전체학으로서의唯物史觀의 공식이 대폭 수정된 결과를 초래했고 결국「矛盾」개념도 애매하게 사용되게 된 것이다. 「모순」개념의 규정은 형식논리와 변증법적 논리 간의 관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서 크게 좌우된다.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 모순관계($-(P - P)$) ($P = -(\bar{P})$)란排中律($P \vee -P$)이 성립될 수 있는 형식논리의 영역에만 성립된다. 레닌이 예를 든 바와 같은 (+)전기와 (-)전기, 작용과 반작용 등을 이른바 변증법적인 대립으로 간주할 때 이러한 대립은 모순관계(형식논리상)가 아니라 고작해서 반대관계에 불과하다. 마르크스나 레닌 당시에는 아직 論理學의 이론이 미숙하여 모순과 반대를 혼동하는 것이 일쑤였다.

또한 Popper가 지적한 바와 같이(What is Dialectic?) 아무리 변증법적 논리라 하더라도, 형식논리상의 모순은 위배할 수 없다는 비판은 옳다.

그러나 마르크스주의자들은 同一律(A is A)에 기초한 형식논리학이 靜的인 논리로서 운동·발전을 파악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革命的 실천을 부정하는 성격을 가졌다고 해서 지배계급에 봉사하는 논리라는 딱지를 붙여 배척해 온 것이다.

그러나 1951년 11월의 예나會議과 동독 Einheit誌의「형식논리학 토론」은 형식논리학도 언어나 문법, 기하학과 한 가지로 非계급적이고 非이데올로기적이

라는 결론에 도달. 그 후부터 소련을 비롯한 공산제국에서 형식논리학을 가르치기 시작했다.

소련 철학자 중 변증법적인 학자들도「DIAMAT」의「보다 깊은 이해」라는 방패 뒤에서 형식논리학을 保存해 왔다.

(一例로 스트로고비치는〈동지 스탈린의 교시에 따라, 이 과학(=형식논리학)이 다시 권리를 회복하게 되었다〉고)

소련이나 동독 논리학자들은「스탈린 동지가 계급적으로 제약되는 언어나 문법이 존재하지 않음을 명백히 증명」했다는 同언어학 논문을 방패삼아「유일한 논리학은 형식논리학 뿐이다」라는 공인된 논리학 교수요목이 나오게 되었고「형식 논리학은 무계급사회에서 성립되어 오늘날까지 존재하고 있다」라고 해서 이제 그것은 그것이 변증법의 방법론과 결합되었다고 일종의 타협안을 내놓은 것이다.

또 한 견해는 M. Alexeyev와 V. Cherkesov의 논문「논리학과 그 연구에 관한 문제에 부쳐서」에서 형식논리학과 변증법의 관계는 초등수학과 고등수학의 관계와 같다는 엥겔스로부터의 引用으로 형식논리학을 復權케 했다. 이제 형식논리학의 변증법예의 예측을 강요하던「논리학의 당파성」체제는 종말을 고한 셈이다. 이 논쟁을 통해서 소련 철학자들은 변증법의 핵심인 모순개념이 형식논리상의 그것과 크게 혼동된 점을 깨닫기 시작했고 형식논리와 수학상의 矛盾律이

「인간으로 하여금 논리일관된 모순없는 사고 능력」을 가능케 하는 점을 용인하게 될 것이다.

모순논쟁의 씨앗을 뿌린 것으로는 언어학문제나 형식논리학논쟁 이외에도 「토대와 상부구조」 논쟁을 들지 않을 수 없다. 문제는 상부구조는 토대의 반영(Reflex)이라는 反映論이 인식론상의 소박한 모사설이라는데 있다.

(2) 사회주의하의 모순논쟁

1958년에 일단 마무리지은 철학논쟁인 「社會主義下の 矛盾」論爭은 언어학논쟁이나 형식논리학 토론에 비해 결코 규모가 작지 않은 논쟁이었다. 이 논쟁에 참가한 논문만도 30여편에 이르고, 소련·중공·東歐제국의 학자들이 참가한 점에서도 열띤 논쟁이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 논쟁은 변증법의 핵심인 모순관계에 관한 것이었고 中·蘇이념 분쟁의 쏠점이 된 平和共存論과 戰爭不可避論의 원리적 대립을 노골화한 면에서도 전후 최대의 철학논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실상, 이 모순논쟁의 실마리는 前後 사회주의 정권하에서 그 발전의 원동력으로 모순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으나 계급사회에서와 같은 적대적 모순 이외에 非敵對的 모순을 계속 인정하여야 했던 사정에서 毛澤東에 의해 거론된 「非敵對的 矛盾」의 이론이 소련에서는 1947년 스탈린, 주마노프에 의해 승인되었다.

아울러 모택동은 모순은 도처에 있다고 하는 그 一般性和 더불어 質적으로 다른 단계에는 모순은 다를 수가 있다는 그 特殊性을 강조하기에 이르렀다. 결국 사회주의하에서의 모순의 성격은 非敵對的이며 그 방법은 「비판과 자기비판」이라는 잠정적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그러나 중·소간의 이해관계가 충돌되면서 모순의 변증법은 공산권 자체 내에서도 모순·대립이 있느냐, 그리고 소련의 평화공존노선은 공산권과 「자본주의 진영」과의 관계를 「적대적 모순」의 관계로 이해하기를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의 문제가 특히 중공측에서 제기되었다.

이 문제에 대해 1958년 4월 21일~26일 소련 아카데미 철학연구소에서는 모순에 대한 중대한 철학토론이 전개되었다. 이미 이 문제는 스탈린死後 1955년에 시작되어 소련과학아카데미 회원 스테바난, 소보레프 등 대표적인 소련철학자와 철학교수로서 구론로드, 루기리노프, 메도베세프 등도 참가했고, 중공의 江詩永(중공〈新建設〉1958년 4호), 불가리아의 고고로드, 동독의 W. 아이히보른 등도 끼어 있다. 소련철학계 내에서도 상대성 원리의 승인이나 형식논리학과 모순의 새로운 해석에 대해 이를 방해하고 낡은 DIAMAT의 공식에 어긋난다는 고발자 역할을 하는 보수적 그룹(막시모프, 로젠타리 등)이 있었다.

Bochenski가 현대 소련철학자의 세 타

입 즉 ① 反動主義者 ② Hegel주의자 ③ 아리스토텔레스학도로 나눌 바 있는데, 이 세 유형은 논리학의 아리스토텔레스적 해석을 발전시켜 변증법적 논리학을 부인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모든 존재에는 모순이 있다는 敎條를 부인한 수학적 논리학자 지노비에프도 있었던 것이다.

이 논쟁은 「DIAMAT」의 공식 중 「對立物의 對立과 鬭爭의 法則」이라고 하는 모순의 새로운 해석으로 소련의 國定哲學(1938年 黨史 제4장에서 敍조화된 「DIAMAT」와 「HIMAT」, 1958年 흐루시초프에 개정된 「OCHOBBI」, 1971年 브레즈네프 정권에 와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의 기초」로 당과성이 최박해짐)에 큰 타격을 가하였다.

이 논쟁의 이슈는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① 모순이 사회주의 사회의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가?

② 사회주의 사회에는 어떠한 모순이 작용하고 있는가?

그 특징은 무엇인가?

③ 그러한 모순 중에 기본적 모순이 있는가, 없는가?

④ 있다면 어떤 것이 기본모순인가?

여기서 첫째 문제 즉 모순은 사회주의 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 문제는 레닌이 변증법의 핵심이라고 부르는 「모순의 법칙」에 대한 이해, 해석에 관한 가장 원리적인 문제이다. 그러

나 사회주의하의 모순의 해석이 가장 큰 딜레마였다. 제급사회에서 다시 말해서 〈운동단계의 공산주의〉에서는 「革命的代數學」으로 모순의 변증법이 유효했으나 이른바 「제급적 기본모순이 해결된 사회주의 사회, 즉 「집권단계」에 와서는 모순이 결국 자승자박이 된 셈이다.

모순의 해석은 대개 다음 4갈래로 엮겨 나갔다.

(a) 모순은 발전의 原動力이다. (Stevanyan 등)

(b) 모순은 발전의 원동력이 아니다. 모순의 극복이야말로 발전의 원동력이다 (루나키 등)

(c) 모순은 발전을 방해한다. 통일, 단결, 일치야말로 발전의 원동력이다. (로진·투가리노프 등)

(d) 어떤 모순은 발전의 원동력이지만 또 어떤 모순은 발전의 장애물이다. (소보레프 등)

이 4가지 해석보다 모순의 변증법에 대해서 보다 결정적인 비판은 아리스토텔레스 형식논리학의 전통 위에 선 수학적 논리학으로부터의 비판이었다.

1956년 非스탈린化를 계기로 조성된 소련의 解永철학풍토는 철학의 최종적 해석권의 독점자 스탈린이 사라졌기 때문에 당권적 해석의 강요는 완화되고 소련 밖으로부터 자기 이해를 달리하는 중공 등의 견해가 모순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한 것이다.

사회주의하에서는 보다 완화되고 非敵對의인 모순인 「비관과 자기비판」의 교조도 모순해석의 일방적 독점을 난감하게 만든 셈이다.

위의 4가지 전제 중에 (a)형은 Stevanyan에 의해 대표되는 保守의인 해석이다. Stevanyan은 사회주의 내부에도 모순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입장에서 「DIAMAT」의 교조에 대한 수정을 용인하지 않으려고 한다. 즉 모순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고 해서 이미 대두된 「無葛藤說」을 냉혹하게 비판한다.

보수파로서 중공의 江詩永(사회주의적 생활양식의 기본모순)은 「변증법의 기본법칙」은 온갖 사물의 내부의 대립성에 사물에 내재하는 모순 가운데에서 발전의 근원을 구한다.

사회주의적 생산방식의 경우에도 그 예외일 수가 없다고 해서 毛澤東의 「人民內部的 모순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것에 대하여」의 태예제를 옹호하면서 중공 국내의 대규모적인 계급투쟁이 기본적인 모순이라고 강조한다. 특히 江詩永은 사회주의는 인간 수요의 확대로 인해서 生産과 需要의 모순은 계속 있게 되고 「이러한 수요는 영원히 사회주의 생산의 목적 및 원동력이요, 끊임없이 생산을 진전 발전시킨다」라고 해서 기본적인 모순의 尙存을 주장했다.

그러나 이와같은 (a)형의 보수파 전제는 「DIAMAT」를 死守할 수는 있으나

변화된 공산권 내에서의 소련의 이익을 옹호하지 못하고 차라리 중공측에게 유리한 立論이 된다. 이는 중공의 반항을 正當化 해주고 소련 중심의 單一石의 단결을 부정하는 논리가 된다.

「모순이 없으면 발전도 없다」는 명제가 중공측에 유리한 이론적 무기가 된 증거로 1964년의 중공 내에서 일어난 「一分爲二」 논쟁에서 찾아볼 수 있다.

楊獻珍은 대립의 투쟁면보다 모순의 〈조화〉면을 강조해서 〈合二而一〉을 내세우고 〈合二而一〉이야말로 대립물의 통일로서 변증법의 기본법칙이라고 내세우고 그 모순대립의 局面에 대해서는 「合二而一」인 바 사물을 연구하는 방법으로서 「一分爲二」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한 모택동파 철학자들의 공격이 「紅旗」(1964년 제16호)에 『철학전선에 있어서의 새로운 논전 —「合二而一」이라는 양현진동지의 논점을 둘러싼 토론에 관하여』에서 전개되고 楊은 대립·투쟁을 부정하는 階級調和論으로 지탄 받았다. 그러나 楊의 「合二而一」의 변증법은 이미 보수적인 모순개념을 극복하고 있었다.

다음 (b)형은 「모순은 발전의 원동력」이 아니며 모순의 극복이 발전의 원동력이다」(루기키 등)와 (c)형을 내세우는 철학자들이 소련 官邊哲學을 대표한다. 이 (c)형에 대하여 불가리아의 코코로프는 「본질적으로 “無葛藤論”에의 복귀다」

라고 통렬히 비난하고 나섰다. (c)형은 계급적 모순이 해결된 사회주의사회하에 서는 내부모순은 존재하지 않으며 모든 세력의 통일과 단결만이 있을 뿐이라고 高唱한다. 로진·투가리노프의 공동논문 「모순과 원동력」(『철학의 문제』 1957년 제3호)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의 진실자들 중에는 발전의 기초에는 반드시 모순이 있다고 주장한 일이 없고 오히려 대립의 통일과 對應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사회주의의 발전에 있어서는 분열·투쟁보다 그 「조화성」이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는 것이다.

특히 이 논문이 「사회주의 진영의 힘과 위력의 원천은 그 내적 모순이 아니라 그 전체적인 힘의 통일과 단결이다」라고 선언한다. 결국 소련사회의 원동력은 소련인 서로간의 모순이 아니라 「그 정신적·정치적 통일」이며 민족간의 反目투쟁이 아니라 「諸民族間의 우정」이며, 또한 「소비에트적 애국주의」라고 규정한다. 이에 덧붙여서 「비판과 자기비판」, 「사회주의적 경쟁」을 들어 발전의 원동력이라 말한다. 그러나 「비판과 자기비판」도 언론자유를 의미하지 않는 아주 제한된 것이다.

다음 소보테르說로 대표되는 (d)형은 절충설로서 모순에는 발전의 원동력이 되는 것과 그 방해가 되는 것 두 가지가 있다는 입장이다. 예를 들어 사회주의적

생산관계와 생산력의 모순은 相補的인 것이고 발전의 원동력이 되나 낡은 것과 새것 사이의 모순같은 것은 발전의 방해물이 된다는 것이다. 이런 절충설도 모순의 변증법이 공격무기로서는 효과가 있었으나 사회주의 단계에 대해서는 自害的인 것임을 입증해 주었다.

이 논쟁은 모순의 성질에 대해 더욱 날카로운 의견대립을 가져왔다. 대개 계급사회의 모순의 특징이 절대적인데 대해 사회주의하의 모순은 非敵對的이라는 데 그들의 의견이 일치한다. 그러나 불가리아의 스테파노프처럼 모든 모순은 본성상 조화될 수 없고 다만 모순의 극복이 있을 뿐이라는 견해에 이르러서는 모순은 필경 적대적 대립이므로 투쟁을 통해서만이 극복된다는 正統論의 교수로 되돌아가게 된다.

이 문제는 흐루시초프의 平和共存路線을 계기로 크게 부각된다. 문제는 공산권과 자본주의제국과의 관계를 모순관계로 규정하고 재래적 모순으로서 전쟁은 불가피하다는 견해가 전쟁측의 戰爭不可避論이었다. 흐루시초프의 공존노선은 양진영간의 관계를 계급투쟁적 관계가 아닌 평화적 공존관계로 규정함으로써 변증법의 교조마저 근본적으로 수정하게 된다는 것이다. 흐루시초프를 현대적 修正主義로 낙인찍은 이론적 근거가 나온다.

1963년 6월 중공이 발표한 「국제 공산

주의 운동의 총노선에 관한 제안」은 주로 후의 공존론이 모순개념의 근본적 수정이며 계급투쟁의 포기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특히 「現代의 基本的 矛盾」은 어떤 것이냐에 대한 소련과 중공의 견해차는 아주 크다. 소련 과학아카데미 부총재 A. M. 루얀체프는 「현대의 기본적 모순」(「현대 사회과학의 제문제」(1969)에 대해서 1960년대초 「모스크바 宣言」 이래 모택동파와의 의견대립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中共側은 「인류발전의 한 단계가 帝國主義와 프롤레타리아革命의 시대」라고 규정하고 아시아·아프리카의 민족해방운동에 초점을 놓고 「현대의 모순」의 結節點은 아시아·아프리카라고 我田引水格의 풀이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모택동주의자들은 모순의 尖銳化의 기준을 다만 모순발현의 외면적 형태인 「무장투쟁」—內戰(Civil War)에 의한 流血—투쟁으로 보고 있다.

이런 內戰型의 민족해방투쟁을 강조하는 중공측의 이론적 근거는 현대의 기본적 모순이 본국과 식민지의 대립이라는 견해이다. 이에 대해 소련측을 대변하는 루얀체프의 분석은 중공지도부가 자기들의 성립근거를 內戰型 민족해방투쟁에 두는 것은 「그들의 민족적으로 국한된 경험의 萬能化」이며 사이비 革命的 공언이나 모험주의적 정책이라고 규탄한다.

루얀체프는 모택동의 모순론을 「철학하는 毛는 모순의 유희에까지 빠져들었

다」고 경고한다. 毛는 일본이 중국대륙을 점령한 것을 가리켜 「日本人은 승리라고 했다. …… 중국인은 패배라고 했다. 그러나 중국의 패배에는 승리가 내포되어 있고 일본의 승리에는 패배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쓴 바 있는데 (「人民內部的 모순을 올바르게 처리하는 문제」)이 「對立物의 相互轉化」라는 老子類의 격언은 그것을 그대로 차용한다면, 예를 들어 「히틀러 독일의 패배에는 파시즘의 미래의 승리가 포함되어 있고 소련의 승리에는 사회주의의 패배가 포함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고 루얀체프는 야유했다.

(3) 共產國哲學論爭의 評價

① 공산권의 모순논쟁은 「변증법의 마술」이 그 馬脚을 드러낸 셈이 된다. 「모순이 없으면 발전이 없다」는 명제를 마치 과학적인 보편법칙인양 절대화 하자 어느덧 사회주의하에서 모순이 해소되었다면 그 원동력이 없어 발전은 중지되고 침체할 것이고 모순이 있다고 자인한다면 자본주의를 타도하자는 명분이 서지 않는다. 공산주의자들은 집권전칙 「운동단계」에서 모순의 변증법이, 투쟁이 발전의 원동력으로서 대중 동원의 이데올로기가 되어 주었으나 일단 집권한 다음부터 「집권단계」 이후의 이론바 「사회주의하」에서는 모순의 변증법은 공산정권

타도의 철학이 되고 지배층 비판의 이론적 근거가 되며 소련 일변도에서 벗어나 소련 공산당 노선에 대해 비판할 수 있는 이론적 무기가 된다. 모순의 변증법은 그것이 자유세계이든 공산권이든 모든 에스타블리시먼트가 싫어하는 철학이다. 그 「否定的 否定」 법칙은 공산당도 조만간 부정 당한다는 것을 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변증법의 법칙들, 즉 「量의 質에의 轉換法則」, 「對立物의 浸透法則」, 「否定的 否定法則」 등이 마치 가장 보편적인 법칙이고 과학적 법칙인 것처럼 간주해 왔으나 이들은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 巨視的 假說에 불과하다. K. 포퍼는 「변증법이란 무엇인가?」란 논문에서 古代 이래의 변증법이란 인간의 思考가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의 시행착오의 방법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오히려 과학적 방법이 어떤 문제에 직면하여 시험적으로 한 해결로서 이론을 제시하며(定立), 다시 이에 대한 비판과 검사를 정해서 부정하게 된다(反定立),

이와같이 과학적 방법은 시행착오의 방법인 동시에 폐기의 방법인 점에서 변증법적이므로 파로이 변증법의 절대화는 불필요하다는 견해이다. 결국 포퍼는 변증법가들이 비유과잉에 빠져 있고 「모순을 무제한하게 인정하는 점」에서 중대한 오해와 혼란이 야기되었다는 분석이다.

② 모순논쟁은 모순개념에 대한 애매

한 규정에서 온 것이다. 19세기 논리학은 모순과 반대를 엄밀히 구분할 줄 몰랐고 마르크스도 이를 혼동한 것이다. 원래 모순관계란 $P = -(-P)$ 와 같은 형식 논리의 세계에서만이 성립되는 不相容의 관계이다. 계급단계는 오히려 공존적 상보적인 면이 있는 현실의 반대적 대립에 불과하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변증법의 예로서 드는 수학의 $+$ 와 $-$, 물리학의 作用과 反作用, 전기의 $(+)$ 전기와 $(-)$ 전기 등은 논리적 모순단계가 아니라 오히려 相補의인, 共存의인 것들이다. 변증법에서 분열·대립의 계기로 강조하느냐, 종합·통일의 계기로 강조하느냐는 그것을 이용하는 이데올로기들의 실용적 판단에 의한다.

③ 言語學論爭과 形式論理學論爭에서도 소련철학의 자기수정이 결과되었다. 원래 「HIMAT」의 命題들이 보편적 진리인양 敎條化되어 그 적용범위가 언어·수학·수리논리학 등에까지 확대되어 더욱 물의가 생긴 것이다. 스탈린이 이미 「마르크스주의의 언어학」에서 자인했듯이 수학 언어와 같은 토대·상부구조 어디에도 속하지 않고 따라서 비계급적인 분야가 있음을 인정하게 되었다. 그것은 모순대립에 있어서도 비계급적·비투쟁적인 「조화」면은 어느덧 인정하게 되고 결국 변증법의 자포자기까지도 의미하게 된다. 이 발단에서 「上部構造의 상대적 독립성」의 修正說이 나왔다.

④「HIMAT」는「理論은 실천을 위한 道具」라고 주장한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밖으로 과학적 객관주의를 표방하면서도 당적 실천을 위한 주관주의 프레그마티즘의 색채가 강하다.

결국 모순이 무엇이며 기본적인 모순은 어떤 것이냐에 대해 진리는 소련 공산당의 信念의 意志와 中共黨의 그것이 다르기 때문에 서로 相反되는 견해의 엇갈림을 보였다. 모순의 변증법도 당의 공산주의적 실천에 봉사하는 정치도구에 불과하고 강제사회 유지를 위한 독재 이데올로기에 불과하다. 독재는 내내적 폭력 지배를 정당화하기 위해 국민들을 깊은 피해망상증으로 몰아넣고 그 위기 속에서 오로지 獨裁者 一人에게 귀의하는 도리 밖에 구원의 길이 없는 듯이 설득할 때에만 유지된다. 共產獨裁도 국민 모두가 적대적 내립투쟁의 긴장 속에 있도록 하고 항상 對內外的 적의 위협하에 있다고 설득한다. 이러한 독재적 지배의 정치적 도구가 모순의 변증법이며 모순대립의 투쟁 이데올로기다.

결국 소련의 철학논쟁은 소련철학이 당적 실천의「프로파간다」적 성격을 벗어날 수 없고 당이 뜻하는 것이면 무엇이든지 眞理라고 하는「철학의 당파성」원칙에서 그 主意主義의 성격과 프레그마티즘화가 폭로된 셈이다. 수차에 걸친 이들 논쟁은 소련 이외의 공산정권에 큰 충격을 줄 것은 물론이다. 그 중에서도

中共과 北韓의 이데올로기에 더욱, 심한 타격을 주었다.

이상과 같은 소련 및 공산권의 철학논쟁은 거의 북한에서도 받아들여졌고 그때마다 北韓學界에서도 새 修正說의 受容을 위한 진통을 겪지 않을 수 없었다.

5. 北韓「哲學辭典」의 「主體思想」의 性格

북한에서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이 일단 스탈린주의적 敎條에서 벗어났다고는 하나 그 대신 소련의 새「哲學敎程」을 수용할 수 없는 思想的 곤경에 처하자 드디어 1970년대 초에 金日成의 1인 思想中心의 소위「주체철학」이 급조되었는데 그와같은 철학 이데올로기에 대한 1인 독점의 준비과정에서 1970년刊「철학사전」이 위치한다.

이「철학사전」도 소련의 수정주의적인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의 유입에 대한 防壁으로서 소비에트 百科事典이나 수정주의적 철학의 영향력을 봉쇄하기 위해서 편찬된 것이 분명하며 특히 김일성 1인 우상화를 철학사전 편찬에서 가장 극단화한 표본을 이 사전에서 엿볼 수 있다. 그렇지만 이 철학사전의 기본적인 편찬방침은 1966년의 자주선언에서 제시된 김일성「主體思想」의 철학적 합리화에 두고 있다. 따라서 이 사전에는 아직「主體哲學」이라는 용어나 항목은 보이지

않고 있지만 그 과도적 준비단계의 성격
을 이 사전에서 역력히 엿볼 수 있다.
그 이전에 북한에서는 여러 가지 철학이
나 社會科學用語辭典類가 나왔으나 대개
가 소련사전의 번안이거나 개작에 불과
했지만, 이 사전은 철저히 「金日成選集」
중에 실린 김일성어록으로 풀이한 명실
공히 김일성 1인 철학사전의 체제와 면
모를 갖추고 있다.

우선 이 「철학사전」은 1970년 4월 북
한 사회과학원 철학연구소에서 菊版 840
면의 부피로 간행되었다. 이 사전의 놀
라운 특징은 著者도 집필자도 표시되어
있지 않은 집단적 편찬형식을 취하고 있
으며 더우기 사전의 권두에 장장 108면
의 긴 序說이 붙어 있는데 그 제목은
「金日成의 生涯와 思想」이다. 그리고 각
항목의 풀이는 완전히 김일성 1인의 言
說에서의 인용문으로 꾸민 引用句集으로
되어 있고 마르크스·엥겔스·레닌 등의
인용은 가급적 피하고 간접적으로 김일
성의 言說에서 옮기고 있다.

이 사전의 머리말에서 그 목적에 대해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철학사전〉은 우리의 모든 간부들과
근로자들에게 天才的인 마르크스·레닌
주의자이신 김일성 동지의 탁월한 철학
사상을 해설·선전하여 마르크스·레닌
주의 철학의 기본원리를 해석함으로써
노동계급의 혁명적 세계관에 튼튼히 선
혁명가, 공산주의자를 육성하는데 도움

을 주기 위하여 편찬되었다.」

이 머리말에서 명시된 바와 같이, 이
사전을 「김일성의 탁월한 철학사상을 해
설·선전하여」라고 김일성 1인 이데올로
기의 해설사전임을 공공연히 전제하고
있다. 이 사전의 이른바 「울림말」선정과
내용해설에서도 북한의 「사회주의 완수」,
「남조선 혁명」, 「조국통일의 승리」를 위
해 세계혁명을 추진시키는데 필요한 철
학지식을 주는 것이 목적이라고 쓰고 있
다. 【※울림말은 사전편찬상의 표제어
(Entry Word)에 대한 북한의 新造語】

이 점에서 이 사전은 북한에서의 「철
학」에 대한 定義가 몹시 이데올로기적이
며 그 존재구속적인 성격을 띤 것을 분
명히 표시하고 있다. 이 경우「存在」는
黨과 金日成 1인의 利益이며 북한 강제
사회 유지를 위한 強制 이데올로기임을
명시하고 있다.

특히 이 「철학사전」의 편찬원칙은 「주
체를 튼튼히 세우고 黨性과 科學性의 원
칙을 옳게 관철」한다고 규정한 점에서
이 사전 역시 自主宣言에서의 「思想에서
의 主體」를 구체화 하기 위한 官制의 사
전편찬사업이었고 결국 「主體思想을 풀
이하기 위한 철학용어사전」임을 알 수
있다.

이 사전은 金日成 「主體哲學」의 목적
이 기질은 김일성 1인 이외에는 한 명의
철학자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철학적 저
작을 철저히 政治化하려 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즉 북한에서의 哲學的 思考의

不毛性과 哲學不在의 산 표본이 이 사전이기도 하다.

이 사전의 두드러진 성격으로 지적해 줄 것은 북한 철학계는 기실 존재하지 않으며 마르크스·레닌주의 철학의 解釋權을 김일성 1인이 독점했을 뿐만 아니라, 마르크스·레닌·스탈린 등 「古典家」들을 내세우지 않고 직접 인용이 없을 정도로 소비니즘化 되고 1人 독점화 되어 있다는 것이며 그 증거로 사전 권두에 「金日成의 생애와 사상」 해설을 실었을 뿐만 아니라 金日成의 著作名이나 연설제목을 모조리 「울림말」로 망라했고 어휘해설은 모두 김일성의 言說에서 인용하고 그 引用부분을 특별히 고딕 활자로 강조하고 있는 점이다.

이 사전의 어휘 배열순서는 북한에서의 한글의 자모순을 따라서 ㄱ ㄴ ㅎ (단, ㅇ 제외)이 끝난 뒤에 ㅁ ㅂ ㅅ ~ ㅊ를 두었기 때문에 「원인과 결과」란 항목이 권말, 즉 840면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이 사전에는 「主體思想」이란 어휘는 올라 있으나 「主體哲學」이란 어휘는 없다.

「주체사상」에 대해 이 사전은 570~584면 즉 무려 6면을 배당했고, 이 항목에서는 「自主宣言」의 4自路線을 상세히 서술하는데 머물고 있다. 다시 말해서 이 사전이 나온 1970년까지는 아직 「金日成 主體哲學」의 公式化가 되지 않은 증거이다.

1920년대 우리나라에 마르크스주의 思想이 전파된 이래 60년만에 감히 국제 공산주의운동의 통일된 세계관이나 소련의 黨 이데올로기를 그대로 채용하지 않고 개인층배에 적합한 김일성 이데올로기를 조작하기에 이른 것이다.

이 「철학사전」은 1960년 「조선철학사」간행 이래, 우리나라 전통사상의 再肯定 作業의 결과를 「울림말」에 반영하고 있는 점이 주목을 끈다. 그러나 우리나라 철학사에 관한 항목은 김일성 사상에 관한 항목에 비하면 아주 빈약한데 놀라지 않을 수 없다. 그 항목을 추려보면 다음과 같다.

※ 철학사전 : 이 「철학사전」에는 전혀 스탈린에 대한 언급이 없다. 1966년 이후 공산권에서는 개인우상화와 관련해서 스탈린을 비판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에서는 스탈린에 대해 언급을 회피한다는 것은 어느 정도 스탈린 비판에도 소극적으로나마 반대하는 의사로 간주된다.

(A) 人物(12명)

「김옥균, 최한기, 서경덕, 김시습, 리 규경, 리 이, 리 익, 박지원, 정약용, 홍대용, 임성주」

(B) 術語(8항목)

「동학, 물려잡기, 기일원론, 리(理), 기(氣), 성리학, 음과 양, 외산문답」

이 사전에 오른 우리나라 철학사상 관계항목은 도합 20항목으로 너무 빈약하

고 그 선택기준도 주로 氣一元論(二唯物論) 계열의 思想家만 추리고 있다.

徐敬德, 李珥, 丁若鏞, 任聖周, 洪大容, 朴趾源, 崔漢基, 金時習에 국한시키고 退溪 李滉은 主理說=觀念論의 반동적 대표로서 아예 빼놓고 「東學」 항목은 들어 있으나 崔濟愚도 항목에서는 빠져 있다. 이 항목선택의 기준이 바로 우리나라 哲學史에 대한 北韓史觀을 잘 말해주는데 「陰과 陽」, 「氣」, 그리고 실학자 丁茶山, 朴趾源과 개화파 김옥균을 긍정적으로 다루고 있는 형편이다.

이 점에서 우리의 한국사상사의 관점에서 꼭 선택되어야 할 사상가로서 元曉, 義天 등 불교사상가, 1960년경 「조선철학사」에서는 아주 높이 추켜올렸던 妙清, 고려시대의 풍수지리사상, 유학사상가의 대부분이 이 사건의 항목에서는 누락되어 있다. 따라서 북한의 思想史觀에서는 음양설·氣一元論·실학사상만이 유물사관의 관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우리나라 민족사상의 역사적 전개과정상의 사상사적 특수성을 거의 무시해 버렸다. 이와같은 우리나라 철학사상에 대한 북한의 철학사관은 日本 유물론자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다. (※ 일본에서는 異例의으로 우리나라 인물을 항목에 올려 놓거나, 언급하고 있다. 즉 金玉均, 金時習, 洪大容, 崔漢純,

崔濟愚, 徐敬德, 丁若鏞, 李滉, 李滉, 李珥, 鄭道傳, 朴殷植, 朴趾源, 柳馨遠이 그 예이다.)

그러나 이 「철학사전」은 아직 정치적이었던 「自主宣言」의 내용을 그대로 소개하고 있을 뿐, 자주노선에 대한 철학적 합리화에까지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자주노선과 1960년대 이래의 우리나라 철학사의 양자가 분리된 채 다루어지고 아직 양자를 연관시킬 수 있는 철학적 논리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데 주목하게 된다.

우리나라 철학사에 대한 최근의 북한사관의 변화를 알려주는 책으로는 「조선철학사상연구」(古代~近代)가 있는데 역시 1970년대 후반의 것으로 「철학사전」과 동일한 이데올로기적 성격을 가진 집단적 저작물이다. 그러나 이 저작은 1960년판 「조선철학사」(上)를 일단 부정하고 기왕에 채택해 온 그 단계 신채호의 민족사관의 냄새를 일소하고 보다 김일성주의적으로 철거화시킨 철학사로 개편된 것임을 간취할 수 있다. (※ 조선철학사상사 연구: 저자, 발행년월일 미상) 그러나 이 책 역시 「주체철학」이건 「주체사상」의 입장에서 우리나라 철학사를 「주체사상」의 관점에서 다시 서술한 철학사 교과서임에는 틀림없다.

(계속)

南 · 北 聯 邦 制 論 批 判 Ⅱ

編
輯
室

Ⅳ. 共產主義 國家의 聯邦主義

1. 소련의 聯邦制度

北韓이 聯邦制案을着想하게 된 動機와 底意를 분석함에 있어, 같은 共產國家인 蘇聯의 聯邦制度에 대한 考察은 적지 않는 示唆點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왜냐하면 共產國家로서 최초로 聯邦主義를 채택한 것이 소련이기 때문에 北韓이 이것을 참작했을 것이며, 또한 흐루시초프 소련首相이 1956年 2月, 소련 共產黨 第20次 大會에서 平和共存을 提唱한 후 불과 몇 年 안 되어서 北韓이 聯邦制를 提議했기 때문에 소련의 影響을 받았을 可能性이 있기 때문이다.

소련은 15個 社會主義 共和國으로 구성된 特殊 聯邦國家이다. 소련이 聯邦制度를 채택하게 된 背景은 광활한 國土 위에 110餘個에 이르는 多數民族이 混居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하나로 묶어 강력한 社會主義 國家를 形成해야 할 터서야 革命後의 특수한 情勢에서 考案된 制度이다.

소련의 聯邦制度는 美國이나 스위스의 聯邦制度和 달라서 聯邦을 구성하는各民族國家는 法律的으로 不平等한 位置에 있다. 15個의 構成共和國 중에서 몇 개의

共和國은 자체 내에 自治共和國이나 自治領 또는 民族區를 가지고 있다. 이와 같은 大共和國은 小共和國에 비하여 우월한 投票權을 가지고 있다.

소련의 聯邦制度에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特色으로는 다음의 세 가지 點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로, 蘇聯邦은 볼셰비키의 民族政策의 歸結로서 이룩된 民族單位의 聯邦이라는 것이다. 즉 15個 構成共和國은 서로 다른 民族들로 구성되어 있는 한편 이들 共和國은 제각기 자기의 國名에 民族의 이름을 붙이고 있다. 다만 스탈린에 의하면 이 共和國을 조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세 개의 要件을 具備하도록 되어 있다.

① 蘇聯邦의 多數民族 중 一定地區에 永住하는 諸 民族의 總人口가 100萬名 이상에 달하고,

② 國名에 자기 民族의 이름을 붙이는 것은 그 民族의 總人口의 과반수를 차지하여야 하며,

③ 그 駐在地區가 外國과 國境을 接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 등이다.

以上 要件中에서 外國과의 國境을 接해야 한다는 것은 憲法上 各 聯邦構成共和國에 대하여 蘇聯邦으로부터의 脫退權이 인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소련 改正憲法 第71條는 「모든 聯邦構成共和國에 대하여 소련 聯邦으로부터 自由로 脫退하는 權利가 留保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第79條는 「聯邦構成共和國은 諸 外國과 關係를 맺으며 그들과 協力을 締結하고 外交代表 및 領事를 교환하며 國際組織의 活動에 參加할 權利를 갖는다」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우크라이나와 白러시아의 두 共和國은 유엔에 加入해 있다.

둘째로, 世界의 어떠한 民族에 있어서도 만일 그 民族이 社會主義制度를 채택하며, 또한 蘇聯邦에 加入을 희망하면 그 加入이 고려되고 있다는 것이다. 즉 앞에 記述한 聯邦構成共和國 중 라트비아, 에스토니아 및 리트바니아의 3國과 함께 外蒙古의 西北에 位置한 도바共和國(1944年 10月, 自治州로서 蘇聯邦에 加入)의 蘇聯邦 加入은 실체는 여하튼간에 形式的으로는 이들 諸國의 人民의 희망에 따라서 행해졌다고 소련측에서는 發表하였다.

세째로, 볼셰비즘의인 指導者 政治의 原則으로부터 聯邦構成民族의 自決權만 아니라 그 民族性까지도 形式化되어, 實際적으로는 강력한 社會主義에 의해서 中央集權의으로 指導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이러한 中央集權의인 指導가 現實로는 蘇聯邦의 支配勢力인 共產黨이 相異한 人種的, 文化的 背景을 갖는 地方民族에게 그들이 聯邦政府에 忠誠을 하는 限, 어느 정도 文化的 內政自治를 許容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內政自治에서 政治力을 強化하

려는 努力을 聯邦政府는 부담히 억압하
여 오고 있다.

2. 中共의 聯合政府論

北韓聯邦制案의 性格과 存在目的이 「單
一한 全朝鮮統一政府 樹立을 위한 前提
를 마련하기 위해 過渡的이고 臨時的인
措置」라고 할 때 이는 1945年 4月 國共
間의 共存을 앞세워 國民黨 打倒에 利用
했던 毛澤東의 聯合政府論과 比較해 불
만하다.

日帝의 敗亡이 目前에 이른 1945年 4
月 延安에서 開催된 中國共產黨 第7回
代表大會에서 毛澤東은 소위 「聯邦政府
論」을 내놓았다.

이 聯合政府論은 ① 中國人民의 基本
要求, ② 國際情勢와 國內情勢, ③ 抗日
戰 中 두개의 戰線, ④ 中國共產黨의 政
策, ⑤ 全黨團結로서 黨任務의 實現을
위해 鬭爭하자는 등의 5章으로 나누어져
있다.

毛澤東은 여기서 中國人民의 基本要求
는 各黨 各派 및 無黨 無派의 代表團을
結集시켜 民主的인 臨時聯合政府를 만들
어 日本을 敗北시키고 解放을 쟁취해야
한다고 강조했던 바 그 具體的 內容은
다음과 같다.

第1段階에서는 各黨 各派(國民黨, 共
産黨, 民主同盟), 無黨 無派의 代表的
人物의 聯合에 의해 臨時聯合政府를 樹

立하여 民主改革과 當面危機의 克服, 그
리고 全 中國抗日力量動員으로 統一을
이룩하여 聯合國과의 協同作戰으로 日本
侵略에서 解放한다.

第2段階에서는 自由選舉에 의해 國民
代表大會를 召集하고 各黨 各派, 無黨
無派의 보다 광범한 代表的 人物을 포함
하는 聯合的 性格의 正式民主政府를 樹
立하여 解放後의 全國人民指導 및 獨立,
自由, 民主, 統一, 富強의 新國家를 建
設한다는 것이다.

毛澤東은 第7回 黨大會에서의 主張에
서 共同綱領을 제기하면서 그것을 다시
一般綱領과 具體的 綱領으로 2分하였으
며 後者를 最低限度의 綱領이라고 제시
했다. 一般綱領은 新三民主義의 發展이
라고 하는 新民主主義를 골자로 하는 것
인데, 프롤레타리아 領導下에 장래의 最
高綱領인 社會主義와 共產主義를 향해
매진하는 것이라고 했고, 그의 最低限度
綱領에서 國民黨 一黨獨裁의 廢止 및 聯
合政府의 聯合政府論의 建立 내지 解放
區政府의 承認을 요구하고 나섰다.

以上에서 毛澤東의 聯合政府論의 最低
限度綱領에 明示된 바와 같이 國民黨의
地位를 抹殺하는데 基礎하고 있음을 역
력히 볼 수 있다.

毛澤東은 이 聯合政府論을 제의한지
4個月後인 1945年 8月~10月間 蔣介石과
重慶會談을 벌였으나 이것이 失敗로 돌
아가자 國民黨 政府에 대한 積極攻勢를

취해 마침내 中國大陸을 赤化하는데 成功했던 것이다.

3. 東獨의 國家聯合論

우리와 같은 分斷國인 東·西獨이 1950年代 후반에 統一의 過渡期的 措置로서 國家聯合論爭을 치열하게 벌인 일이 있다.

1956年 12月 31日, 東獨의 울브리히트는 統獨에의 過渡期的 措置로서 國家聯合案을 西獨側에 제의하였다. 그 內容은 兩獨이 國際法的 基盤 위에서 國家聯合을 구성하되 兩獨을 초월하는 自主的 國家權力은 수립할 필요가 없고 다만 「全獨委員會」라는 調節機構을 두어 兩獨間의 諸般 問題를 協議, 處理하자는 것이다.

그리고 全獨委員會는 兩獨議會代表로 구성하고 여기서 4대強國의 兵力撤收 문제를 비롯하여 兩獨間의 經濟協力關係, 相互協力方案, 政黨活動의 自由保障 문제 등을 協議하고자 제의하였다.

이와같은 東獨의 主張에 대해 西獨은 몇 가지 理由를 들어 拒否하였다. 즉, 獨逸統一達成은 兩獨政府 事項이 아니고 全獨逸國民의 排他的 權限에 속하는 것이며 民主主義와 共產主義間의 理念上 矛盾 때문에 聯合案은 行動을 상설하게 된다는 論據를 내세웠다.

同時에 國家聯合案은 西獨의 東獨에

대한 國家承認結果를 초래하고 西獨聯邦共和國은 이미 國家聯合의 한 例로서 그 위에 또 다시 聯合의 틀레를 씌운다는 것은 屋上屋의 不必要한 制度라고 반박하였다.

1960年代 初까지 계속된 이 國家聯合論爭은 소련이 東獨의 主張을 뒷받침해 주고 反面에 美國이 西獨側 反論의 妥當性을 立證해 주는 등 強大國關係까지 擴大되었으나 결국 강력한 西方側의 反對에 부딪쳐 霧散되고 말았다.

東獨이 國家聯合案을 主張한 것은 國家聯合을 통하여 東獨政權의 合法性 내지 國家性을 획득함으로써 西獨과의 對等한 關係를 유지하려는 데 있었다. 다시 말해 東獨은 兩獨關係를 國際法的 平等關係로 보고 獨逸的인 聯合體 形成을 試圖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西獨은 兩獨關係를 國內法的 特殊關係로 보며 全獨의 共榮體 形成을 指向하였다. 특히 西獨側 立場에서는 民主主義와 共產主義間에는 理念上 對立要因 때문에 聯合成立이 곤란하다는 냉철한 現實論理를 重要視하였는 바, 이것은 같은 分斷國인 南·北韓間의 聯合形成에도 看過해서는 안 될 문제라고 생각된다.

4. 베트남의 印支聯邦論

武力에 의해 베트남 統一을 이룩한 베

트남 共產政權은 그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窮極目標이라고 할 수 있는 印度支那聯邦 形成을 획책하고 있다.

베트남 國防相「판 도이 난단」은 프놈펜을 함락한 후 베트남, 캄보디아, 라오스의 印支 3國聯合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면서 3國은 새로운 生存을 위해 相互聯合할 것이지만 자기 완전한 獨立國家로서 團結을 구축할 것이라고 보도되었다. 베트남은 印支聯邦이라는 오랜 꿈을 달성하기 위하여 優先적으로 베트남 統一이 急先務였다. 베트남의 統一은 ① 1954년의 分斷에 대한 民族的悲運을 제거하고, ② 北쪽의 經濟的壓迫을 해소하는데 도움이 되며, ③ 北쪽에 統合시키겠다는 南部人에 대한 約束을 이행하고, ④ 北部 베트남 政權에 위협을 주는 南部人의 忠誠心を 北쪽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베트남의 統一政策은 越南戰을 勝利로 이끌어 가면서 실현되었으며, 한 걸음 더 나아가 그들의 窮極目標인 印支聯邦의 樹立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胡志明이나 베트민이 라오스, 캄보디아를 하노이 支配下에 넣어서 印支聯邦을 계획했다는 확실한 證據와 公式的인 言及 등은 찾아볼 수 없다는 점이다. 다만 歷史적으로 볼 때 베트남이 北京에 종속되는 것을 저항했다는 民族的인 問題와 한 때 프랑스聯合 內에서 베트남 主導下的

印支聯邦이 形成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라오스나 캄보디아를 베트남政策에 追從하는 隣接國으로 만들어 北京의 勢力膨脹에 對抗하고 印度支那에 자신의 勢力을 구축하기 위하여 印支聯邦을 구성할 可能性은 많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라오스와 캄보디아 兩國은 歷史적으로 일찌기 어느 정도 베트남의 從屬國이었다는 事實로서도 그 可能性은 크다고 보겠다.

이러한 可能性이 앞서 지적한 베트남 軍機關紙에 의해 現實化되고 있다고 하겠다.

한편 캄보디아의 시아누크는 1961년에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를 포함하는 印度支那中立地帶를 強大國 保障에 의하여 形成할 것을 제의했었다. 그리고 1963년 12월에는 캄보디아와 南베트남을 포함한 中立化된 印支聯邦의 創設을 제의하였다.

이와 같은 印支聯邦論은 79년에 베트남이 캄보디아 敎國統一戰線(KNUFNS)이라는 親베트남, 親蘇의 傀儡政權을 안세워 캄보디아를 侵攻, 폴 포트(Pol Pot) 政權을 몰아냄으로써 보다 具體化되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1977년에 이미 軍事的으로 締結한 라오스와 友好協力條約을 체결함으로써 사실상 屬邦化시켰다. 베트남은 友好協力條約에 따라 라오스에 대하여 經濟·軍事·社會 등 모든 分野

에 걸쳐 援助하게 되어 있다.

이에 근거하여 베트남은 3萬名の 兵力을 라오스에 駐屯시키고 있다. 또한 베트남은 최근 캄보디아 領內에 수만명의 베트남 民間人을 대거 移住시킴으로써 캄보디아를 사실상 合併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베트남 政府가 캄보디아를 政治·軍事的 側面에서 뿐만 아니라, 社會·人種의 面에서도 同化 合併시키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베트남 民間人을 캄보디아에 대거 移住 定着시킴으로써 라오스, 캄보디아 등 印度支那國家들을 合併시켜 印支聯邦을 구성하려는 膨脹政策의 첫 措置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다.

5. 北韓과 4個

共產國家의 比較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北韓, 蘇聯, 中共, 東獨, 베트남의 5個 共產國家 중 소련은 이미 오래 前부터 聯邦制를 채택하여 오고 있고 中共, 東獨, 베트남은 聯合政府와 國家聯合, 聯邦을 試圖한 바 있었다.

이들 5個國이 취한 統合概念은 聯邦, 聯合政府, 國家聯合 등 꼭 다양하다. 이것은 이들 國家가 時空間의 으로 각기 다른 與件과 環境에 처해 있었기 때문에 불가피한 현상이라고 하겠다.

그러나 이들이 표방한 統合概念 가운데는 다음 比較圖表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몇 가지 特徵의 樣相을 發見할 수 있다.

다음 圖表에서 보면 統合概念의 形態와 名稱이야 어떻든 그 性格은 모두가 統一에의 過渡의 措置, 즉 共產化 統一을 위한 中間過程으로 聯邦(國家聯合, 聯合政府)을 주장하였다.

특히 北韓, 中共, 東獨 등 分斷國은 相異한 政治理念의 條件에서 共產主義式 統一을 향한 中間段階로 이것을 주장하였다. 또한 民族, 領土構成面에서는 北韓을 除外하고 모두 多數民族이 共存하는 社會體制의 異質성과 광활한 領土的인 背景을 가지고 聯邦을 形成하거나 試圖하였다. 共同防衛의 對象面에서는 이들 國家의 大部分이 外勢排擊 또는 外部勢力의 威脅으로부터의 自己保護라는 目的에서 聯邦形成을 試圖하였고, 소련을 除外한 4個國이 過去의 統合經驗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聯邦·聯合을 주장하면서 표면적으로는 聯邦·聯合의 中央機關 提示와 構成國間의 平等關係를 내세우지만 실제로는 共產黨 中心의 中央集權的 指導를 추구하고 있다.

<表 1>

相 互 比 較 表

區 分		北 韓	蘇 聯	中 共	東 獨	베트남
1	形 態	聯 邦	聯 邦	聯 合 政 府	國 家 聯 合	國 家 聯 邦
2	性 格	統一에의 過渡的 措置	聯邦의 恒久的 維持	統一에의 臨時的 措置	統一에의 過渡的 措置	
3	民 族	單 一 民 族	多 數 民 族	多 數 民 族	單 一 民 族	多 數 民 族
4	領 土	狹 小	廣 闊	廣 闊	普 通	普 通
5	理 念	共產主義와 自由民主主義	共 產 主 義	共產主義와 三民主義	共產主義와 自由 民主主義	共 產 主 義
6	共同防衛對象	駐韓美軍 撤收		日本侵略에서 解放	4大強國의 兵力撤收	中 共 威 脅 排 除
7	統 合 經 驗	經驗(分斷以前)		經驗(中·日戰爭 以前)	經驗(第2次大戰 以前)	經驗(프랑스聯合 內에 서 印支 聯邦形成)
8	聯 邦 機 關	最高民族委員會	蘇聯邦最 高 會 議 蘇聯邦最高裁判所 蘇聯邦閣僚會議		全 獨 委 員 會	
9	聯邦政府와 構成國關係		共產黨中心의 中央 集權의 指導			
10	構成國相互關係	南·北의 現在 政治 體制維持 內政不干涉	不 平 等 關 係	國民黨 一黨獨裁廢止	兩獨關係를 國際法的 平等關係化	各其 完全한 獨立國家

V. 聯邦主義 統合理 論의 諸 命題

本章에서는 北韓이나 共產國家의 聯邦主義와는 관계없이 一般 西歐의 概念의 聯邦主義(英語, 獨語使用國家의 聯邦制度)에 입각하여 國家間 또는 社會的 單位間的 聯邦的 統合에 關聯되는 命題들을 정리하여 보기로 한다.

統合은 현재 分離되어 있는 複數單位가 하나의 單位를 形成하는 過程이라는 간단한 定義를 前提로 한다면, 두 單位가 統合을 할 수 있는 또는 統合하는데 도움이 되는 條件이 있을 것이고 또한 聯邦統合後 그것의 運營을 促進하는 行爲가 있을 것이므로 편의상 聯邦主義 成立動機에 관한 命題와 成立要件에 관한 命題, 그리고 聯邦主義 成長에 관한 命題로 區分하여 論하기로 한다.

1. 聯邦主義 成立動機에 관한 諸 命題

世界 各 聯邦國家는 相異한 時期에, 相異한 必要性的 認識에 기초하여 형성되었다. 그러기 때문에 聯邦主義는 필연적으로 動態의이고 [계속 變化하는 體系]이다.

一般的으로 聯邦國家들은 그 構成體가

單一國家를 形成하기에는 不適合한 異質的 要素를 가지고 있으면서 동시에 이러한 異質的 要素를 調和시켜 共存할 수 있는 統合要素를 共有할 때 형성되었다.

다시 말해 單一國家形成의 遠心的 作用要因과 複合國家形成의 求心的 要因이 調和를 이룰 때 聯邦成立이 可能한 것이다. 이러한 觀點에서 異質面에서 본 聯邦主義 成立動機 要素로서 ① 社會體制의 異質性, ② 領土의 廣闊, ③ 支分國의 獨自性 維持라는 3個의 變數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統合面에서 본 聯邦主義 成立動機 要素로서는 ① 共同理念의 存在, ② 共同防衛에 관한 認識, ③ 經濟的 統合에 대한 所望, ④ 相互間 知識과 作用, ⑤ 統合經驗이라는 5個의 變數를 고려할 수 있다.

各 變數別 命題內容은 다음과 같다.

가. 社會體制의 異質性 存在

社會體制의 異質性이 크면 클수록 政治體制가 一元的이기보다는 聯邦制가 될 가능성이 더 크다.

多數民族이 共存하거나 歷史·文化·言語·宗教上的 差異를 가지고 있을 때 聯邦制統合이 適合하다.

나. 國土의 廣闊

統合地域이 방대하면 할수록(혹은 人口가 密集될 수록) 政治體制가 一元的인

기보다는 聯邦制가 될 可能性이 더크다.

이때 統合하려는 두 單位間의 地理的 隣接性이 統合을 促進하는 要因이 된다는 것은 自明하다.

다. 支分國의 傳統性 維持

聯邦構成國들이 傳統적으로 各其 實質의 完全한 統治制度를 가지고 있고 聯邦統合後에도 그러기를 希望할 때는 聯邦制가 適合하다. 이렇게 形成된 聯邦은 恒久性을 지니게 된다. 왜냐하면 聯邦主義는 基本的으로 構成國(支分國)들의 多樣性을 保護하고 明示하려는 國民들의 心理的, 社會的 價值들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라. 共同理念의 存在

聯邦形成의 求心點인 共同的 政治理念, 國家目標가 存在하여야 한다. 聯邦主義는 構成國間의 外部勢力으로 共存과 共同的 目標追求를 위한 制度이기 때문이다.

마. 共同防衛에 관한 認識 및

外部의 힘의 作用

聯邦構成國들이 外部로부터의 軍事的 不安感和 그로부터 起因한 共同防衛의 必要性, 그리고부터의 獨立에 대한 熱望을 가질 때 聯合을 願한다.

美國과 國境을 接하고 있는 國家의 狀況으로부터 야기되는 壓力으로 인한 캐나다 聯邦의 경우와 東·西陣營으로부터 發生하는 壓力으로 인한 獨逸의 경우에 이에 해당된다. 그러기 때문에 共同的 敵에 대한 共同防衛의 必要性은 初期에는 聯邦體를 자극, 고무하고 나아가 그 聯邦體를 維持시켜 준다. 또한 外部에서 作用하는 힘의 適用方向이 새로 형성되는 統合體의 힘의 構造와 같은 方向일 때는 統合의 成功도를 높여준다.

바. 經濟的 統合에 대한 所望

聯邦構成國들이 經濟的 分離狀態에서 오는 不利益을 統合을 통해 利益으로 轉置시킬 수 있다는 所望을 가질 때 聯邦體를 자극, 고무한다.

사. 相互間 知識과 作用

構成國 相互間의 知識, 理解 및 社會的作用은 그들이 하나의 政治的 共同社會를 이루어 效果의 機能하는데 있어 必要不可缺하다.

아. 統合經驗

構成國들이 그 前에 統合을 했던 經驗 또는 政治的 團合經驗이 있으면 統合은 훨씬 더 쉽게 이루어 진다. 다만 過去의 經驗이 좋은 報償을 주었을 때 限한다.

2. 聯邦主義 成立要件 (憲法 및 法的 基盤)

構成國間の 聯邦主義에 관한 合意가 이루어져 聯邦을 形成하려고 할 때 憲法 및 法的 水準에서 다음과 같은 要件이 具備되어야 한다.

① 成文의 聯邦憲法에 基礎하여 수립된다. 聯邦의 關係는 항구적인 聯邦憲章을 통해서 確立 또는 堅固化되어야 한다. 政治體系 內에서 權力이 分配되거나 共有되는 것의 正하는 바를 분명히 밝힌 成文憲法이 具體化되어야 한다.

現在 모든 聯邦制는 聯邦制原理를 갖는 다른 體制와 마찬가지로 成文憲法을 保持하고 있다.

② 聯邦도 支分國도 다 같이 國家이다.

③ 主權은 聯邦만이 保有한다.

④ 支分國은 聯邦으로부터 脫退할 自由를 갖지 않는다.

⑤ 聯邦과 支分國은 聯邦憲法에 의거, 任務領域이 配分되어 있고, 이 任務領域 內에서는 獨立되어 있다.

⑥ 支分國은 聯邦立法機關에 代表機關을 設置한다.

⑦ 聯邦最高裁判所가 設置되어 있다.

⑧ 支分國 相互間の 地位는 平等하다.

3. 聯邦主義 成長에 관한 諸 命題

構成國間の 合意에 의해 成立된 聯邦

國家가 당초의 目標대로 運營·發展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要件이 充足되어야 한다.

가. 聯邦體와 構成體間の 意思疎通

現代의 聯邦制는 一般의으로 國民과 聯邦政府間에 커뮤니케이션 通路를 提供한다. 國民은 聯邦政府에 進出하는 代表를 選出하며 모든 聯邦政府는 個個 國民에게 봉사하는 行政을 수행한다.

이와같이 直接的인 커뮤니케이션 通路가 存在하는 점이 聯邦制를 다른 同盟體와 國家聯合으로부터 區分짓는 特徵이기도 하다. 이는 흔히 國民과 聯邦體를 結合하는 共同體 意識에 근거를 둔다.

나. 聯邦體內的 代議性

聯合體의 安定性은 構成員의 政治的 代議權이 막히면 곧 瓦解되거나 적어도 發展이 沮止되게 된다.

意思決定過程에 광범위한 參與를 許容하는 政治的 構造가 社會內의 團結에 기여하는 반면 專制的 構造는 反對意見을 自招하며 挫折感이 暴力으로 폭발하게 되므로 共同體가 瓦解하게 된다. 그러기 때문에 聯邦體가 成功的으로 機能하기 위해서는 特殊한 政治的 環境을 必要로 한다.

大衆政府에 貢獻하는 것, 政治的 協力과 自制, 그리고 美國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地方民主主義를 통한 權力의 地域分散이 필요한 것이다. 多様な 集團에 대해 固有의 地域의 權力土臺를 부여함으로써 이들을 調和시키는 것은 民主政府를 保存하면서 政治的 統合의 手段으로서 聯邦制度를 發展시켜 온 秘訣이 되었다. 그러므로 國內秩序를 維持하기 위해서 힘을 使用하는 것은 聯邦制 形態의 政府를 維持하는데 害로운 것이다.

또한 많은 公職에 充員될 수 있는 많은 有能한 人的 資源을 가지며, 自由의 價値의 一部로서 適當量의 經濟的 消費生活를 充足시킬 수 있는 物質的 資源을 가진 社會에서 聯邦制度는 가장 成功的이었다.

다. 聯邦體의 非中央集權化

聯邦主義는 事實上 自體적으로 維持되고 있는 多數의 政治單位들에 대해 實質的인 權力을 分配해야 한다. 이러한 權力의 分散을 非中央集權化라고 말할 수 있다. 非中央集權化는 地方分權化와는 다르다. 地方分權化는 中央政府가 地方政府에 特定權力을 移讓하되 中央政府의 一方의 決定에 의해 철회시킬 수 있는 條件附屬인 權力分散이다.

그러나 非中央集權化는 單純한 權力移讓 以上の 것이다. 즉 中央政府가 下位 政治單位인 地方政府에 一方으로 權力을 移讓하는 것이며, 通常의 것으로는 철회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聯邦體의 非

中央集權化를 維持시키는 要素로 다음과 같은 몇 가지가 있다.

(1) 支分國간의 均衡

聯邦制를 構成하는 政治體들은 人口, 富 또는 地理의 으로나 數的으로 同等해야 한다. 聯邦體制를 構成하는 政治體間의 不均衡이 聯邦制가 失敗하는 主要原因이 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2個 支分國으로 構成된 聯邦은 支分國 相互間의 힘의 均衡維持가 絕對條件이 된다.

(2) 支分國간의 境界線

支分國간의 境界線의 恒久性 역시 成功的인 聯邦制度의 한 特徵이다.

境界線의 變動은 政治體의 同意에 의해서만 可能하고 극단적인 狀況을 除外하고는 없어야 한다.

(3) 支分國간의 相異한 法體系

聯邦을 構成하는 政治體에 相異한 法體系를 制度的으로 保障함으로써 非中央集權化가 지탱되는 경우가 있다.

(4) 非中央集權化된 政黨體系

聯邦制的 非中央集權化를 維持하는데 가장 重要한 要素의 하나는 非中央集中的인 政黨體系의 存續일 것이다. 非中央集權化된 政黨들은 우선 聯邦的 契約의 制度的 裝置를 開發한다.

새 共和國의 經濟課題

어떻게 풀어나가야 좋은가, 進路와 處方들을 과제별로 엮어본다. 코구현시켜야 한다. 이들 강령과 공약들을 어디에 우선 순위를 두고 정당들은 政治강령이나 經濟公約들을 실속과 합리의 바탕 위에 기필에서 國民의 막중한 기대가 걸려있다. 때문에 이번 國會를 구성한 각 제5共和國의 새 國會가 80년대 民主福祉國家건설의 牽引車라는 점

編 輯 室

1. 民生安定과 福祉

GNP성장 自省論

현대국가는 그 사회구성원에 대해 최소한의 생활수준을 享有할 수 있도록 하는 의무를 지닌다.

말하자면 民生安定과 福祉增進의 의무가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더구나 그동안의 고도성장과정에서 제기된 갖가지 부작용이 顯在化되고 있는 우리 경제현실을 감안할 때 이러한 과제는 우리의 가장 시급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성장위주의 경제전략으로 인해 富의 偏在현상이 심화되어 왔고 외형적 성장에 치우친 나머지 국민생활의 質的향상은 그 외형적 성장을 뒤따르지 못하는 부진을 보여왔다. 더구나 급속한 개발인플레이션은 所得구조의 歪曲을 초래했을 뿐 아니라 投機를 통한 일확천금 내지 不勞所得을 選好하는 그릇된 사회풍조를 만들어 내기도 했다.

때문에 經濟의 외형적인 量的成長보다는 내면적인 質的 發展을 강조하는 주장들이 높아지고 있다. 경제정책당국자들까지도 「GNP成長의 神話에서 탈피해야 한다」면서 自省論을 펴고 있다. 英國의 저명한 경제석학 싱어박사(英서섹스 명예교수)도 개발도상국의 경제전략을 중

래의 「주된 목표 GNP성장, 희망적인 부
산물 貧困제거」에서 이제는 「주된 목표
貧困제거, 희망적인 부산물 GNP성장」
으로 바뀌어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總選을 배경으로 각 정당들이 내
세운 公約도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반
영, 민생안정과 福祉증진에 가장 큰 역
점이 두어져 왔다. 그 公約들을 보면
국민의 최저생활보장에서부터 국민복지
연금제의 실시, 의료보험수혜확대, 노인
및 장애인 복지법제정, 최저임금제의 실
시, 직업안정을 위한 취업등록제 실시 등
이 주요 骨幹을 이룬다. 이들의 주장과
공약이 국민 생활의 기본수요를 형성하
고 있다는 점에서 언젠가는 해결돼야 할
과제물이다. 또 이러한 사회적 욕구는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分配・成長에 調和를

그러나 민생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각종 과제들이 한꺼번에 해결될 수는 없
을 것이다. 재원조달의 어려움이나 사회
적 여건의 성숙, 그리고 분배와 성장과
의 조화 등이 긴밀히 고려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민생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지나친
사회보장의 실시는 자칫 사회구성원들의
근로욕을 감퇴시키고 이에 따른 생산
성의 저하와 성장의 침체를 야기시킬 가
능성이 크다. 특히 적정한 성장이 뒤따

르지 않는 분배정책은 경제의 축소재생
산을 의미할 것이다.

흔히 강조되고 있는 福祉의 개념도 어
느 일방의 소득을 다른 일방으로 이전시
키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낮은 소득자에 대해 소득의 기회를 균등
히 해줌으로써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
을 수 있도록 해줘야 할 것이다.

물론 노동이 없는 노약자나 장애인 등
에 대해서는 社會保障의 차원에서 지원
해야 할 것이다. 모든 사람들에 소득의
기회를 균등하게 해줌으로써 정당한 노
동의 대가를 받도록 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복지를 실현한다는데 더욱 의의
가 크다. 물질적인 기본수요가 충족된다
하더라도 사회참여나 성취감 등 정신적
인 행복이 결여될 경우 진정한 의미의
복지는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앞으로의
민생안정과 복지정책은 이같은 기본방향
을 감안하면서 정책을 立案하고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실효성 없는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나 유명무실한 기구의 설
치보다는 실질적인 소득재분배의 효과
를 거둘 수 있도록 政策의 內實化도 기
해야 할 것이다.

物價안정이 急先務

이렇게 볼 때 복지정책은 서민층의 최
저 생활보장에 우선이 두어져야 한다.
최저 생활보장의 수단으로는 소득을 늘
려주거나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제시될 수 있을 것이다.

때문에 고용증대를 통한 소득기회의 확충과 함께 의료보험 실시 확대 등이 뒤따라야 한다. 기본 생계비의 안정을 위해서는 물가의 안정이 급선무이다. 인플레이션은 不勞所得을 조장시킬 뿐 아니라 임금상승과의 악순환을 통해 국제경쟁력 약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기본 생활필수품만이라도 가격안정을 피할 수 있는 산업 및 금융, 세제정책이 강화돼야겠다.

현재 극히 소홀히 다루지고 있는 노인이나 신체장애자 등에 대한 사회보장제도의 확충도 시급한 과제다. 이는 비단 복지증진이라는 단순한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사회적 불만해소라는 사회정책적인 의미에서도 그 중요성이 크다.

생활환경의 개선도 시급한 현안과제 중의 하나다. 생활환경의 오염은 각종의 정신적 육체적 질병을 유발시키고 이는 결국 우리 경제나 사회의 발전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각종 공해방지는 당장의 투자효과보다 장기적인 성장발전의 기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장기적이고 계획적인 시책의 추진이 필요하다. 이 밖에도 국민복지연금제도의 실시, 고용보험의 실시 등 각종 사회보장제도의 확충도 복지국가 건설이라는 제5공화국의 국가목표에 비취볼 때 시급한 과제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아직도 우리는 國富의 축적이 요구되고 있다. 成長과 福祉는 어떤 면에서는 서로 相馳되는 경우가 많다. 成長과 福祉를 어느 정도 조화있게 선택하는 것이 경제정책의 가장 큰 핵심이자 가장 큰 고민이 아닐 수 없다.

2. 金融의 自律化

通牒·指示 이미 줄어

經濟를 人體라 한다면 金融은 그 血管이다. 經濟를 움직이는데 金融의 문제가 따르지 않는 경우란 없기 때문이다.

금융이 經濟정책의 核을 이룰 수 밖에 없는 까닭이 여기에 있다. 그런데 우리 經濟는 지금 체질적 변화기를 맞고 있다. 政府主導가 아닌 이른바 民間主導체제로의 전환이다. 經濟체질이 바뀌면 이를 뒷받침하는 金融의 모습도 달라져야 한다. 민간주도 경제체제가 시장원리에 의해 경제를 운용하자는 것이니까 금융메카니즘도 그렇게 따라와 줘야 한다는 주문이다.

金融의 自律化가 바로 그것이다.

매마침 집권당인 民正黨도 이번 總選에서 금융의 자율성 제고를 주요 경제정책공약으로 내걸었다. 우리의 경제현실로 봐서 적절한 정책제시라 할 수 있다. 문제는 방법론이다. 사실 금융의 자율

화방침은 이미 정부가 강조해 오고 있고 또 몇 가지 방안도 나와 실천단계에 있다. 우선 銀行내부경영과 관련된 각종 통제이나 지시사항들이 눈에 띄게 줄어들었다. 그만큼 銀行경영의 자율성이 보장되고 있는 셈이다. 또 연내 정부소유 주식을 일반에게 매각하는 방법으로 1개 市銀을 民營化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 중이기도 하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금융자율화가 은행의 예산이나 하부 조직 인사 등 내부경영에 자율성이 좀 보장된다고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政策, 一般금융區劃

또 銀行長이 자기 판단에 의해 소신껏 與信운영을 할 수 없는 상황 아래에선 단순한 銀行의 민영화만으로 금융이 자율화 됐다고는 말할 수 없다. 金垓成 韓銀 총재가 최근 全經聯이 마련한 간담회에서 밝힌듯이 정책금융의 비중은 전체 금융에서 60%나 차지하고 있으며, 나머지 40%가 일반금융이다.

결국 정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일반기업들이 은행에서 조달할 수 있는 자금의 여유는 40%에 불과한 셈이다. 그래서 항상 자금이 달릴 수 밖에 없다. 금융시장에서 金利가 자금수급조절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경제개발 과정에서 정책금융은 필요악이라지만 꼭 필요한 금액만을 지원하는 방

향으로 해서 과감하게 축소, 현재의 60% 비중에서 4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한다는게 전문가들의 견해다.

이와 함께 정책금융 취급기관과 일반금융 취급기관으로 銀行의 與信업무를 뚜렷이 구획정리할 필요도 있다 하겠다. 産銀 등 국책금융기관이 정책금융을, 市銀은 일반금융을 중점취급케 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을 것이다.

한편 高金利체제를 지속하다 보니 企業의 금융부담만 가중시켜 국제경쟁력을 약화시키고 物價만 부채질하고 있다.

80년 중 上場기업체들이 부담한 금융비용이 1조 5천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기업의 금리부담이 얼마나 과중한가를 알 수 있다. 특히 제조업의 경우 賃金상승에 의한 인건비까지 합친 金融부담은 총 매출액의 5~12.7%나 차지한다.

物價安定 先行을

최근 貿協분석자료에서는 작년을 기준으로 우리의 輸出금융금리는 연 12%인데 경쟁국인 自由中國은 연 10.5%, 우대금리는 우리가 연 19.5%, 自由中國 연 16.2%로 나타나 국제경쟁력 약화의 주요인으로 지적됐다. 物價도 작년에 우리가 도매 38.9%, 소비자 28.7%나 올랐는데 반해 自由中國은 각각 21.6%와 19%에 그쳤다.

金利가 세 기능을 발휘, 기업부담을 줄이고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는 물가의 안정이 선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金融자율화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中央銀行인 韓銀의 獨立性 보장이 급선무이다. 韓銀이 「財務部 南大門支店」으로 통하는 현실에서 금융자율화는 의미가 없다. 銀行의 銀行인 中央銀行이 독립적으로 금융정책을 수행해야 된다는 근거는 뚜렷하다. 정부가 財政赤字 계정의 보전을 發券力에 의존한데서 오는 통화팽창을 막고 정권교체에 따른 급격한 화폐적 교란을 막아 中央銀行이 지속적으로 안정된 금융정책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금융정책의 집행은 금융의 이론과 실무적 기술을 겸비한 중앙은행이 정부와는 독립하여 금융정책을 수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金融자율화가 근본적으로 이뤄지려면 韓銀에 독자적인 예산 및 人事權이 부여되어야 한다. 재무부 업무검사도 회수를 연 1회로 완화하고 국책은행의 업무와 복무에 관한 지침대상에서도 韓銀을 제외시켜 줘야 한다」는 것이 宋基菴 교수(高大)의 말이다.

3. 합리적 稅制운용

昨年 0.6% 超過징수

經濟情勢가 안팎으로 變革을 일으키고

있다. 對內的으로 경제활동의 民間主導의식이 팽배해지고 國外에선 「작은정부」가 강조되고 있다.

變革의 軸은 역시 정부역할의 축소다. 그러나 정부의 기능을 줄여보려는 수단에는 서로 차이가 있다. 그 껍은 美國 등 歐美국가들이 減稅를 기능축소의 바탕으로 삼고 있는데 비해 우리는 稅金만은 論外로 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래서 시대적 조류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稅制만은 별로 변하는 기색을 보이지 않는다.

稅金에 관한 한 「小政府」가 아니라 「大政府」의식이 강하다고나 할까, 空前의 不況期였던 지난해도 우리 정부는 0.6%나 세금(國稅)을 초과징수했다. 물론 油價인상 등에 의한 인플레이의 덕을 본 것이긴 하지만…….

減稅를 통해 租稅의 景氣대책적 기능을 강화해야 할 時點에 오히려 세금을 더 거둔 셈이다.

租稅原論的 입장에선 분명 不況時에는 세율을 낮춰 有效需要를 창출토록 촉구하고 있다. 정부당국도 기회있을 때마다 이러한 原論을 강조한다. 그러나 稅法改正 때마다 口頭禪에 그칠 것도 사실이다. 지난 연말의 稅法改正 때도 그랬다. 경기활성화를 유도하겠다는 경기반동에 가장 민감하게 작용할 수 있는 附價稅率의 조정만은 외면했다. 財政稅目の 40%를 차지하다 보니 역시 인색해진 것이다. 이런 財政需要에 대한 집착 때문에 국민의

稅부담은 줄어줄 줄 모른다. 해마다 소득의 증가분보다 租稅의 증가분이 더 많아진다.

税金증가 所得앞서

71년부터 80년 사이에 우리의 국민총생산(GNP)은 8백15% 증가했지만 租稅는 1천15%나 늘어났다. 조세부담률이 73년 이후(12.5%) 계속 증대, 지난해 18.8%로 높아난 것도 당연하다. 財政에 집착하다 보니 稅制에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게 마련이다. 소득의 逆進性, 무차별적으로 걸리는 間接稅비중의 과다(65%) 등이 그 사례다. 美國의 간접세 비중이 3%라면 우리 稅政의 문제점은 쉽게 이해될 수 있다. 法人稅率만 보더라도 명목세율은 평균 40%로 외국에 비해 별로 높은 수준은 아니다. 그러나 주된세, 방위세 등의 附加稅를 몰다 보면 최고세율은 무려 53%에 이른다.

歐美國가들은 소득에 대한 원천징수로 稅目을 단일화시키고 있다. 캐나다 46%, 덴마크 37%, 벨기에 43% 등이 모두 단일 稅率이다. 附加稅를 징수하는 自由中國도 법인에 대한 최고세율은 44% 선이다. 국내기업들이 節稅에 집착할 만도 한 것이다. 소득세도 우리의 稅金이 얼마나 무거운가를 대변한다. 명목세율 62%에 최고세율은 무려 79%를 기록한다. 1백원의 소득 중 약 80원을 세금으로 내는

꼴이다. 물론 우리나라도 세법상 직·간접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다양한 주세 감면혜택이 기업들에게 돌아간다. 그러나 감면혜택이란 원칙적으로 바른 稅政일 수 없다. 公平課稅라든가 소득의 재분배 기능면에서 보면 정직적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많은 政黨들이 조세의 소득 재분배 기능을 선거공약에서 강조한 것도 이러한 이유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무차별적인 附價稅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 역시 조세의 非效率性 때문이다. 일부 전문가들은 우리의 稅政을 흔히 너무 안이하다고 비판한다. 손쉽게 稅收을 꺾을 수 있는 부문에 집착한다는 뜻이다.

稅收확보에 치우쳐

무차별적인 附價稅는 분명 財政이 위급할 때 손쉽게 씨먹을 수 있는 稅目이다. 사회경제적인 측면에서 근로소득자들을 보호해야 함에도 인식한 것 역시 稅源 포착이 손쉽기 때문이라는 지적을 받는다. 하기에 정부가 매년 팽창예산을 편성하는 자세에서 이미 稅부담완화의 실득력은 잃어질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내년에도 예산팽창에 의한 국민의 稅부담증가는 어쩔 수 없을 것 같다. 정부가 2일 발표한 82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규모를 올해보다 25% 내외의 늘어날 9조 3천억원으로 잠정적

정하고 있으니 말이다. 증가율이 25% 안팎이라고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본예산규모에 국한된 것이고, 내년도 재정형편에 따라선 追更예산을 다시 편성할 수도 있어 그렇게 될 경우 국민부담은 더욱 늘어나게 될 것이다.

여하튼 租稅정책은 稅收확보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이제 기업의 투자의욕 진작을 위한 경기 조절기능 강화와 함께 소득재분배의 기능을 더욱 강화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선 稅政운용을 합리화하며 음성세원을 발굴, 稅부담의 형평을 기하도록 유도해나가야 할 것이다.

4. 中小企業 육성

關心 부족 外面 일쑤

國社國家建設을 목표로 출범한 새共和國의 가장 중요한 당면課題가 경제성장과 산업발전이라면 먼저 中小企業의 安定發展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中小企業은 生産과 雇傭의 증대, 국내 資源의 최대활용 및 地域社會 균형발전에 대한 기여도가 클 뿐만 아니라 국가 産業構造의 저변을 형성하고 있어 중소기업의 안정발전이 國家産業社會발전에 밀거름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중소기업은 국민소비생활과 가

장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어 社會安定帶로서의 역할은 물론 복지국가건설의 礎石이 되고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대기업중심의 開發政策에 밀려 규모의 영세성, 자본구조의 취약, 기술력부족, 거래조건의 불리, 판리능력 미약 등 갖가지 애로점에서 헤어나지 못한채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계속 저하돼 가고 있다. 때마침 이번 총선을 통해 집권당인 民正黨을 비롯한 각 정당들은 한결같이 중소기업보호육성을 다짐하는 政綱·政策을 제시하고 있어 기대를 부풀게 하고 있다. 대기업과의 相互補完關係定立, 자금지원강화, 세제지원강화, 中小企業廳 신설 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같은 公約이나 公言이 없었던 것은 아니고 또 이를 실현하기 위한 關係法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도 아니다. 다만 그동안 각종의 중소기업육성책을 마련해 놓고도 중소기업에 대한 관심부족으로 그 운영을 중소기업의 實益에 보탬이 되는 방향으로 이끌어가지 못했던 것 뿐이다. 그러므로 화려한 육성안보라는 實態를 정확히 파악 이해하고 보다 효율성 있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가려는 의지가 더욱 중요하다.

鑛工業體의 96%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은 79년말 현재,

3만2천 4백59개 업체로서 전체 鐵工業體數의 96.5%를 차지하고 있으며, 從業員數에 있어서는 1백 4만 1천명으로 전체 근로자의 47.6%를 차지하고 있으나 生産類은 전체의 32.6%, 附加價值는 35.7%에 그치고 있다. 이는 지난 63년도의 事業體數 98.5%, 從業員 62.4%, 生産類 56.3%, 附加價值 49.7%에 비해 크게 후퇴한 것일 뿐만 아니라 美國, 西獨, 日本 등의 중소기업비중이 50% 이상에서 漸増하고 있는 현상과는 대조를 이루고 있다.

또한 수출에서는 전체수출액의 30% 이상을 점하고 있으나 수출금융의 受惠難 등 수출환경의 不利로 그 비율이 점차 낮아지고 있으며, 중소기업부문에 대한 投資도 올해의 경우 5백 80억원으로 총예산의 경제개발비중 4.4%에 불과, 지난 해보다 오히려 1%가 감소했는데 日本의 중소기업부문에 대한 투자비율 19.6%에 비하면 무려 4배의 격차를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그동안의 高度成長政策에 따라 주요기 간산업분야를 비롯한 대규모 잠치산업의 건설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른만큼 이제 이를 보완하는 입장에서라도 중소기업의 育成은 시급해졌다. 이제 중소기업의 重要性은 社會政策의인 관점에서보다 産業政策의인 관점에서 재인식돼야 한다.

行政에 連繫性 결여

먼저 중소기업에 대한 財政, 金融, 技術 등 支援行政 상호간의 連繫性이 결여돼 있고 中小企業行政態勢가 비효율적인 점을 감안, 중소기업청을 독립 발족시켜 일관성 있는 중소기업정책을 펴나가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그동안 重化學部門집중 투자에 따른 유희시설증가, 시설중복, 재무구조의 악화 등을 해소하고 기술 및 지식집약적 중소기업개발을 위한 제도적 조치를 마련하는 한편, 專門化 系列化를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중소기업의 존립기반을 안정시켜야 한다.

그리고 중소기업제품 購買促進法 제정, 協同組合 공동사업 기금조성지원, 중소기업부문에 대한 財政投資확대, 法人稅率의 인하로 중소기업자의 기업의욕을 북돋아 줘야 한다. 아울러 새 국회는 중소기업이 産業社會의 經濟的 安定帶로서 중소기업의 안정발전이 바로 국가산업사회 발전에 직결되며 복지국가건설의 지름길이라는 것을 간파해서는 안 될 것이며, 중소기업육성 시책이 과거와 같이 약한 자를 돕는 구제사업과 같은 구호정책이 돼서는 안 됨을 명심해야 하겠다.

5. 農政의 새 方向

農耕地 해마다 줄어

공업화 위주의 經濟成長戰略은 농업과 비농업부문의 성장격차를 심화시켜 놓았다. 농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1년도의 22.9%에서 79년도에는 17.4%로 크게 떨어졌다. 농가인구도 약 4백만명이 감소하여 총인구에 대한 농가인구의 비중이 45.9%에서 28.9%로 줄어들었다. 이러한 産業構造의 변화는 농업부문 종사자의 구성비를 같은 기간에 49.5%에서 34.0%로 축소시켰다.

농업부문 취업인구의 이같은 감소현상은 70년대 중반부터 비롯된 것으로 오랫동안 농업발전의 제약요소가 되어 왔던 과잉인구의 扶養압력과 실업문제가 최근 농촌노동력 부족현상으로 바뀌게 했다. 또한 農耕地를 포함한 농업자본도 생산성이 높은 非農業부문으로 빠져나갔다. 농경지의 경우 면적이 70년 2백 29만 7천 정보였던 것이 79년에는 2백 20만 7천 정으로 약 9만여 정보가 감소, 해마다 1만여 정보씩 줄어든 셈이다.

이와같은 농업자원의 유출은 농업노임을 비롯한 농업자원의 가격을 크게 상승시켜 농업경영의 원금지출을 늘려 놓는 등 營農費를 인상시켜 농가소득 증대의

제약 요인이 되게 했다. 농산물 유통면에 있어선 국민소득증대에 따른 식생활 패턴의 변화에 생산이 단기적으로 대응하지 못해 需給不均衡과 가격불안정의 문제를 발생케 했다.

이와 함께 무역확대에 따른 농산물 수입압력증대는 국내 농업생산기반의 보충과 문제와 풀가 안정이라는 二律背反의인 문제로 진통을 겪게 했다. 이같은 문제들은 그동안 우리의 경제성장이 농업의 확충적 성장없이 급속히 이룩된 공업화 진략에서 연유된 것이다.

工業원료 輸入代替

그러나 우리 농업정책의 최대과제가 主穀의 自給, 農外所得의 증대로 집약되고 농업기능이 국민필수식량을 자급해야 한다는 의미를 넘어 관련 공업원료의 주요부분을 공급하고 공업제품에 대한 안정적인 수요를 창출한다는 뜻에서 소홀히 될 수 없는 것이다. 이같은 기능이 결여됨으로써 식량부족 현상을 비롯해 제조부문에서 원재료의 높은 해외의존도, 상대적으로는 국내시장의 수요창출을 둔화시키는 결과를 빚게 했다.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4차 5개년 계획 기간까지 전체 투용자 규모에 대한 농수산 부문의 투용자 비율은 계획기간이 거듭될수록 떨어지지만 했다. 부족한 식량을 매우기 위해 해마다 막대한 외화

를 써왔다. 더구나 식량을 무기화하는 국제적 추세 속에 식량의 자급달성은 더욱 절실히 되고 있다.

5차 계획기간 중 식량 증산을 위한 각종 사업에 농정당국의 계획대로 투융자된다 해도 매년 3백만섬의 쌀과 4백만~5백만톤의 잡곡을 수입해오지 않을 수 없는 실정이다.

所得격차 등 副作用

이같은 상황 속에 제5공화국이 맡게 될 제5차 5개년 계획기간의 농정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될 막중한 과업을 안고 있다.

80년대의 농업은 새로운 戰略産業으로서 또는 輸入代替産業으로서 균형적으로 개발되어야 하겠다. 수지맞는 농업, 살기에 쾌적한 농촌, 편리한 농사, 그리고 농민들이 농정을 신뢰하는 가운데 안심하고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새로운 농촌 경제사회의 건설이 바람직한 것이다.

이같은 기대 속에 제5공화국에 거는 농정은 綜合開發차원에서 농업과 農村工業을 병행해 개발할 수 있도록 農政의 領域擴張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農村工業의 개발은 農外所得증대 측면에서 촉진되어야 할 것으로 都市工業의 農村入住촉진, 식품가공업, 농업자재생산 등 農村依存型工業의 육성, 農村家內工業의 活性化가 이루어져야겠다. 農業生産을

효율적으로 증대시키기 위해 불필요한 行政下與를 배제하는 것도 지나쳐서는 안 되겠다.

지금까지의 농정운영은 主穀増産이라는 政策目標달성에만 급급, 최일적 지원 방식을 적용함으로써 농가간의 所得隔差 등 부작용을 일으켜 왔고 이로 인해 농가 支援制度 자체에 대한 사회적 불신을 낳기도 했다. 이에 대처, 농민들의 의사와 요구가 정책결정과정에 반영되도록 해야겠다.

요약해서 第5共和國이 맡게 될 80년대 새 농정은 「綜合安保」의 차원에서 국민 食品의 安定的 확보를 위한 국내공급능력의 향상, 農村經濟組織의 再編과 農業生産의 효율화, 農政運用의 合理的 調整을 통한 능률향상, 농촌지역사회의 균형적 개발을 추구하는 綜合開發農政으로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하겠다.

6. 國土개발

分極化현상 뚜렷

國土는 萬인이 평등하게 끌고루 이용할 수 있게 개발해야 한다. 국토는 물과 공기와 같이 누구에게 독점될 수 없으며 人間의 삶을 누리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場所以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國土開發은 국토가 지니고 있는 모든 資源과

潛在力을 최대한 개발해서 國民福祉를 극대화시키는데 그 목적이 주어져야 한다. 어느 곳에 사는 國民이라도 同質의 福祉를 享有할 수 있게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

國土開發計劃이 經濟開發계획과 社會(文化)開發계획과 연관성을 가져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국토는 生産的으로 개발 이용돼야 하고 그 성과는 보다 편리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福祉로 승화돼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國土開發은 경제성만을 최우선한 據點開發로 지역간의 불균형을 초래했다.

龜尾, 蔚山, 昌原 등 京釜간의 中央軸帶를 중심으로한 工業基地건설은 산업과 인구의 대도시 집중화를 유발시켰다. 한정된 투자재원으로 출발한 능률 위주의 點開發戰略을 펴온 제1차 국토종합개발 계획(72~81년)의 결과였다.

서울과 釜山에 전 인구의 29.8%, 도시 인구의 46%가 몰려있으며 총 광공업 생산액의 34%를 점유하고 있다.

불균형의 개발로 인해 分極化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 것이다. 인구집중은 결과적으로 도시의 주택난을 심화시켰고 광공업체의 편중은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요인으로 등장했다. 특히 東南海岸 일대에 건설된 浦項, 馬山, 昌原, 蔚山, 麗川 등의 공업벨트 지역에서는 더욱 두드러진 심화현상을 보이고 있다. 지나친 경제

성위주의 國土開發이 오히려 福祉의 혜택을 저해해 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이 같은 문제는 국토개발계획이 경제개발계획 중심으로 이끌려가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10년을 주기로 한 장기적인 國土開發계획이 5년의 단기성 경제개발계획에 좌우됨으로써 초래되는 모순성의 노정으로 지적된다.

全國은 1日生活圈

이는 올해로 마무리짓게 되는 제1차 국토종합개발계획의 실적(79년말 현재)에서 잘 나타나고 있다. 산업기반부문인 工業用地는 계획 3백44.1km에 실적 94.3%, 공업용수는 1일 7백 39만 4천톤 계획에 90.2%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반해 사회간접시설인 통신, 상하수도, 철도 그리고 농업 및 生活用水를 공급키 위한 多目的 댐 건설실적은 44~90%에 지나지 않고 있다. 경제성의 우선순위에서 주도되고 있는 국토개발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다행히 집권당인 民正黨은 總選공약을 통해 國土開發을 수송·지역개발부문에 중점을 두겠다고 천명했다. 仁川~木浦간의 西海岸 고속도로와 京釜간 고속전철을 건설하여 전국을 1日生活圈화한다는 것이다.

또 현재 추진 중인 光州圈 濟州종합개발 사업을 조기완공하고 嶺東지리산, 속

리산의 지역개발사업을 전개할 방침으로 있어 지역간의 개발불균형에서 오는 부작용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대도시 집중을 해소할 수 있는 요책이 될 수 없다. 보다 적극적인 균형개발이 시급하다.

국토개발 전문가들은 제2차 국토종합개발 계획기간(82~91년) 중에는 개발이익의 확산을 위한 새로운 軸 내지 광역개발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금까지 집중개발된 서울~釜山軸은 그대로 유지하되 大田~光州, 大田~東海軸을 개발, 소위 K字軸으로 지역 및 산업개발을 균등화시키자는 것이다.

이러한 전략은 首都圈의 인구를 大田圈, 太白圈, 釜山圈, 光州圈으로 분산시키는 동시 농촌과 소도시에서 배출되는 인구의 최종 차단지역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기대된다.

國土는 한정돼 있다. 모자란다고 외국에서 수입할 수도 생산할 수도 없는 有

限性を 지니고 있다.

水資源도 活用돼야

때문에 國土가 지니고 있는 資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개발하여 생활의 보급자리로 개발하는데 초점을 두어야 한다. 에너지 등 주요자원의 부족에 대비한 資源절약적 國土開發이 시행돼야겠다.

다행히 우리나라에는 강수량이 연평균 1천 1백 60mm(世界평균치 7백 50mm), 西南海岸에는 干潟地가 65만ha에 달하고 있는 만큼 이를 이용한 水資源개발과 국토확장이 절실하다.

간석지를 농토, 도시, 臨海工團, 목장 등으로 바꾸고 多目的댐의 건설확충으로 각종 用水 및 水力發電을 공급, 고도산업사회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南漢江의 경우 댐 5개 정도가 더 건설되면 水路로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관광자원으로 이용할 수 있다.

<名將名言>

어떠한 軍事行動에서도 補給은 作戰機能을 유지하는 神經系統과 같다.

— 맥아더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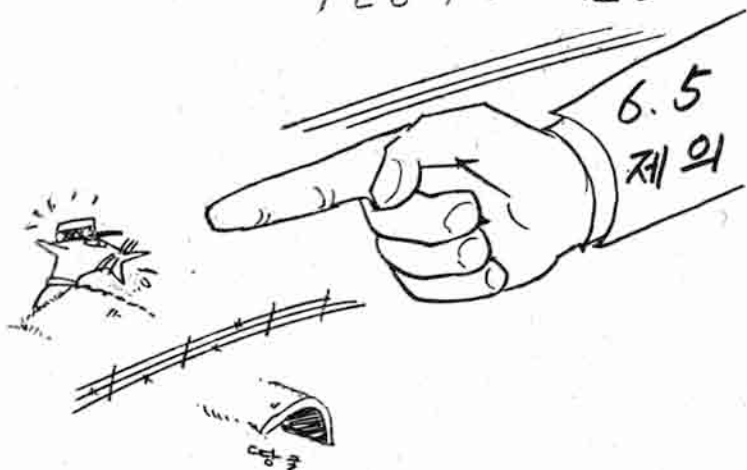
공·군·만·상

鄭 雲 燮

<6.5 제의>

우선 체육, 문화, 학문, 우원, 경제교류부터

북한당국에 - 任 !



공·군·만·상

<태평양시대 열리다>

대통령 각하 아세안 5개국 순방



空 軍 教 理

윤 재 진

만일 敎理에 대하여 研究를 해보려고 하거나, 敎理發展에 直接 責任을 지고 있는 사람이면 누구나 자기 스스로 다음과 같은 質問에 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일에 着手할 수 있게 된다. 즉 “敎理란 무엇인가(概念)?” “무엇을 根本으로 한 것인가(源泉)?” “어떻게 하여야 實行될 수 있는가(展開方向)”이다.

이러한 基本的인 質問에 아무런 어려움이 없이 답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 아마 거의 없다고 생각된다. 이는 교리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고, 보다 根本的인 問題를 다룬 資料가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空軍敎理가 空軍力을 建設하고 運用하며 發展시키기 위한 우리의 모든 活動의 出發點이라는 重要性을 認識한다면, 敎理發展에 직접 責任을 지고 있는 사람은 물론이고, 敎理를 業務遂行上 모든 思考의 準據로 이용하는 空軍構成員 모두가 敎理가 무엇이며, 그 役割이 무엇인가 하는 基本的인 問題를 理解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금까지 敎理 發展을 위한 活動이 미흡했던 이유를 分析해 보면 첫째는, 敎理를 研究發展시키기 위한 永久的인 機構가 없어 活動이 中斷되었으며, 둘째는 교리가 무엇이며 어떤 內容이 포함되어야 하는지 모르거나 서로 다른 意見을 갖고 있어 추진할 수가 없었다고 본다.

多幸히 昨年 空軍大學內에 研究處가 발족됨으로써 敎理發展에 새로운 關心과 活力이 되고 있다. 이제 空軍構成員의 敎理에 關한 理解와 關心을 도모하기 위하여 그간 外國 學術誌에 실렸던 글을 本誌를 통하여 계속 소개할 計劃이며 그 첫번째로 본 論文은 敎理의 概念을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히 限定함으로써 敎理를 발전시키기 위해 보다 有用한 方法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美空軍大學評論(Air Univ Review)에서 관계되는 論文을 모아 작성한 것이다.

<筆者 註>

있다.

1. 空軍敎理의 概念

空軍敎理는 原則이고 眞理이며, 既定事實化된 假定인 동시에 空軍力을 건설하고 運用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指針과 方向을 제시해 주는 科學이다.

空軍敎理는 실제로 두 가지 종류의 根本的 原則을 포함하고 있다. 첫번째는 戰爭의 原則이다. 즉 모든 유형의 戰爭에 적용시키기 위하여 여러 가지 方法으로 증명되어온 原則으로, 集中, 奇襲, 指揮統一, 그리고 保安과 같은 概念이 그러한 原則에 포함되어 있다. 空軍敎理를 구성하는 두번째 原則은 대부분 실제 誇示되었거나 空軍만이 갖고 있는 特性으로부터 유래된 것으로서, 地·海上軍과 다른 空軍力을 建設하고, 組織하고, 運用하기 위한 최상의 方法을 말해주고 있으며, 이러한 原則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아직도 論爭의 대상이 되고 있다.

空軍力의 運用에 관한 根本的인 原則을 든다면 다음과 같다.

- 空軍優勢는 地上, 海上, 空中에서의 전투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수적이다.

- 전략목적은 『敵의 전쟁수행능력을 파괴시킴으로써 적을 패배시킬 수 있다.』

- 空軍力 運營의 최선은 공격이다.

- 空軍力은 指揮의 통일과 統制의 分權化 原則에 따라 최선으로 運用될 수

가. 敎理의 役割

敎理는 어떤 상황에도 적용할 수 있는 準據와 方法을 제공해 주며, 軍 構造, 戰略과 戰術, 訓練, 그리고 機能的 節次 등 모든 면에서 始發點과 基礎가 되고 또한 空軍力의 運用과 發展을 위한 우선순위를 정하는데 指針을 제공한다. 空軍力의 運用 原則 중에 「空中優勢는 다른 업무의 成功的인 수행을 위한 전제조건이다.」라는 것을 예로 든다면, 공중우세를 성취하기 위한 필요성은 空對空 전투기의 필요성을 지시하며, 이것은 다시 항공기의 발전과 획득이라고 하는 두 가지 필요성을 제시해 준다. 특히 우리와 같이 국가의 財政的 資源이 제한된 어려운 경우에서 軍事力을 건설하는데 어디에 먼저 資源을 투자할 것이냐 하는 우선순위는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敎理는 또한 새로운 概念 뿐 아니라 기술적 발전과 政策까지도 試驗하고, 評價하고, 運用하기 위한 準據 또는 健全한 심사수단과 같은 역할을 한다. 예를 들어 만일 指揮統一이라는 概念을 空軍力을 조직하고 運用하기 위한 기본적인 原則으로 채택한다면, 軍을 再編成하려는 새로운 제안이 있을 시 이를 評價하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그 새로운 編成이 指揮統一을 감소시키거나 혹은 보강시키는

가를 결정하게 된다.

넓은 의미에서, 敎理는 空軍力の 編成과 運用에 대한 理論의 배경이 된다. 空軍力이 어떤 것에 强하고 어떠한 것에 無能한가를 說明해 주며 어떤 구조를 갖추고 어떤 方向으로 運用되어야 하는가를 說明해준다. 그러나 그러한 역할을 함에 있어서 敎理는 단지 一般的인 안내를 할 뿐이다. 敎理는 나침반이지 地圖가 아니므로 우리에게 일반적인 방향을 제시할 뿐이지 어떻게 거기에 도달하는가 하는 細部の인 사항은 말해 주지 않는다. 즉 특정상황에 대한 要求를 어떻게 충족시키는가 하는 세부적인 것은 마련해주지 않는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가 敎理라는 용어에 포함시키려는 내용 중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위에서 언급한 범위 내에 포함될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가 흔히 敎理와 혼동하기 쉬운, 그러나 반드시 分離되어야 할 敎理와 관련된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그 중 하나는 「政治的 指針」의 범주 내에 속하고 두번째 것은 「指示方法」이나 「節次」에 속하는 것들이다.

나. 敎理와 國家政策

政治的 指針은 실제로 空軍의 모든 면에 영향을 주며 아주 明確하게 國家活動에 대한 軍의 책임을 부여한다. 政治的

指針은 國家政策과 國家目標로부터 나오며 軍은 이러한 國家政策과 目標를 確實히 이해하고 따라야 하나, 그러한 具體적인 政治的 立場을 敎理로 취급함으로써 추구하는 내용을 흐리게 해서는 안 된다. 敎理를 구성하고 있는 基本的 原則 안에 內在하고 있는 모든 概念은 安定되고, 永續의이며 長期的인 指針을 마련해 줄 수 있는 概念이어야 한다. 敎理를 構成하는 뼈대가 政治的인 決定에 따라서 바뀌어야 한다면 敎理가 確固한 原則으로 構成되어야 한다는 관점과 모순이 된다.

空軍敎理의 내용이 되고 있는 根本的인 眞理는 空軍力을 건설하고 運用하는 최선의 방법을 說明해 준다. 根本的인 眞理는 政策, 目標 그리고 그에 따라 設定된 임무와 무관하게 항상 存在하고 있으며, 空軍의 基調를 이루고 있는 基本的인 原則이 存在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것은 이러한 原則만이 軍의 方向設定 過程에 유일한 指針이라고 주장하는 것과는 다르다. 軍은 政治的 目的을 위하여 存在하며 또 存在하여야 하기 때문에 그러한 軍의 책임이 認識되어 궁극적으로는 政治的인 고려에 따라 指導되어야 한다.

그렇다면 敎理를 國家政策으로부터 분리하는 것이 옳은가? 그렇다. 왜냐하면 空軍力의 발전과 運用에 영향을 미치는, 政治的 배려를 포함한, 外的要素는 계속 변하는 것이기 때문에 空軍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들 자신을 안내해 주는 一定한 標準이나 準據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政治的으로 許容되는 방법이란 계속 바뀌게 마련이고, 바뀌더라도 條件이 허락하는 한 우리가 指向해야 할 최상의 방법에 接近하도록 노력하기 위해서는 空軍指導者들이 空軍을 조직하고 運用하기 위한 최상의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한다. 더우기 敎理가 제공하는 思考準據는 우리가 이상적인 方法으로부터 얼마나 뒤떨어져 있으며 아직도 실행가능한 行動方案이었음을 일깨워 줄 수 있는 것이다.

國家 統帥權者는 軍에 관한 의사결정에 대한 궁극적인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올바른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 軍隊의 能力과 制限을 알아야 한다. 空軍 指導者들은 敎理를 통하여 政府에 대해 「우리는 당신들이 요구하는 대로 하도록 노력할 것이나, 당신은 이것이 空軍力을 조직하고 運用하기 위하여 가장 效率적이고 충분한 方法이 아니란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가 이러한 原則들에 따라서 運營하도록 허락된다면 우리는 더욱 효과적으로 임무를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우리의 필요는 경우에 따라서 統帥權者의 특권에 의해 무시될 수 있으나 그럴 때에는 반드시 充分한 이유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때에 따라 敎理를 마룰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다. 敎理와 節次

敎理에 관한 우리의 노력은 敎理 그 자체를 발전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그것을 본래의 목적대로 實務에 적용시키는 데에 더욱 의의가 있는 것이다. 만일 航空力 運用의 기본을 이루고 있는 敎理의 基本的 原則을 적용시키기 위한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해 놓지 않으면 敎理는 上空論으로 끝나버린다. 그러나 그러한 方法論적인 지시는 航空力의 運用原則에 根據하고 있기는 하나 그 자체가 敎理는 아니며 단지 空軍을 조직하고 훈련하고 유지하며 運用하는 指示이다. 그것은 原則이라기보다 어떤 일을 하는 방법을 말해주는 절차이며, 이러한 節次는 基本的 原則을 수행하는데 있어 누가 어떤 과정을 따라야 하는가를 지시한다.

어디까지가 原則이고 어디서부터 節次인지를 分明히 구별하기란 어려운 일이나 一般的인 意味에서 空軍力이 무엇을 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은 原則이고 이러한 原則을 어떻게 수행하는가 하는 것들은 節次이다. 다시 말해서 航空力으로서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상대적으로 고정되어 있는 반면에 그것을 수행하는 방법은 자주 바뀐다. 空中優勢의 確保, 地上軍을 위한 효과적 近接支援, 그리고 運用되는 모든 부대를 위한 統一된 指揮

體制 등과 같은 고려사항 등은 制限된 戰爭에서 空軍力의 運用을 위한 原則이며 이러한 原則을 實行으로 옮기는 行動方式은 節次의 範疇에 속한다.

우리는 왜 이 節次를 敎理의 일부분으로 생각해서는 안 되는가 하는 이유는, 節次는 우선 敎理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時間에 대한 永久性과 일반적인 眞理가 결여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節次는 敎理로부터 유도되긴 했으나 一時的인 政治的, 技術的 고려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이러한 節次的인 指示는 空軍의 效果的인 運用과 組織을 위해 필수적이다. 만일 原則을 실행에 옮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면 敎理는 별 가치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節次를 敎理 속에 포함시키는 것은 요점을 혼동시키게 된다. 原理, 節次, 그리고 政治的 政策, 이 세 가지 要素간의 상호관계를 이해하기 위하여, 우리는 敎理가 제공하는 가장 좋은 길을 무시해버릴 수도 있는 政治的인 고려나 原則을 적용하는 방법은 변할 수도 있으나, 敎理를 구성하고 있는 基本 原則은 시간을 초월하는 永久性이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2. 敎理의 根源

敎理는 理論, 技術 그리고 歷史的 經驗

의 세 가지 源頭에서부터 발전된 것이다.

가. 理 論

經驗에 의해 實驗되지 않은 법칙은 實質과 基本이 결핍되어 있으며, 理論이 결여된 經驗은 다가오는 變化에 대하여 적절히 대처해 나가지 못한다.

우리의 空軍과 航空力에 관한 概念은 過去의 經驗이 새로운 次元의 航空戰 遂行에 적합지 않다고 믿는 창의력있는 이론가들에 의해서 생겨났다. Douhet, Mitchell, Treuchard 그리고 그들의 협력자들이 航空力에 대한 그들의 理論을 說明하고 그것을 지지하는 敎理를 발전시키기 始作했을 때, 그들은 1次大戰에서 航空力이 무엇을 했는가에다 根據를 둔 것이 아니라 만일 적절히 발전되고 운용되었다면 航空力이 무엇을 할 수 있었는가 하는 그들의 해석에 중점을 두었다.

분명히 오늘날의 空軍은 그 사람들에게 많은 빛을 지고 있다. 그들은 空軍의 存在에 대한 理論的 根據를 제시했으며 空軍을 조직하고, 통제하며, 운용하는 더욱 실용적인 節次에 대한 방향 감각을 주었고, 空軍을 위해 일하는 모든 이들이 未來를 보도록 고무시켜 그들의 짧은 안목의 限界를 넘어 멀리 볼 수 있게 하였다. 우리는 아직도 이러한 性品과 未來의 감각을 가진 사람이 필요하다. 미래를 指向하려는 계속적인 노력이 없다면

軍隊는 영원히 過去나 現在 속에서 태어날 수 없을 것이며, 과거의 전쟁에 대해 해 싸울 준비는 되어 있을지 몰라도 將次戰에 대해서는 전혀 무방비 상태가 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敎理를 전적으로 理論的 基本에만 의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가 있다. 敎理는 現在의 戰爭을 수행가능케 할 뿐만 아니라, 未來의 戰爭을 준비하기 위한 적절한 방향을 제시해 주어야 한다. 敎理는 一般的 原則으로 되어 있으나 原則으로서 實効性이 없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理想에만 根據를 둔 敎理는 만일 다음 전쟁이 발발할 때까지 技術이 따라가지 못하면 위험하다.

나. 技術(Technology)

技術과 敎理 사이의 정확한 관계를 결정하는 것은 계란이 먼저냐, 닭이 먼저냐 라는 수수께끼를 풀려고 노력하는 것과 비슷하다. 1920年代와 30年代의 항공 이론가들에 대한 평가 중의 하나는 그들 敎理의 대부분이 기술을 훨씬 앞질렀다는 것이다. 반대로 이러한 평가는 技術이 敎理를 낳게 하고, 敎理는 모든 技術의 發展과 함께 변화할 것이라는 論理는 永久性인 진리가 못된다. 어떤 의미에선 敎理는 技術을 이끌어 주어야 한다. 연구와 발전에 대한 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基本原理들을, 보다 낫

은 새로운 武器體系의 발전을 위한 指針으로 사용하여야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러한 원칙은 실효를 거두게 된다. 전투 지역에서 空·地作戰을 수행하기 위한 空中優勢獲得의 필요성 인식은 분명히 공대공 전투기 개발의 배경이 되는 推進要素의 하나이며, 이러한 상황은 敎理와 技術間의 관계의 一側面을 보여준다. 따라서 대부분의 연구와 발전은 敎理에 의해 발생한 요구에서 起因된다.

하지만 모든 기술적 발전이 敎理에 의해 賦課된 요구의 결과만은 아니며, 기술적 발전은 특정 軍事指針과는 관계없이 일어난다(예를 들자면, 核爆彈의 발전은 軍에서 유래한 것이 아니라, 순수한 과학자들에 의한 실험과 노력에서 생겨났다.). 이러한 경우 航空力 運用原則에 대한 이해는 새로운 체계의 潛在의 효과와 有用性を 평가할 수 있는 넓은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다.

결국 技術의 革新이 敎理의 變化나 심지어 새로운 敎理의 확립을 강요하는 때가 있을 수 있으며, 발명과 그 결과로 일어나는 항공 장비의 발전은 그 적절한 예이다. 전쟁이 3次元으로 확대됨에 따라 항공기는 군사이론가로 하여금 經驗, 戰爭原理, 그리고 새로운 기술적 특성으로부터 신무기의 效率의 運用을 제시해주는 敎理를 추출하게끔 한다.

敎理와 技術間에 적절한 均衡을 취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그 사이의 경

계설에는 함정이 있다. 주어진 敎理에 집착하는 것은 技術의 進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兩次大戰 사이에 美陸軍 航空隊의 전략 목적에 대한 敎理는 B-17과 B-19에 대한 연구와 발전을 추진시켰으며, 반대로 독일 공군의 地上 突破戰에 參加한 戰略爆撃機 發展을 阻害시켰고, 이것은 對英國戰과 蘇聯 侵攻에서의 결정적인 실패 원인이 되었다.

敎理의 여러 가지 側面을 고려할 때 간단한 대답은 있을 수 없다. 만일 군이 靜的인 敎理를 새로운 체계의 평가와 발전을 위한 唯一한 기본으로서 사용한다면, 「새롭다」는 것은 단지 「개선하는 것」을 뜻하는 것에 지나지 않으며, 概念的 思考와 연구 발전은 현실에서 벗어나기 어렵게 된다.

1次大戰後에 프랑스는 防禦的 敎理에 의존함으로써, 육군 고위장교들이 탱크를 步兵部隊에 分散시키는 것보다 集團으로 운용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것을 이해 못하게 했으며, 반대로 독일군은 방어에 얽매이지 않고, 집단으로 운영하는 代替方案을 모색, 새로운 Idea를 받아들이는 데 인색하지 않았다.

한편, 새로운 무기 개발에 따라서 敎理를 변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너무 성급히 敎理를 포기하거나, 무시할 우려가 있으며, 그 결과, 안정성을 잃게 되고, 指針마저 상실케 마련이다. 공군

력을 運用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발전은 敎理보다는 節次에 영향을 주며, 原則 自體보다는 그 施行方法에 영향을 준다고 볼 수 있다. 空中優勢를 획득하기 위해서 攻勢的 制空作戰의 중요성은 地對空 미사일이나 對空砲 등 對空火器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변함없는 原則으로 남아 있으나, 攻擊機의 손실률을 줄이기 위한 電子戰 또는 방어제압 등의 攻勢的 制空作戰에 수반되는 節次의 변화를 가져왔다.

技術과 敎理의 관계를 밝히려면 먼저 우리는 새로운 技術發展이 敎理와 一致하는가를 검토하는데서부터 시작해야 하며 필요하다면 기술발전에 따라서 敎理를 조정하는 동시에, 敎理로 하여금 현존하는 체계를 運用할 뿐 아니라 새로운 체계의 발전을 이끌어 주도록 함으로써 敎理 그 자체나 敎理를 발전시키는 우리의 행동양식이 너무 硬直性을 띠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다. 歷史的 經驗(Historical Experience)

軍事敎理는 未來의 作戰을 위해서, 豫見과 經驗으로부터 導出된 確實한 指針을 具備하여야 한다.

敎理가 過去의 經驗에서 抽出되어야 한다는 것은 무엇을 뜻하는가?

敎理를 이루고 있는 根本的 原則은 經

驗에 基礎를 두어야 妥當性을 갖는다. 航空力으로 무엇을 해왔으며, 무엇을 할 수 없었는가를 알지 못한다면, 敎理는 純全히 假說과 空軍力의 能力에 대한 推測으로부터 導出될 수 밖에 없다. 과거의 경험은 교리를 위한 실질적 내용을 提供하며, 假說뿐 아니라 推測에 대한 證明이 된다. 즉 과거의 경험은 교리를 다만 이론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만들어 준다.

반대로 과거에 대한 지나친 執着은 敎理를 시대에 뒤떨어지게 만든다. 普·佛戰爭 후에 프랑스 軍事理論家들은 그들의 恥辱의인 패배를 反轉시킬 수 있는 方法을 예전의 로마 시대에서 찾았다. 프랑스의 理論家들은 옛 로마帝國의 승리를 공세적 행동에 대한 신뢰와 연관된 용기와 활력의 결과로 해석함으로써 集團依存의 공세적 이론과 우세한 이론적 배경을 열렬히 지지하는 기습공세(Offensive à outrance)교리를 推論해 냈다. 프랑스陸軍은 이 敎理에 步調를 맞추고 그 당시의 기술적 발전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서, 固着된 步兵, 騎兵部隊 그리고 劣勢인 기관총을 가지고 1914년에 전쟁을 시작했다. 그 결과는 戰爭開戰初期에서부터 패배에 가까왔고 向後 4년간에 걸쳐 프랑스 남성 인구의 大量戰死라는 結果로 나타났다.

이 말은 과거를 무시한다는 뜻이 아니다. 따라서 현재의 변화된 조건에 대한

명확한 認識과 客觀性을 가지고서 과거에 접근해야 할 필요가 있다. 航空力의 建設과 運用에 대한 적절한 원칙을 導出하기 위하여, 과거 경험에 대한 評價는 細部の이고, 客觀的이어야 하며, 또 실제로 무엇이 왜 일어났는가를 이해하고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해서 敎理는 채택되었으나 실제로 증명되지 않는 形式的口號보다는 어떤 特定狀況에서 航空力이 무엇을 했는가, 무엇을 하지 않았는가 하는 비판적 분석에 根據하여야 한다.

3. 敎理의 展開方向 (What to do with doctrine)

가장 좋은 敎理라 할지라도, 그것이 잘 알려지지 않고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가치가 없다.

敎理는 理解되어야 하고, 妥當性을 가지며, 行動으로 實踐되어야 한다는 세 가지 基準을 충족시켜야 그 가치를 가질 수 있다. 우리는 敎理가 어떻게 이러한 기준을 충족시킬 수 있는가 생각해 보기로 한다.

가. 敎理의 理解

有益한 敎理를 위한 이 세 가지 요구에 優先을 賦與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모든

것이 다 重要性을 갖는다. 그러나 敎理를 이해하기 위한 첫 단계는 말할 것도 없이 敎理가 무엇이고 또 어떤 役割을 하는 가를 아는 것이다. 현재 敎理란 단어는 너무 광범위하여 指針과 理論의 배경을 제공하기보다는 概念, 原理와 實行 그리고 政策 등이 서로 혼동되어 결국 우리로 하여금 敎理를 멀리하게 만들었다. 敎理가 航空力 전설과 運用의 基本이 되는 根本的 原則이어야 한다는 것을 아는 것만으로 문제는 해결되지 않으며 이 根本的 原則이 무엇인가에 대한 意見을 一致시켜야 한다.

먼저 敎理를 構成하는 基本原則을 결정 한 후에 그 原則을 글로 작성해야 하며, 이것은 단지 팜플렛이나 敎範을 만들어내고 모두에게 그것을 '읽도록' 제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읽는 것은 이해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이며, 교리에서 도출된 節次뿐 아니라 敎理 그 자체도 研究되고, 分析되고, 討論되어야 한다.

敎理는 결국 空軍의 모든 것을 위한 基本이어야 하며 모든 構成員은 그들 자신들의 業務의 기본으로 認識되어야 하기 때문에 敎理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해야 할 필요가 있다. 敎理에 대한 敎育은 入隊할 때부터 始作되어야 하며 空軍敎理의 研究는 모든 專門軍事敎育 교과과정의 중요한 부분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敎育을 통해 우리는 이 原則들은 어디서

유래했는가? 그것은 과거에 어떻게 증명되어 왔는가? 무엇이 그 原則들을 現在와 未來에 있어서 여전히 유효하게 만드는가? 연합, 통합작전이 이러한 原則의 수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등의 疑問에 대한 研究를 하여야 한다.

우리는 敎理에 대한 열성적인 토론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 하겠다. 특히 지금까지 공군에서 발간하는 空軍誌, 空軍評論에 敎理에 대한 寄稿가 거의 없었다고 하는 것은 敎理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어느 정도인가를 말해준다. 敎理에 대한 관심을 고무시키기 위한 한 가지 방법은 사람들에게 敎理가 어떻게 형성되고 시행되는가를 알림으로써 敎理를 직접 담당하는 參謀뿐만 아니라 모든 人的 資源을 개발하는 것이다. 또 한 가지 방법은 전 空軍을 통해 비공식적인(그리고 자발적인) 전문적 연구집단을 복돋우는 것이며, 현재 空軍本部의 企劃管理參謀部는 그러한 집단 또는 개인 연구를 종합, 전파할뿐만 아니라 課業까지 부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敎理에 의해서 오늘의 空軍을 생각해야 한다.

나. 敎理의 有效性 維持

敎理는 有用하고, 健全하고, 基礎가 튼튼해야 한다. 즉 한 마디로 말해서 진실되어야 한다. 우리 敎理를 구성하는

原則의 有效性을 보장하기 위한 한 가지 중요한 방법은 그 原則들을 광범위한 歷史的 經驗의 客觀的 分析에 기초를 두는 것이며, 그러한 評價에 의해서만이 우리는 各 戰爭마다 特有한 要素와 條件을 식별하고 그럼으로써 階段的인 節次에서 永續的인 原則을 구분해 낼 수 있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敎理의 歷史的 基本을 確固히 하기 위해 空軍內에 敎理의 발전, 시행을 담당하는 책임자와 歷史研究 부서간의 밀접한 협조관계를 確立시켜야 할 한다. 이러한 밀접한 협조는 歷史的 共同體인 空軍에 明確하고 더욱 特定的이며 實用的인 齎점을 제공하여 敎理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가치있는 分析評價를 할 수 있게 할 뿐 아니라, 역사가들에게 敎理發展에 도움이 되는 역사적 분석에 관한 指針을 주게 된다.

敎理를 有效化하고 시행하는 기본으로 역사를 사용함에 있어서, 우리는 과거의 교훈을 너무 쉽게 받아들이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역사란 한 세대의 진정한 의미를 들어 내주고 또한 다음 세대에도 적용될 수 있는 명확한 의미를 주는 경우는 드물다. 오히려 역사는 유사한 상황에서 여러 종류의 접근 방법에 대한 감각을 제공해 준다. 역사를 이용하여 敎理를 발전시키고자 할 때 현재와 미래에 접근하는 방법을 위하여 과거 역사가 제공하는 것은 指針, 一般的 傾向 및 하나의 提案이라는 것을 알고 課題에

접근해야 한다.

역사는 變化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가, 즉 현재와 미래에 어떤 일이 일어나며 어떤 패턴으로 반복되는가를 말해주어야 한다. 이러한 접근방법은 과거에 대한 맹목적인 집착이 아닌 과거의 事件으로부터 도출된 指針(現在와 未來의 特殊한 조건에 대한 提案)에 대한 상상적인 평가와 知的인 分析을 하게 하며, 역사를 통해 우리는 理論, 技術開發, 그리고 새로운 가능성에 대한 문제를 인식할 수 있다.

敎理와 敎理의 시행은 歷史에 대해 종속적이다. 歷史는 통찰력이 있는 사람에게 基本原則과 그것을 효과적으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일시적인 방법을 명확히 구분할 수 있는 넓은 관점을 가져다 준다. 상상력의 적용(과거로부터 제안을 받아들여 그것을 현재와 미래에 적용시키는 능력)은 原則의 성공적 實踐에 핵심이 되고 있는 한편, 歷史에 대한 分析的 접근은 原則과 節次를 더욱 완전하고 정확하게 이해토록 인도해 준다. 그러나 有效性은 과거 경험 以上の 것에서 유래한다. 敎理는 經驗, 技術發展, 그리고 假說의 綜合이어야 하므로 우리는 이러한 各 要素의 不斷한 再評價에 의해서만 그 적용가능 여부를 알 수 있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敎理와 敎理를 시행하는 節次가 시대에 뒤떨어진 두단으로 전락하지 않게 할 수 있다.

다. 敎理의 시행

실제 사용되지 않는 敎理는 存在價值가 없다. 만일 敎理를 구성하고 있는 原則들이 學問的 흥미 이상의 것으로 되기를 원한다면 行動으로 옮겨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敎理가 제공하는 一般의 인지점을 특정한 指示文으로 전환시켜야 한다.

이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는 많은 일이 뒤따른다. 그것은 航空力에 관한 原則에 대한 확실한 이해, 軍隊(특히 空軍)에 대한 歷史的 經驗에 대한 인식, 현재 진행 중인 技術開發과 傾向에 대한 이해, 國家政策에 대한 지식, 그리고 이러한 모든 요소를 行動에 옮길 수 있는 節次로 종합하는 능력을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거기에 더해져 空軍은 이러한 節次들이 실제로 敎理的 原則에서 유래한 것이며, 그것들이 적용되는 모든 경우에 갈등을 갖지 않도록 敎理 시행과정에서 中央集權의인 方向提示를 하여야 한다.

敎理를 시행하는데 있어서, 經驗을 무시하고 敎理의 再分析과 시행을 輕視하는 것은 위험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敎理와 그것을 시행하는 節次는 모든 분

쟁에 對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할 뿐 아니라 모든 軍事作戰의 연합, 통합적 性格과 타군, 우군과의 관계에 역점을 두어 명확하게 수립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航空力이 무엇인지를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관념을 우리들 자신으로부터 제지시켜야 한다. 융통성이 航空力 고유의 특성이며 가장 큰 資產이라고 하는 전제 때문에 航空力의 限界를 깨닫지 못해서는 안 된다. 어떤 특정한 軍이 특정한 임무를 수행하는데 가장 적합하다는 이유에서보다는 政治的인 운동으로 그들의 存在를 정당화시키고, 국방예산 중 그들의 몫을 증대시키기 위하여 임무와 역할을 채택하고 받아들이다면 그 特定한 軍뿐만 아니라 나라와 국민까지 해치는 처사이다. 空軍本部에서 敎理發展을 담당하는 대부분의 장교들의 문제와 고민이 바로 敎理가 무엇인지 모른다는 것이라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오직 한 가지 방법은 敎理의 내용과 목적을 더욱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다. 만일 空軍의 發展과 運用이 모든 구성원에 의해 잘 이해되고 활용되는 敎理에 굳건히 기초를 둔다면, 우리의 최대 목표인 「必勝의 制空態勢 確立」으로 가는 길을 알게 될 것이라고 믿는다.

×

×

×

蘇聯 航空支援의 發達

최 양 수 譯

제병연합부대작전을 성공시키는데 필수적인 두 가지의 요소는 기동성 있는 부대에 대한 항공지원과 지상기지 防空이다. 항공지원은 적 지상군부대에 고도로 기동성 있는 화력투하 수단을 제공하여 준다. 다시 말해서 육군방공은 적의 지상공격 항공부대에 대하여 우군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

소련군은 이와같은 두 가지 능력을 착실하게 개발하여 왔으며, 구라파의 전시작전을 위하여 소련의 교리상의 개념에 적합하도록 적응하여 왔다.

이 기사에서는 지상군에 대한 소련항공지원의 발달을 취급하였으며, 다음 기사에서는 기동성 있는 SAM 및 AAA를 포함하여 소련의 전술방공의 개발에 대하여 연구할 것이다.

이와같은 두 가지의 주요한 능력 중의 하나가 특수 요구에 따라 개발되었으며

각 능력은 서로를 보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소련의 이와같은 각 능력을 완전하게 알고 있음으로써 구라파의 전장에서 소련의 전반적인 전투에 대한 잠재력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直接支援任務—戰時經驗 (1941~45)

항공직접지원을 위한 소련개념의 기원 및 개발은 1941~45년 동안에 발생하였던 Great Patriotic War 기간 중에 발생 및 시작되었다. 이 기간 중에 380만 횟수의 전투 Sortie로부터 발전된 소련 교리는 기본적인 골격에 불과하였으며 후에 여러 가지로 수행되어 왔다.

소련 지상군에 대한 항공 직접지원임무는 VVS(군항공대)의 기본적인 임무였다. 소련의 권위있는 교리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공군 및 지상군간의 관계에 관한 소련의 연구는 "VVS의 작전술의 개발에 대한 무력전의 특성의 영향"이라는 주제로서 시작되었다. 그러나 서방국가의 군사 전문가들의 생각은 항상 다른 주제, 즉 지상전에 대한 공군력의 영향을 특색으로 하여 왔다.

소련 전문가들의 말에 의하면, 소련의 일반적인 항공지원 방식의 종류는 다음과 같은 별개의 4가지 임무, 즉

- Air defense cover
- Reconnaissance
- Air accompaniment
- Support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한다.

Aviation accompaniment는 돌파된 적 방어선을 훨씬 넘어선 지역에서 작전을 하는 한편, 이 돌파작전(Breakthrough)을 이용하고 있는 우군을 지원하면서 공대지 무기를 투하함을 뜻하며, Aviation Support는 전선 근처에 있는 우군의 상당히 가까운 지역에 공대지 무기를 투하함을 뜻하는 것이다. 소련 당국자들은 서방에서 사용하고 있는 낱말인 "Close Air Support(근접항공지원)"이나 또는 "Interdiction(후방차단)"이라

는 말은 언제나 사용하지 않는다.

Great Patriotic war 기간 중에 항공지원임무는 소련의 전술 Sortie 중 가장 큰 몫을 하였다. 항공지원 임무는 공격작전 중 비행한 모든 Sortie 중 46.5%에 달하였으며 기타 3개 임무는 보다 소규모로 비행을 하였다.

전선공군(Frontal Aviation)은 정찰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그의 Sortie 중 11%만을 비행하였다. Air defense cover 및 Air accompaniment 임무에 대한 요구는 전쟁의 양상에 따라 변하였다.

1941~42년 동안에는 독일군의 집중적인 공중공격을 반격하기 위하여 부대에 대한 공중엄호가 필요하였다. 소련은 그 후 여러 해 동안 전투기의 상당한 수적인 우세를 유지하였으며, 따라서 공중엄호는 전과 같이 크게 우선권을 두지 않은 반면에, Air accompaniment 임무는 그 횟수가 증가되었다.

1942년 5월 전에는 소련항공부대는 분산되어 있었으며 중앙 지휘권이 결핍되어 있었다. 항공사단이 가장 통제하기가 곤란하였으며 비효과적이었다. 직접지원을 위한 계획의 범위는 인접전술사항 이

상으로 확대되지 않았으며, 군사령관은 다른 사령관의 작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그들 자신의 항공부대 중 어느 부대를 파견하기를 꺼려하였다.

1942년 5월에 편제를 과감하게 재조직하여 지상군 사령관 산하에 예속된 항공기들을 새로이 창설된 Air army에 예속하도록 하였다. Air army는 전선 사령관(Front commander)에 직접 예속되어 있었으며, 사령부 및 참모기구를 갖고 있었다. 따라서, 최초 기간 동안에는 충분한 협조가 이루어졌고 지상군에 대한 효과적인 항공지원이 가능하였다.

이와같은 조직은 전쟁기간 중에도 똑같은 형태로 유지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그의 기본적인 Form이 계속되고 있다. 각각 특수임무(전투기, 전투-폭격기, 또는 폭격기)를 수행하는 여러 항공사단에는 Air army가 각각 있다.

각 항공사단은 언제나 42대의 단좌형(3×12전투기 및 6대의 훈련기)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다. 부대별 모든 형태에 있어서는, 3개 대대가 1개 연대를 구성하고 3개 비행중대가 1개 대대를 구성한다. 전쟁기간 중에 전투기 및 전투폭격기 형태의 기본 전투부대는 분대(Pair)였으

며, 폭격기의 경우는 3대. 비행이 기본 전투부대였고 정찰기는 언제나 1대 또는 여러 개의 분대(Pair)로 비행을 하였다.

소련은 적군에 비하여 보다 확실히 수적으로 우세함을 유지하도록 강조하여 왔다(소련공군은 1943년에는 8,290~2,980 또는 2.8-1로 1944년에는 11,800~2,800 또는 4.2-1로 수적으로 우세하다고 소련당국자들은 주장하고 있다.), 이와같은 목적으로, 소련은 전투기와 폭격기의 많은 대수를 주축으로, 집중을 하였다.

소련의 약 8,700대의 항공기가 1944년의 Beloru-ssign 작전에서 공격을 지원하였으며, 약 7,500대의 소련전투기가 Berlin에 대한 최종공격에 참여하였다. 현재까지 소련의 Planner들은 적 공군을 수적으로 능가하는 데에 큰 비중을 두어 오고 있다.

점점 증가하고 있는 하중(Payloads)을 보다 장거리까지 운반할 수 있는 항공기의 능력이 전쟁 동안에 계속 향상되었다. VVS의 항공기가 운반할 수 있는 총 무장능력은 전쟁의 초기 동안에 2배로 증가하였다. 이와같은 추세는 1960년대 후반과 1970년대 초에 급진적으로 증가

○ 航空 · 軍事 · 科學 ○

되었으며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이전의 Luftwaffe사령관과 다른 관측자들은 소련이 갖고 있는 명확한 취약점—고리상의 개념에 대하여 엄격하고 완고하게 신뢰하고 있으며, 아주 고위층을 제외하고는 모든 고위층들이 이니시아티브가 역시 결핍된—을 주시하였다.

소련 조종사들은 자기비행 편대의 유지를 강조하는 추세를 보였으며 기동법을 거의 변화시키지 않았다. 소련 조종사와 공군 Planner들이 전술적 유연성에 대한 재간을 갖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었다. 이와같은 재간을 갖는 일은 전쟁도중에 Radio Receiver가 대부분의 전투기에 장치된 후에 발생되었다. 그러나 지상에서 비행요원과 대화를 하는 일은 부대 지휘관들에게만 허용되었다.

○ 제트 항공기로 전환 (1945~50)

소련에 대해서, 전에 없었던 위협을 주는, 원자폭탄을 미국이 갖고 있음을 소련의 Leader들은 알고 있었다. Stalin과 Malenkov는 전략공격 및 방어용 무

기를 개발하는데 헌신하였다. 따라서 그들은 고고도에서 미국 폭격기를 요격하기에 가장 적합한 제트 전투기로 VVS 부대를 무장시켰다.

소련군의 생각은 IL-2인 기습공격 항공기에 대한 제트후계기가 불필요하다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소련에는 MiG-15가 대량으로 소개되었으며 Yak-17, Yak-23 및 La-15와 같은 항공기는 물론, 다른 제트 전투기들이 제작되었다. 전쟁 후 15년 동안에 나타났던 유일한 대지공격용 항공기는 IL-28경량 폭격기로서, 프로펠러식 항공기인 Pe-2 및 Po-2기를 대체하였다.

○ 다시 공중전으로—한국전 (1950~53)

소련은 한국전에서 직접 전투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좋은 위치에 있었다. 서방의 제반 보급에 의하면 소련의 항공요원(Airman)들은 1951년 초까지는, Manchuria에서 중공군부대와 3개월간씩 교대로 근무하였으며 그 후부터는 소련의 전체 연대가 중공군의 항공사단(Air division)에 예속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중공인민공군(CPAF)는 소련의 VVS 부대의 확장에 따라 대규모로 군무를 하였다고 한다.

1941~45간의 경험과 면밀하게 대조하여 볼 때, 소련과 그의 동맹국들은 한국전에서 對地공격에 역점을 두지 않았었다. 주적집지원임무는 Cover 임무였으며 이 임무는 아마도 모든 비행 Sortie 중 적어도 4/5(80%)에 달하였을 것이다. 소련, 중공 및 북괴 조종사들은 일부 정찰비행을 하였으며, 이는 전체 Sortie 중 10%에 불과했을 것이다.

Aviation Support 및 Accompaniment 전술은 거의 사용하지 않았다. 1대 이상의 항공기가 참가한, 적의 대지공격 작전에 대한 특수한 예는 극히 드물다. 미군에게는 "Bedcheek Charlies"라고 알려진 Po-2 쌍엽기 1대가 간혹 미군 집결지역에 폭격을 하였으나, 실제적인 위협 이상으로 귀찮은 존재였다.

이와같은 항공작전의 수행은 Moscow의 고위층의 결정에 따라 수행되었음이 틀림없다. 소련은 분명히 미군 및 시설물에 대한 공격을 하여 불필요하게 미군을 자극하기를 원치 않았다. 그 대신 제프기 간에 공대공전투에 대한 교환을 배

우는데 전쟁을 이용하였으며 이와같은 교환은 새로이 창설된 Pvostrany(본토방공군)와 전선공군에 이용하였다.

소련은 1941~45동안의 기간에서는 대지공격작전의 값진 경험을 하였으며, 한국전에서는 Aviation cover에 이용할 수 있는 공대공 작전의 경험을 하였다. 미공군 조종사들은 30가지 형태의 다른 적 전투기동방향을 관측하였으며, 그 중 상당수가 8대 또는 그 이상의 MiG기 편대를 필요로 하였으며, 이와같은 기동방법 중의 일부, 특히 "Uppercut" 기동방법이나 "Staircase" 기동법과 같은 기동법은 Great Patriotic war에서 이원된 기동법 같이 보인다.

Kruschev시대 — 직접지원에서 소극적 발전(1953~64)

Kruschev가 지배하였던 여러 해 동안의 분위기에서는 직접지원항공을 주창하는 주창자들은 거의 더 이상 호의적인 반응을 받지 못하였다. 소련의 군사전문가들의 생각은 전략적 공격 및 방어에 집중된 상태였었다.

소련의 Planner들은 지상군의 인력을

축소시키고, 전략 및 전술 미사일 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하여, NATO의 「핵무기」에 대한 대량보복(Massive Retaliation)에 교리의 반응을 보였다. 이 시대에 가장 특색이 있었던 주요한 조직적인 변화는 1960년에 독립부대로서 전략 로케트군(SRF)이 창설된 것이었다.

소련의 항공기술은 계속 서방의 항공기술보다 뒤떨어져 있었다. 기체, 엔진, 전자장비 및 무기면에서의 기술적인 Gap은 아주 넓었었다. 그 결과로써 소련의 대지공격용 항공기의 하중(Payloads)은 항공기의 이륙 중량 중 극소량(약 5~15%)에 불과하였으며, 항공기의 전투행동 반경은 아주 제한된 상태였다.

전선공군의 주 임무는 방공이었으며 이 부대는 대부분이 알맞게 무장을 하였다. Mach 2인 MiG-21이나, 최초로 개발된 항공 미사일과 같은 그 당시의 소련의 기술적인 발전은 대지공격임무보다는 방공임무에 훨씬 더 많이 이용되었다. 반면에 전선공군의 대지공격능력은 인상적이 못된 상태였었다.

1959년에 Su-7 Fitter A가 출현하였으며, Fitter A의 실용수명(Service life)의 초기 때부터 항속거리/하중능력

이 결핍되어 있었다. Yak-28 Brewer기는 대략 1962년에 출현하였으며, 미군의 F-4(당시의 작전부대에 취역)와 같은 항공기가 나옴으로써 Yak-28은 성능면에서 확실히 뒤지게 되었다.

Krushev 재직기간 중에는 소련의 전선공군은 Support 및 Accompaniment 임무를 수행하기에 대체적으로 부적합한 항공기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와같은 사실은 Krushev 정권이 재래식 능력에 대하여 등한시한 부산물이었을 것이다.

1965년 1월의 Red Star지에 실린 특종기사는 어리석은 계획에 따라 군이 회생되어 왔음을 환기시키면서 Krushev와 그의 정책에 대하여 험랄한 비난을 하였다. VVS가 4가지의 기본적인 모든 직접지원임무를 알맞게 수행할 수 있는 항공기를 갖기까지에는 여러 해 이상이 경과하였을 것이다.

○ 최신군으로의 발전(1965—현재)

1960년대 중반에 들어서면서부터 Brezhnev 정권은 소련의 재래식군을 재인식하게 되었으며, 그때부터 재래식군은

새로운 장비를 인수받기 시작하였다. 고위층의 결정에 따라 Su-17, Su-19, MiG-27 및 Mi-24인 기습공격 헬리콥터와 같은 대지 공격임무를 수행하기에 아주 적합한 새로운 계열의 항공기를 개발하게 되었다. 1962년에 최초로 표현되어 1967년에 채택되었던 NATO의 「유연성 반응교리(Doctrine of Flexible Response)」는 새로운 대지공격용 항공기에 대한 소련의 요구를 강조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이 교리는 NATO가 구라과에서 재래식 또는 핵전의 변하는 여러 가지 수준에서 바르샤바 조약군과 교전할 수 있도록 준비케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며, 소련군의 생각은 재래식 무기를 보유한 최신군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기 위한 필요성을 갖게 되었다.

직접지원에 대하여 장기간 동안 확실한 연결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의 소련의 저자들은 직접지원을 전선공군의 기본적인 임무로서 여러 각도로 검토하고 있다.

G Shorikov 上將(VVS 주요참모장)은 1978년 8월에 「공군의 최신기술장비는 적의 제반 공격수단의 파괴, 아군부대의 지원, 공중우세를 위한 투쟁, 특수

정찰임무수행 및 기타 제반 복잡한 임무수행 등을 가능케 한다」고 진술하였다.

Shorikov 上將은 「제 3세대의 전투기 및 헬리콥터가 성공적으로 지배되고 있음을 환기시켰으며 그의 기타 군 고위층들은 모든 직접지원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군형이 잘 잡힌 전술공군을 보유하고 있음을 자랑으로 삼고 있다.

1945년 이래 소련은 최초로 4가지의 직접지원 임무를 각각 수행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 다른 기종을 보유하고 있다. 이와같은 사실은 그 자체가 소련의 전술가들에게 전투시 상당한 유연성을 제공하여 주며 이는 현대의 항공기가 갖고 있는 상대적인 힘이 다른 항공기의 약점들을 보상할 수 있기 때문이다.

○ 최신전술기 및 임무별 적합성

Cover	지 원 (Support)	Accompan- iment	Recon
MiG-21 (J-N)	Mi-8	MiG-27	MiG-21(H)
MiG-23	Mi-24	Su-17	MiG-25
	MiG-27	Su-19	
	Su-17		

소련의 현대화 계획의 2가지 주요한

분야는 3세대 제트전투기(Fishbed J/K/L/N, Flogger B/D, Fitter C/D, Foxbat B/D 및 Fencer)의 소개와 Hind B/D/E 및 Hip C/E 헬리콥터를 주축으로 한 막강한 기습공격용 헬리콥터 부대의 발달에 있어 왔다.

제3세대 제트항공기의 소개와 기습공격 헬리콥터 부대의 발달은 전반적으로 중복되어 왔다. 제3세대 제트항공기는 1970년대초와 중반에 전선공군에 취역하였고, 기습공격 헬리콥터부대의 편성은 1970년대 중엽에 시작되었으며 그 계획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다.

소련의 국방기금은 전선공군의 현대화를 수반하기 위하여 개편되었다. 미 CIA의 일반 보고문서에 의하면, 1967년과 1977년간의 소련 공군기금은 다른 군부대의 기금보다 신속하게 증가하였으며, 1969년대에서 1973년까지의 전체 국방기금에 비하여 3배 이상의 비율로 증가하였다. 1967~1977년간의 공군에 대한 총 기금 중, 단연 가장 크게 증가된 기금은 전선공군을 위한 기금이었으며, 이 기간 동안에 전선공군의 전술기의 개고가 약 50% 증가되었다.

비례적으로, 장거리 공군과 항공수송군

의 기금도 약간 상당한 수준으로 증가하였으나, 전선공군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였다. 이와같은 기금에 대한 노력의 결과로 전선공군부대의 질적향상과 동일한 효과를 갖게 되었다.

1977년까지는 전선공군의 전투기 중 60% 이상이 1969년 이후에 생산된 전투기들이었다. 1980년에 와서는 이와같은 새로운 전투기들은 전선공군의 4,350대의 전술기 중 80%를 차지하게 되었다.

소련지상군의 자족능력의 증가

소련 전선공군자산의 현대화는 소련 군구군의 능력을 전반적으로 향상시키고자 하는 상황 속에서 시작되었다. 지상군 및 공군에 대한 능력향상의 결과로 소련 전장부대는 10년 전에 가졌던 능력보다 훨씬 더 많은 완전한 화력지원 및 Cover 능력을 그들 자신들에게 제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

그러나 이 분야에 있어서의, 소련 자신의 증가되고 있는 자족능력은 4가지의 기본적인 항공지원임무 중 어느것도 침해하지 않았다. 오히려 지상군의 자족

능력은 지원 및 업호를 제공할 수 있는 전선공군의 능력을 증가시켜 왔다. 다시 말해서 이는 더 많은 항공기가 자유로운 활동 및 정찰임무를 수행할 수 있게 할 수도 있다.

소련 군부대는 화력지원을 위해서는 전통적으로 항공기보다는 포병에 크게 의존하여 왔다. Great Patriotic War 이후 여러 해 동안에 야포, 다탄로켓 발사대(MRLS), 박격포, 105mm, 곡사포 및 전술미사일과 같은 장비를 상당히 증가시켜 왔다.

1950년대에 항공지원이 별 위력을 갖고 있지 않았을 때에는 새로운 포병무기와 전술미사일이 작전화 되었었다. 보다 최근에 와서는 전차 및 MR 사단은 전인식 포병 무기(수년전에 사용된 105mm 포에서 최근 MR 사단에서 사용하는 165mm 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전차사단의 36mm~70mm Gun에 이르기까지)를 지원하여 왔다. MR사단에는 BM-21 Type의 MRLS가 상당히(적어도 3배) 증가되었으며 반면에 122mm와 152mm 자주포가 각 사단의 명중력을 크게 증가시켰다.

아래에 나열된 각종 포병 무기들은 소

는날 NATO와 적대시하고 있는 소련군에 이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무기들이다.

무 기	사정거리 (km)	보유부대 (대수)
120mm박격포	5.7	대대 (6)
122mm towed/sp	15.3/21.9	연대 (18) 사단 (36)
130mm towed	30	여단 (?)
BM-21 MRL	20.5	사단 (18)
152mm SP	17.3	사단 (18)
Frog 7	60	사단 (4)
Scud B	280	軍 (?)
180mm towed	44	軍 (?)

따라서 소련은 FEBA선 밖의 수마일 떨어진 거리에 화력지원을 하기 위해서는 항공기보다는 보병에 더 의존할 것 같이 보인다. 공격의 권위자인 A. A. Sidorenko 대좌는 현대의 조건하에서는 포, 대전차 유도미사일, 전차 및 자주포 등이 공격을 위한 준비로 직접 화력지원 임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광범위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고 주의를 환기시켰다.

이와같은 방법은 FEBA선에서나 FEBA선에 인접해 있는 중심지역에서의 적의 방어적인 제반 노력을 파괴하는데 가

장 효과적인 방법일 뿐만 아니라 관측된 적 무기를 파괴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Sidorenko와 같은 소련의 Planner들은 보병의 화력권 밖에 있는 목표물들에 대한 공중공격의 중요한 역할을 미리 알고 있다.

또한 소련의 지상군 부대는 엄호(Cover)시 10년전의 경우보다 항공기에 적게 의존하고 있다. 새로운 계열의 전술 SAM은 소련군 부대에 밀집되고 중복된 방공을 제공하여 준다. 다시 말해서 신속하게 기동하는 부대를 엄호하기 위하여 충분하게 기동성이 있다.

NATO의 항공기에 대하여 수적인 우세를 잘 알고 있는 소련방어 계획가들은 1965년 이후부터 이와같은 전술방공체제인 SA-4, SA-6, SA-7, SA-8, SA-9과 같은 SAM과 Zsu-23-4 자주 대공포 등을 소개하여 왔다. 이와같은 전술방공체제에 대해서는 다음 호의 기사에서 상세하게 취급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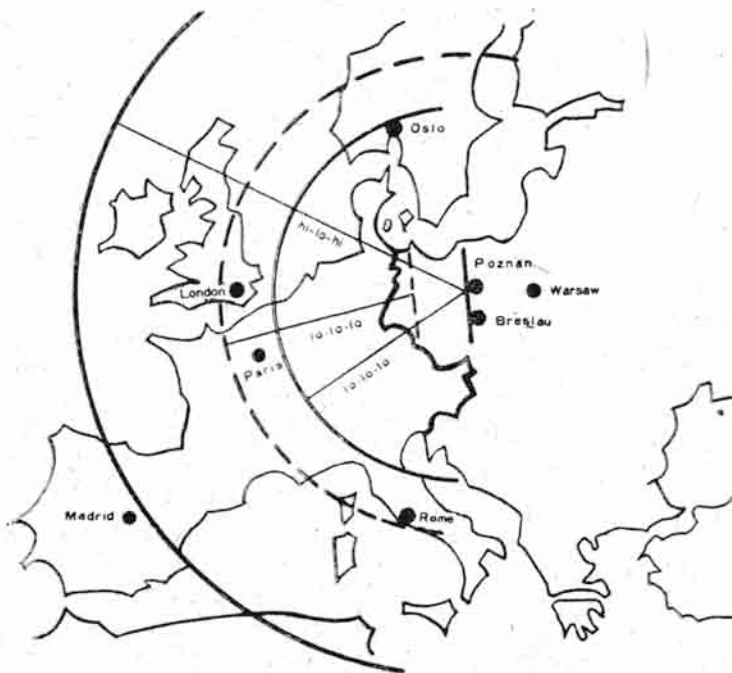
소련은 지상군 고유의 방공을 증가하고 있을 뿐 아니라, NATO의 공중공격에 대하여 지상군 부대를 엄호하기 위하여 중구라파에 대다수의 전술기를 배치

하고 있다. 헬리콥터와 지원기는 감소되는 반면에 동독주둔 제16항공대의 약 60%의 항공기는 전투기로 구성되어 있으며 40%는 전투-폭격기로 구성되어 있다.

공격 헬리콥터—새로운 차원

과거 10여년 동안 소련군의 생각은 항공지원을 위한 무기계열의 통합적인 일부분으로서 공격 헬리콥터를 점점 인식하여 왔다. 로켓과 기관총으로 무장한 Mi-4 및 Mi-8 헬리콥터는 Dnepr (1967), Dvina (1970년) 훈련 및 각종 Shield 기동훈련에서 항공지원임무를 수행하였다.

1976년에 실시하였던 Sever, Kavkaz 및 Shield와 같은 3가지의 주요훈련은 지상군을 직접 지원하도록 설계된 헬리콥터 수송작전이 특색이었다. 특히 1976년 이후부터는 소련은 전차부대와 차량화 소총부대 및 공격헬리콥터 부대가 상호지원하는 전투 Team으로 구성되도록 계획된 훈련을 실시하여 왔다. 헬리콥터 승무원들은 각종 형태의 지상군 작전에서 상세한 훈련을 받는다.



No photos of the advanced Su-19 Fencer fighter-bomber, now deployed in considerable numbers by the USSR, have yet been released for publication. This map indicates its wide radii of action on hi-lo-hi and lo-lo-lo missions carrying 2,000kg of stores(including stand-off ASMs), from bases in Poland and East Germany.

Mi-24 Hind 계열의 공격 헬리콥터는 소련의 항공지원 능력에 상당한 위력을 첨가시켰다. MiG-27, Su-17 및 Su-24 (전의 대지공격모델을 대체한)와는 달리 Mi-24 Hind 헬리콥터는 전선 근처에 신

서 이들 부대를 지원하는데 새로운 발전된 능력을 제공하여 준다.

전선 공군부대에서 비행한 Hind E라고 부르는 최신의 Model은 양 Stub-wing 아래에 4발의 AT-6 Spiral 대전차 미사일과 128mm 로켓 4문을 무장

하여, Nose 아래에 4연신 Gatling-type gun 1문을 무장한다.

소련군 생각은 지상군에 대하여 초근접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바타직한 항공수단을 항상 인식하여 왔다. 이는 군부대가 이와같은 공격의 결과를 직접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Great Patriotic war기간 동안에는 소련공격항공기는 때때로 우군에서 500~800m 떨어진 거리에 무기를 투하하였다. 현대전의 상황하에서는 제트항공기에 신속하게 기동하는 부대를 지원하는 임무가 부여될 때에는, 우군에 피해를 주지 않고 안전하게 이와같은 근접지원 임무를 수행하기가 곤란하다.

Mi-24는 초근접지원을 위한 이와같은 요구를 만족시키는 것같이 보인다. 동향공기의 속도는 구형의 IL-2(약 220knots)보다 느리다(약 150knots). 따라서 Mi-24의 조종사들은 목표물 상공을 비행함이 없이 알맞는 시간에 그의 공격을 계획할 수가 있다.

더우기 Mi-24는 구형의 IL-2보다도 외부무장을 여러 배로 할 수 있고, 대기갑작전, 도하작전지원 및 NATO 공격헬리콥터에 대한 대헬리콥터 임무와 같

은 다른 관계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Mi-24 헬리콥터는 Afghanistan의 대게릴라 작전에서 철저하게 시험 중에 있으며 그곳에서의 유일한 주요한 제한은 전투 상충한도인 것같이 보인다.

과거 2년 동안에는 공격 헬리콥터의 전투이용에 관한 여러 가지의 기사가 소련 군사저널지에 실려 왔으며, 이는 소련이 이와같은 무기체제에 절대적으로 위탁되어 있음을 뜻하는 확실한 징후이다. 소련 헬리콥터 작전의 일부 주요 교리는 헬리콥터가 목표물로 접근할 때 엄폐하기 위하여 지형이나 기상(구름) 등을 이용하여, 병력을 수송한 똑같은 헬리콥터로 지상군의 상륙대를 직접 지원하며 거울과 같은 기상조건하에서나 고정익 전술기가 비행하는데 방해가 될 수 있는 다른 조건하에서는 주로 헬리콥터에 의존하는 것같이 보인다.

소련은 서방 헬리콥터작전을 철저하게 연구하여 왔으며, 교리상의 여러 가지 개념을 모방하였다. 소련 공격헬리콥터 사용을 가장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는 사람은 M Belov 대좌이며, 인도차이나와 중동에서의 전투는, 헬리콥터의 집중 사용은 지상군에 대한 기동성과 화력을 크

게 증가시킬 수 있음을 입증한 것이라고 그는 역설하였다.

바르샤바 조약군에 대한 기여

바르샤바 조약군의 공군에 대한 광범위한 현대화 계획이 추진됨에 따라, 미·소, 바르샤바조약 국가들은 최근에 와서 제3세대 전술기와 공격헬리콥터를 도입하기 시작하였다. 지금까지는 Flogger 전투기와 전투목적기의 대수가 미·소, 바르샤바조약군간에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구형 모델인 Fishbed의 전의 소계를 뒤따르고 있다. 장기간에 걸쳐서 Flogger는 동구라파에 있는 소련동맹국간의 표준전술기로서 Fishbed를 대체할 것이다.

또한 과거 2년 동안에 미·소, 바르샤바 조약국가들은 공격헬리콥터 부대를 발전시켜 왔다. 지금까지는 동독,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및 불가리아 등을 포함한 여러 바르샤바조약국가들은 Hind D를 인수하였다. 또한 중무장 Mi-8 HipF (HipE의 수출형)는 많은 미·소, 바르샤바조약국 공군의 공격헬리콥터 부대에서

출현되어 왔다.

1980년대

동구라파에 있는 소련 및 그의 동맹국들은 그들의 항공부대가 신뢰성 있는 다목적 임무능력을 획득할 수 있는 계획을 착수하였다. 전술기 및 헬리콥터 부대는 변하는 여러 가지 전투단계 (중구라파에 대해서 계획되었던 전투와 같은 대개릴라 작전에서부터 재래전 또는 핵전에 이르기까지)에서 4가지의 기본적인 임무중 어느 임무라도 수행하기에 적합하다.

소련의 교리상의 문헌과 바르샤바조약군에 의하여 발전된 항공기 및 헬리콥터의 능력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전반적인 방향으로 흐름을 알 수 있다.

—기계획된 공격임무에 대한 종전의 강조에서부터 시간에 민감한 목표물에 대한 보다 민감한 공격에 이르기까지 분명한 변화가 있으며

—전천후 항공능력에 대한 강조가 점점 증가되고

—군작전상 똑같은 군구내에 있는 모든 바르샤바조약군을 효과적으로 통합하고자 하려는 이미 밝혀진 소련목표의 방향

으로 점차적으로 호르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정확유도무기의 Gap을 좁히고 있다. 이 분야의 무기에 있어서는 바르샤바조약군은 NATO의 능력보다 오랫동안 뒤떨어져 왔다. 대체적으로 새로운 소련의 정확유도무기는 공격헬리콥터가 무장하는 ATGM 이외에도 AS-7, AS-9 및 AS-10 미사일을 들 수 있다.

바르샤바 조약군의 공군현대화에 대한 순수한 효과는 단독적으로 하지 않고, 소련 지상군 부대에 일치되는 향상과 결부시켜 검토하여야 한다. 바르샤바 조약군은 보강된 항공대지공격 능력은 물론 지상군이 높은 준비능력을 갖도록 계속 강조할 것이다.

종합적으로 생각해 볼 때, 바르샤바 조약군의 전투능력의 질이 새롭게 된 것은 바르샤바 조약군의 지상군에 대한 고조된 전비태세가 우리의 신속한 보급로를 더욱 더 필요케 하는 현시점에서 볼 때, 바르샤바 조약군 공군의 새로운 특질이 그들을 더욱 더 취약하게 하고 있음을 뜻하는 것이다.

더우기 이와같은 전략은 일관성 있는 전략이며, 만약에 우리가 지상군에 대하

여 공격을 가할 수만 있다면 파괴시킬 수 있는 한 전략이다.

전선공군의 대지공격 능력이 계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은 새로운 전장미사일이나 Pershing II 및 NATO가 1983~84년부터 전개를 시작하게 될 지상발사 순항미사일 (GLCM) 등이 계속적으로 사용되어야 할 것이라는 몇 가지 암시를 갖게 할 수 있다.

1960년대 중엽 이후부터 소련 군사교리 전문가들은 적의 미사일부대와 같은 소규모 기동성 있는 목표물을 공격하기에는 천술항공기가 아주 적합하다고 진술하여 왔다. 최근에 있었던, NATO의 계획된 Pershing II 및 GLCM의 전개에 대한 모스크바의 선전운동은 소련이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이와같은 새로운 미사일을 검토 중임을 강하게 암시하여 주는 것이다.

따라서, 바르샤바 조약군의 사령관들이 대지공격 항공임무 중 적어도 일부를 이와같은 미사일부대를 공격하는 임무로 사용하는 것을 실제로 보는 일은 그리 놀라운 일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世界 最高 保有臺數를 指向하는

MiG-23 (Flogger) 戰鬪機



李 建 淳 譯

Flogger機의 出現

오늘날 소련 空軍 保有航空機 保有目
錄中에서 가장 活潑하게 擴散, 發展되어
나가고 있고, 또한 마치 西方世界에서
요사히 時代的 要請으로 Puny 小型車가
生産되어 나가듯, 航空機 組立線을 빠져
나가고 있는 것으로서, 西方陣營에서
“Flogger”라고 대수롭지 않은 通俗의인
이름을 붙여 준 이 航空機가 이제는 그
와 같은 族譜의 先祖格인 世界에서 가장
널리 輸出된 “Fishbed”란 變名을 가진
MiG-21機와 競爭의 立場에—어쩌면 凌
駕할지도 모를—서 있다.

지금으로부터 9年前 이 航空機가 소련

의 戰術空軍의 位置에 있는 戰線空軍의
戰鬪機로, 또한 그로부터 2年 뒤부터 소
련 國土防空軍에 防空任務機로 곧 바로
配置되면서부터 이 航空機의 基本設計
가 基本機體構造나, 體系品들이 서로 크
게 다르지 않는 範圍內 卽, 大同小異한
同族系列機로서 크게 번져 나가고 있다.
이리하여 遂擊機에서 對地攻擊 및 後方
遮斷 等の 制空任務機에 이르는 거의 全
體 戰鬪機種을 커버할 수 있는 大家族으
로 繁殖되어 나가고 있다.

더우기, 지난 數年前부터 相當數의
Flogger 系列機들이 Algeria나 Cuba
같은 共產國이나, 또는 체코, 東獨 및
헝가리 같은 Warsaw 條約國들의 主要
空軍機로서 活潑히 輸出되고 있는 한편,

소련-印度 兩國間에는 2種의 이틀 系列
機를 印度國內에서 80年 中盤부터 라이
센스生産트록 契約締結의 完了를 보고
있다.

어쨌든, 이 Flogger機를 開發해 낸 바
있는 Mikoyan-Gurevich 設計局에서는
지난 5~6年 동안 Rostislav A Belya-
kov란 이름의 總設計者의 支援下에 소련
內에서 가장 훌륭한 戰闘機中 하나가 될
수 있도록 集中努力한 結果, 이제 Flo-
gger機는 소련 前線 空軍에 이미 1,600臺
以上이 就役하고 있는 것을 비롯,一向後
數年동안을 모든 Warsaw 條約國空軍들
의 主宗武器로의 役割을 擔當하게 될 것
이다. 一効率的 運用面이나 數的面에 있
어서 소련 戰術空軍 內에서 完全히 中樞
的 位置를 굳히고 있다고 最近 西方陣營
分析家들의 評價結果를 以上과 같이 말하
고 있다. 여기에 더하여 約 500臺가 內
國防空을 爲해 소련 國土防空軍에, 또한
生産의 加速化로 100 내지 150臺가 War-
saw 條約國 空軍에 追加로 供給된 것으
로 보고 있다.

그런데, 이 Flogger 戰闘機가 誕生하
게 된 契機로서는:

○ 소련이 戰闘機들의 役割을 再評價

하게 됨에 따라,

○ 60年代 中盤의 그들의 戰術的인 思
考方式에 一大變革을 가져오는 契機
를 마련하게 되었고,

○ 그들의 前線空軍保有 航空機目錄表
中에서 F-105 Thunderchief나 F-4
Phantom에 匹敵할만한 最新型 戰闘
機數가 極히 적은 實情下에서,

○ 主로 空對地 任務비행에 치우치는
設計開發概念下에서,

Flogger機의 出現을 보게 되었다.

그런데, 이 航空機의 主開發目標로서
는 前世代 戰闘機 開發時와 같이 離着陸
性能 等の Field Performance에 對하여
서는 조금 強調하는 反面, 武装積載/有
効距離 性能을 大幅增加시킬 수 있는 매
우 融通性이 높은 航空機를 生産해 내는
것이 그 主目的이었다.

以上과 같은 開發目標에 따라 자연히
可變翼機에 그 優先權을 두고서, Mi-
koyan-Gurevich 設計局에서는, 機連에
따른 主翼自然後退方式(Fall-back So-
lution)의 代替方案 採擇과 더불어 美國
NASA 研究所의 開發方式인 主翼外側에
마련된 힌지(Hinge)를 通하여 操縱士가
機內에서 任意로 後退角을 選擇, 操作하

게 되어 있는 방식으로 되어 있는, 後退方式를 利用하는 등, 以上 두機種에 依한 同時 併行 研究試驗을 거듭하면서, Phantom機의 것과 거의 비슷한 形態의 空氣吸入口와 地上操作時 地表面과의 充分한 距離 維持를 爲해 後部胴體 腹부에 달린 腹部安定板을 접어지게 된 모습으로 1966~67 겨울에 드디어 試驗비행에 나서게 되었다.

소련 航空機 設計史上 可變翼理論을 實際 適用시킴으로써 顯著한 前進를 보고 있다 하지만, 그들이 多年間에 걸친 이 分野의 研究實驗 結果에 順從하려는 듯, 이들 設計 Team들은 가능한 限, 複雜性을 內包한 部分은 避하는 方向으로 設計해 나간 것으로 보여진다. 그 實例로서, 그들은 主翼上의 精巧한 高揚力發生裝置 (High-lift devices)의 適用을 하지 않고, 그 대신 可動翼部分 後緣쪽에 平凡한 平플랩(Plain flaps)을 設置하고 있다.

Ye-231 實驗機가 1967年 7月, 모스크바의 Domodedovo 空港에서 첫 公開비행을 가진 바 있는데, 이에 對해 ASCC (Air Standardization Coordinating Committee)에서는, 지금까지 處女出現하는 소련 航空機들에 對하여 後에 애매하다

는 말을 듣지 않고자 命名할 때면 매우 조심해 온 바 있는데, 이번에 첫 進出하는 航空機를 "Flogger"라고 命名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의 이 航空機의 未知의 性能에도 구애되지 않는 確固한 態度를 表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A型이란 꼬리이름을 부치게 된 것은 70年代初에 와서, 初期型인 航空力學實驗機 모습과 後에 나온 것 間에는 相當한 모습의 變化를 가지 왔기 때문에 A型, B型으로 區分하여 부르게 되었다. 그런데 이當時 Foxbat라는 變名을 가진 MiG-25란 新型機와 아주 專門家 아니고서는 자주 混沌하게 되는 일이 있었지만, 마침내 이 可變翼의 航空機가 소련식 이름으로 MiG-23이란 이름으로 世上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量産을 爲한 再設計

初期 試作機와 後에 나온 量産機 사이에는 相當한 設計開發이 이루어진 흔적이 엿보이는데, 여기에는 이 새 航空機를 爲해 主로 開發된 R-27, Turbofan Engine이 Sergeik Tumansky 設計局에

依해 매우 짧은 期間中 그토록 빠른 速度로 훌륭하게 開發完成해 낸 덕분에 相當한 設計改良이 可能하였던 것으로 보여진다. Flogger A型和 B型 사이에는 機體部分에서도 相當한 差異點을 보여 주고 있다. 卽 主翼可動部分이 前方으로 約 24inch (60cm) 移動設置되었다. 이로써 固定翼의 翼개(Fixed wing glove)를 적게 줄일 수가 있었고, 主翼을 完全後退시켰을 때, 主翼과 水平安定板과의 사이를 充分히 뚫어 놓을 수가 있게 되었으며, 또한 空力中心點을 훨씬 前方으로 移動시킬 수 있게 되었다. 前緣 Flaps를 可動翼에도 追加되었는데, 이 Flaps는 Taper진 突出支持具에 달려 操作되게 되어 있고, 最小角으로 主翼을 後退시켰을 때는 固定翼 글러브(Glove)와는 좁은 홈(Narrow Slot)을 만들게 되고, 따라서 中間位置로 後退時は Dogtooth 모양으로 主翼前緣의 突出部分이 생기게 된다. 그 세번재의 重要變化點은 後部胴體部分에서 排氣노즐이 約 3.5ft (1.06m) 程度 짧게 되어 그 部分의 輪廓을 새로 다듬어짐과 同時, 垂直安定板의 再設計가 이루어졌다. 이리하여 胴體의 負荷量을 줄이게 되어, 따라서 構

造強度도 그만큼 가볍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리하여 MiG-23機는 앞으로 各種 任務機로 먼저 나갈 수 있는 母型機로서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인데—航空機外部의 여러 가지 설치계들을 胴體 바깥쪽으로 밀어 내 胴體의 Radar 斷面積을 最小로 維持케 하는 소련式 設計方針을 固守하며, 그러나, 特殊任務遂行을 爲한 變型機의 性能을 極大化시키기 爲해서는 매우 넓은 幅의 設計變化를 敢行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MiG-21, Fishbed가 걸어가고 있는 前轍을 틀림없이 밟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그러나, 이 Flogger機는 그의 先輩機들에 比하여 볼 때, 構造의 單純性, 輕量性, 또한 값싸게 만들어진 格闘機(Dogfighter)等 面에서 判異한 差異가 있다는 것은 確實히 強調할만하다. 그런데, Flogger機가 設計開發時は Dogfighter로 만들어 낸 생각은 없었는지 모르나, 空對空 任務機로서도 앞으로 相當히 오래 동안 이 分野 任務遂行機로서의 演出目錄에 優先權이 賦與된은 勿論, 앞으로 數年 동안은 높은 優先權 속에서 開發과 生産業務가 즐거운 幸福 속에 持續되어 나갈 것이 틀림없다.

量産初期型으로서 西方側에서는 FI-ogger B型으로 잘 알려진 이 航空機는 副次的 任務로 極히 制限된 範圍의 對地 攻撃機能을 遂行한다는에 對하여 多少 首肯하면서 이 航空機가 어디까지나 防空專用機의 모습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B型도 지난 10年 동안의 生産期間을 通하여, 開發의 成功한 最新型 Radar, 武裝 그리고 좀 더 強力해진 Tumansky Turbofan Engine 등으로 개 발되어 감에 따라 漸次的으로 그 性能의 向上을 圖謀해 오고 있다. 그러나 例를 들어, -23M 또는 -23MF 같은 性能強化型까지도, 特別히 外形의으로 區分된 만한 變化點들을 ASCC 報告體系에 依據 하여서도, 찾아 볼 수가 없어, 初期 生産型機의 B표리 文字를 오늘날까지 그대로 부쳐오고 있다.

量産 初期, Flogger-B型의 Engine은
 最大推力 15,430LB (7,000kg)
 A/B 最大 22,485LB (10,200kg)의
 R-27 Tumansky Turbofan Engine 이었던 것이, 1975~76年 사이에
 最大推力 17,635LB (8,000kg)
 A/B 最大 25,350LB (11,500kg)의
 R-29 Engine 으로

改裝되었다 하지만, MiG-21MF와 같이 第二世代 航空機 範疇를 벗어나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最近 一線 配置型을 보면,

- 最大探索距離 53miles (85km)
- 最大目標追跡거리 35miles (55km)
- 制限된 下方監視能力
- J-band의

매우 크고 강한 出力의 Radar (NATO "High Lark")를 搭載하고 있고, 初期 Flogger B型의 武裝으로서는,

- IR-homing AA-2 (K-13A)
- Radar-homing AA-2-2 (NATO "Atoll")을 主 空對空 武裝으로 搭載하였었다. 이들 武器는 兩 Airintake Trunk와 固定翼 Glove 밑에 積載했었다.

그런데, 70年代 後盤부터 이들 武裝이,

- Semi-active Radar-homing AA-7
 中距離 미사일 (NATO "Apex")
 - IR-homing AA-8
 Dogfight 미사일 (NATO "Aphid")
- 로 交替 積載되고 있다.

Flogger B型의 모든 航空機들은 例外 없이 23mm Gsh-23L 雙連身機關砲를 腹部胴體 中心線上에 搭載하고 있고, 또

한 二次的인 對地攻擊 任務遂行을 爲해 UV-16-57 或은 이와 비슷한 Rockets彈을, 또한 500kg 짜리 投下爆彈들을 固定翼의 可變翼 根根部에 縱列로 空對空미사일 代身 積載한다. 360° 警戒가 可能的한 "Sirena 3" (SO-69) Passive Warning Radar가 機首 尾部分에 装着되어 있고, 그 밖에, Dopplar 航法 Radar 및 ILS (Instrument Landing System) 裝置가 搭載되어 있다. 胴體腹部 中心線上에 3028 gal (800l) 補助燃料 Tank를 달 수 있게 되어 있고, 또한 Ferry 비행을 爲해 可動翼에 거의 같은 容量의 燃料 Tank를 積載할 수 있다. 따라서, 主翼을 完全展開狀態로 비행時는 거의 例外없이 主翼補助燃料 Tank를 달고 다니는 모습을 보게 된다.

이 航空機의 胴體構造는 在來式航空機에서 보는 바와 같은 Semi-Monocoque 構造로 되어 있고, 그 形態는 基本的으로 圓形構造이다. 조종席 兩側 Airin-take 前方은 平平하게 되어 있으며, 이것이 後部胴體로 가면서 漸次的으로, 円形으로 다듬어져 있다. 空氣吸入口의 胴體接觸部에는 커다란 平板을 붙여 境界層流隔板(Boundary Layer Solitter

Plate) 役割을 하게 했고, 또한 空氣吸入口 Trunk 上에 2個의 작은 空氣吹入口 (Air blow-in door)를 붙여 流入空氣 增大策을 취하고 있는데, 이 吹入口는 固定翼 Glove 前緣 바로 尾 部分에 位置하고 있다.

最近 生産된 R-29 Turbofan Engine은

○ 空氣壓縮部가

低壓—5段

高壓—6段으로 되어 있고,

○ 壓縮比는 12.4/1

○ 流量은 231.5LB (105kg) sec

○ 再燃推力은 21,825LB (9,900kg)
→23,350LB (11,500kg)으로 增加

○ 加速所要時間

Idle→Max Power까지 3~5sec所要

○ F100-PW-100(美 Pratt & Whitney 社製)와의 比較

R-29 Engine의 自重(Dry weight)가 3,880(1,760kg)로서 F100 보다 850 LB (385kg) 程度 무겁지만, A/B 最大 推力은 23,350LB (11,500kg) 對 23,810LB (11,727kg)으로서 F100側이 오히려 推力이 若干 더 많다.

이 航空機의 後退角을 手動으로 作動

되는데,

○ 最大後退角—17°

이 때에는 嚴格한 G制御비행이 要求되며, 또한 이 狀態에서의 戦闘機動評價가 아직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 中間 및 最大展開翼角

中 間—45°

最大展開—72°

可動翼과 固定翼 사이에 各 可變角時 生기는 間隔은 스프링의 힘을 利用한 間隔 막개를 利用하고 있다.

○ 可動翼에는,

- 後緣部에 全幅에 걸친 三段式 Flaps
- 翼端 2/3部分부터 獨立의으로 可動되는 前緣 Flaps가 設置되고 있고,
- 翼上面에 設置된 差動 Spoilers와 後緣 Flaps의 展開時는 全可動式水 平尾翼과 連動作用하게 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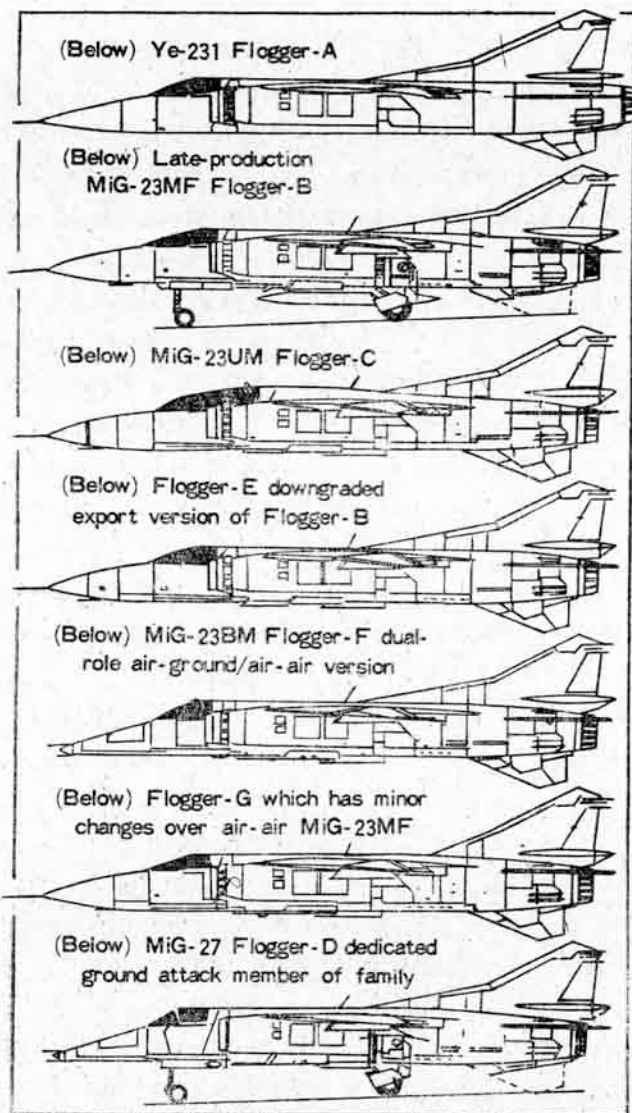
變型機

MiG-23, Flogger-C型은 單座戰鬥機를 縱列配置複座로 變型改造시킨 것으로서, 이들은 單座戰鬥機와 거의 같거나, 또는 약간 늦게 就役되고 있다. 이 Fl-

ogger-C型 (MiG-23U 및 MiG-23UM)

도 單座戰鬥型인 Flogger-B型和 같은 Gsh-23L 機關砲와 AAM 4發式을 積載함으로써 戦闘可能機化시켰다 하지만, 이들 複座型들은 거의 例外없이, 機首 Radome이 單座型에 비해 적다. 따라서 Radar 性能이 훨씬 뒤떨어진다는 것을 暗示해 주고 있는데, 이 Radar는 아마도, MiG-21bis, Fishbed-N型이 搭載하고 있는 探索距離 20miles(32km)와 下方監視能力이 없는 J-band 周波의 Jay Bird Radar를 搭載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教官操縱士用으로 쓰여지는 後方席은 胴體燃料容量의 相當量을 犧牲시키면서, 標準型 座席을 挿入시켜, 前方座席보다 若干 높게 만들었고, 座席內에는 學生操縱士의 爆撃·射撃이나 離着陸時 조종 모습 觀察에 使用키 爲한 引込式페리스코프(Periscope)가 달려 있다. ECM 안테나는 Wing Glove 下方右側에, 그리고 ILS 안테나는 그보다 훨씬 앞 部分에 붙여 設置되어 있는데, 全般的으로 Flogger-C型은 推力이 若干 뒤떨어지는 R-27 Turbofan 엔진을 装着한 初期型 Flogger-B型和 매우 類似하다.



〈Flogger 族屬機들의 側面圖〉

한편 輸出型 複座機를 살펴보면, 單座 輸出用變型機를 供給받고 있는 나라들에 서는 거의 모두 少量式이나마 이 複座 型이 輸出되고 있는데, 그 모양은 國內 使用機에 비해 例를 들어, 보다 적은 Radar와 ILS 안테나 位置의 變更 設置 되어 있는 Flogger-E型인 主輸出用 複 座型으로 單一化 되어 있다. 이들 航空 機들은 Flogger-B型和 같이 主任務가 防空 그리고 制限된 對地任務를 遂行하 는 것으로 되어 있다. Doppler 航空裝 備나 Laser 距離測定器들이 달려 있지 않은데다 Radar 마저 低性能 것이 搭載 되어 있어 國內型에 비해 그 性能이 뒤 떨어지고 있는데, 이들은 普通 AA-2 Atoll 미사일을 積載하고 있다. 이들 航空機는 通稱 Flogger-C 또는 F型이란 이름으로, 쿠바, 이라크, 이집트, 이디 오피아, 티비와 및 시리아 등 나라에 供 給되고 있다.

요즈음 航空機任務가 防空보다도 對地 또는 後方遮斷 쪽으로 置重됨에 따라, 最近들어, 空對地 任務性能을 極大化시 킨 것으로 보이는 두 가지 變型機가 만 들어져, 70年代 中盤부터 소련 空軍內에 서 就役·活動하고 있다. 이들 두 가지

變型機들은 모두 地上目標物 捕捉을 좀더 容易하게 하기 위하여 앞 機首部分이 수 그러지게 設計되어 잘 區分되고 있다. 그 첫번째 것은 MiG-23BM 또는 Flogger-F型이라 부르는 것으로, 이는 非 Wa-rsaw 條約國에 輸出되어 오던 機種으로 서, 소련 空軍內에서 活躍하고 있는 唯 一한 機種인데, 한 때는 全的으로 輸出 專門機로서 알려져 왔던 것인데, 1975~ 76年 사이 소련 戰術空軍部隊들에 配屬 되기 始作한 것으로서, 소련 前線空軍에 相當한 臺數가 就役하고 있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

—F型機의 엔진이 R-29 B型으로 바뀌 었다 하지만 R-29 엔진과 거의 같은 推 力에 屬하기 때문에 別問題아니고, 이 航 空機가 空對地 機能을 極大化시키기 위 해 몇 가지 改造作業을 加하긴 하였지만, 根本的으로 -B型和 別差異가 없다. 그 러나 조종석에서 앞 部分은 全的으로 새 로운 設計로 되어 있다. 지금까지의 防 空專用에 屬하는 모든 機種들의 機首 모 양이 円形天井에 끝이 뻗도록 마무리 된 Ogival Radome 모양이었던 것에 反 해, 조종석 앞部分부터 밑으로 배우 급 하게 꺾아졌고, 兩側面에서 배 밑部分이

平平하게 處理되어 있다. Laser 距離測定
器와 表示式 目標探知器가 機首 끝部分에
搭載되어 있는 것을 비롯하여, 아마도
Doppler 地形回避 Radar 같은 것이 裝
備되어 있는 듯, 앞바퀴가 좀 더 커지면
서 따라서 바퀴 收納室 덮개가 물집 모
양으로 볼록 나오게 處理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앞이 꺾기어진
모양의 機首는 Warsaw 條約國들이 供
給받고 있는 Flogger 機種의 오리 주동
이 모양의 機首와 우연히도 같은 모양을
하고 있다.

—F型的 機首가 急한 傾斜를 이루게
됨으로써, 조종석 窓門이 밑으로 넓어지
게 되어 조종사 視界가 훨씬 良好하게
되었고, 조종석 周圍에는 地上砲火로부터
의 被害를 줄이기 爲해 裝甲補強되고
있다.

- 雙連身 23mm Gsh-23L 機關砲와
더불어,
- 5個所의 外部架에 最大 9,920LBS
(4,500kg)까지의 武裝을(內部燃料
積載量을 줄여서) 短距離任務용으로
積載
- 500kg 爆彈 6發 또는
- 胴體中心線상의 2個의 {二重架와

Airintake Trunk와 Wing Glove의
各 1個씩의 武裝架에 積載
或은

- Airintake Trunk의 各 1個씩과
Wing Glove 中央線상의 縱列로 2
個씩의 武裝架에 積載.
- 또한, 代替武裝積載로서, 各種 爆
彈架와 Rocket Pods를 利用한 武裝
積載가 可能한데, 이 中에는 Wing
Glove 架에 AS-7 Kerry ASM 미
사일 積載도 可能한 것으로 보는데,
이 미사일은, Radio 制御誘導 미
사일로서 有効射距離 約 6miles(10
km), 무게 2,650LB(1,200kg)의 것
이다.

Flogger-F型的 內部燃料積載量은 15
18Gal(5,750l)을 넘는 것 같지 않고, 비
행시 가끔 胴體中央線상에 211gal(800l)
짜리 Drop Tanks를 달고 날으는 모습
을 볼 수가 있으며, Ferry 비행(長距離
自力空輸飛行)을 위해 위와 같은 容量의
Drop Tanks를 可動翼上 非旋回性(Non-
Swivelling) Pylons에 積載할 수 있도
록 可動翼에 受油口가 마련되어 있다.

한편, 重量은;

- Clean 重量: 34,170LB(15,500kg)

MiG-23 戦闘機

○ Max T/O₂ Weight: 44,312LB
(20,100kg)

또한 性能一般은 -B型和 根本적으로 別差가 없지만,

Clean 狀態에서,

○ 最大速力(低空) M=1.1

〃 (高空) M=2.3

○ 正當戰闘行動半徑 590miles(950km)

- (● 胴體中央 Drop Tank 1個)
- (● 最小限의 Dash 비행 或은 戰闘機動)

○ 離着陸速度

Clean 狀態에서

- 離着速度 205mph(330km/h)
- 着陸接近速度 174mph(280km/h)

여기에 引用되고 있는 資料들은, 소련 이 -F型의 長期輸出目的으로 作成供與 된 것으로서, 比較的 正確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戰闘 性能에 關한 것들이 言及되지 않아 유감 이다. 1973年 France의 東北部에 位置하 고 있는 Reims市를 -G型이 訪問飛行 하였을 때도, 胴體中央 Tank는 積載되 어 있었다 하지만, 胴體内部의 여러 가지 裝備品들이 일부러 除去되고, 또한 23 mm 機關砲彈도 실려 있지 않은 狀態여 서 -F型의 Clean 狀態重量과 매우 비

슷한 무게 狀態下에서 離陸거리가 2,625 ft(800m) 以內였다.

MiG-23 變型機들이 체코와 같은 Wa- rsaw 條約國들에게 供給되고 있고, 또 한 印度 航空産業이 印度 空軍을 爲해 라 이센스 生産코자 要請한 2가지 機種中에 서 하나가 MiG-23BN型인 것으로 보이 는데, 이것도 購入者側이 特別히 別途注 文한 裝備搭載의 差異 뿐인 것으로써, Flogger -F이란 別名을 갖고 있는 MiG-23BM와 같은 것이라 볼 수 있다.

New Delhi로부터의 非公式 報道에 따르면, 소련側은 上記機種을 印度側에 供給함에 있어 英國의 Jaguar Interna- tional機보다도 約 60% 싼 값으로 아래 와 같은 事項들을 履行할 것을 示唆하였 다고 한다.

○ 完製機의 初度供給分 代金

○ 支援裝備費

○ 操縦士와 地上勤務要員 訓練費

○ 印度航空産業社가 組立生産하게 되 는 分解狀態로 供給되는 몇 臺의 航空機 購入費

○ 印度側이 向後 17年 동안 라이센스 生産하는 동안, 臺當 로얄티가 2.5%에 不過.

設計와機種名變更

Flogger-F型은 空對空 防空專擔機인 —B型으로부터, 副次的으로 防空能力을 維持시키면서, 空對地能力을 具備시키기 위해 最小限의 設計變更을 한 바 있지만, 두번째로 試圖된 空對地 部類에 屬하는 —D型機는 전혀 새로운 이름으로 불려 마땅할 程度로 大大的인 設計變更으로 空對地機能의 極大化를 꾀한 것으로서, 소련 空軍內에서 MiG-27이란 새로운 이름으로 就役하고 있다.

Flogger-D型을 對地攻擊專用機로 開發시킴에 있어, Mikoyan Gurevich 設計팀들은 意識的으로—어찌면 賢明한 方法일지도 모르는—低空 내지 中高度에서의 戰鬪行動半徑을 増大시키기 위해, 最高速力인 $M=2.0$ 級性能을 犧牲시키지 않을 수가 없었고, 엔진에 있어서도, MiG-23의 R-29 엔진과 거의 같은 것으로서, 같은 軸心構造로 되어 있지만, 低壓壓縮器部分이 좀 더 크고, 또한 길이가 짧고, 2個의 開閉位置를 單純化시킨 排氣 노즐로 된 엔진을 採擇하고 있다.

低空에서 높은 値의 亞音速力과 非再

燃推力(Dry Thrust)인 (4,350LB(6,500kg)를 約 25% 程度 増大시킬 수 있는 構造가 單純化된 Afterburner를 必要로 한다는 主要要求條件들을 充足시키기 위해, Flogger-D型에서의 Turmansk 엔진은 鐘과 같이 벌어지고, 比較的 넓어진 固定式 空氣吸入口의 모양과, 縮少된 境界氣流隔板(Solitter Plate), 그리고 約 16inch(40cm)가 짧아진 排氣 Pipe로 된 엔진을 裝着하고 있다.

간디 飛行場에서의 作戰性을 높이기 위해, Main Gear 바퀴의 徑 및 幅을若干 크게 하엿기 때문에, Door bay도 넓혔고, Fairing Door도 배가 나온 모양이 되고, 部分的으로 이 部分의 斷面積을 増大시킴과 同時, 이곳의 構造強度가 補强되었다. 지금까지는 모든 Flogger 族屬機들이 雙連身 Gsh-23L 機關砲를 裝着하여 왔으나, 이번 —D型에서 소련 戰鬪機로서는 처음으로 6連身の 23mm Gatling 回轉身砲로 바뀌게 됨으로써 그 發射力이 훨씬 増大되었고, 또한 裝着位置가 지금까지는 空氣吸入筒 아래였던 것이 筒 밖으로 바뀌었다. 모든 防空任務機와 訓練用 Flogger機들이 共同으로 달고 있던 Missile Pylon 代身에 이 —D

型에서는 爆彈架로 바꾸어 달았고, 여기에는 AS-7 Kerry와 같은 空對地 미사일發射臺도 달 수 있다. 固定翼 Glove 前緣 爆彈積載架 바로 앞에는 ECM Antenna Pod와 Missile 誘導안테나가 달려 있다. -D型機가 이와 같이 많은變化點을 可能하게 한 것은 速度性能을 一次元 低級化시킨 結果이다.

Flogger-D型機의 速度性能은 다음과 같다.

○ 最大速度(低空) $M=0.95$

〃 (高度) $M=1.6$

그러나, 西方側分析家들에 따르면 같은 Flogger 族屬 空對地機에 비해 顯著하게 그 性能의 向上을 가져 오고 있다고 評價하고 있다.

MiG-23 系列機로서, 가장 最近 一般에게 公開된 것으로서는 Flogger-G型인데, 이들 6臺의 航空機들이 지난 1978年 8月, 핀란드 Kuopio-Rissala 空軍基地에, 그리고 同年 9月, France의 Reims 基地를 禮訪한 것이 처음이었다. Laser 距離測定器의 性能이 아주 뛰어나는 것을 비롯, 소련 航空機들은 한 두 가지 無用之物을 버릇처럼 달고 다니는 것이 普通 있는 일이었으나, 이번에 처음으로 Warsaw 條約國 밖으로 禮訪飛行에 나선 탓인지, 이러한 物件들을 除去한 것

으로 보이며, Flogger-G型機는 最近 製作되는 Flogger-B系列機로서는, 比較的 적은 設計變更點을 보여 주는 防空機이다. 그런데, 이번 달라진 것 중에서도 가장 印象的인 것은, Dorsal fin과 이에 連이은 垂直安定板이 縮小改造된 것인데, 이것은 이번 禮訪時의 曲藝飛行機能을 增大시키기 爲해 많은 腐心 끝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하여튼 Flogger機들은 지금까지 소련 空軍內에서 活躍한 바 있는 어떤 前任者들보다도 뚜렷이 그 可能性을 드러내 보이는 航空機임이 틀림없고, 따라서, 向後 約 5年 내지 그 前後期間 동안 戰術 空軍力 分野에서 지금까지의 NATO側의 技術的 先導位置에 重要な 한 部分을 蠶食해 들어가는 役割을 하게 될 것이다. 西方側이 가장 重要視해야 할 점은, 그들이 해낼 수 있는 巨大한 量에 있다. 소련은 그들의 影響力 속에 있거나, 또는 政治的으로 影響力을 行使할 수 있는 世界到處 나라들에게, 西方陣營에서는 到底의 競合할 수도 없는 靚값으로 그나마 借款形式으로 팔고 있다. 따라서, 80年代 中盤이 되기도 전에, 이 Flogger 系列機들이 이 世界上에서 가장 널리 또 많은 數字의 航空機가 될 것이라는 것을 疑心할 사람이 어디 있을 것인가!

蘇聯의 霸權主義

박 종 언 譯

蘇聯쪽으로 기우는 軍事力均衡을 合理化하는데 利用되는 蘇聯式 婉曲語法을 빌어 “힘의 相關關係”라는 말에서 1980年代 序頭가 西方에 不安한 挑戰期가 될 것을 암시하고 있다. 美合參議長의 議會 軍事動向報告에서도 前兆처럼 그 점을指摘하고 있다. “西方이 堪當할 수 없게 繼續 增強되는 蘇聯軍事力은 戰略戰術核 및 在來戰戰力같은 主要戰力部門에서 美國과 그 盟邦들에 不利하게 軍事力均衡을 變化시키고 있다. 이 놀라운 發展趨勢는 自由世界의 繁榮과 生存을 支撐해 온 相互信賴를 害치며 美國과 盟邦들의 安保에 明白한 政治, 軍事的 挑戰을 增加시키고 있다.”

統計上으로도, 現在 美國의 國防費는 1963年보다 實際面에서 더 적지만 같은 期間에 蘇聯國防費는 두배로 늘어났다. 1963년에 蘇聯은 美國國防費의 約 60%를

投資했지만 1980년에는 美國國防費보다 約 150%를 더 割當했다.

또한 蘇聯은 그들 政治體制를 利用해 重要武器體系의 研究, 開發, 獲得에 있어 막대한 經費를 國防費로 돌릴 수 있다. 結果的으로, 蘇聯은 自國防禦와 安保에 必要 以上の 많은 武器를 만들어 냈다.

蘇聯指導層이 그들의 霸權主義를 감추기 爲해 國家安保라는 말뜻을 歪曲하고 있다는 事實이 最近의 아프카니스탄 侵攻으로 뒷받침됐는데, 앞으로 얼마만큼, 蘇聯이 根本目標로 하는 그 本性에 對한 西方의 再理解가 政治的, 軍事的으로 必要한 對應策을 講究시킬 것이며 오래 持續시킬지가 注目된다. 分명한 것은, 蘇聯의 好戰性과 極限政策이 그들의 軍事力優勢, 特別 戰略攻擊力部門의 優勢에서 나온다는 점이다.

1980年 軍事動向報告에서指摘되고 있듯이, 蘇聯軍事力の 第3世界注入에는 對外軍需品販賣 뿐만 아니라 軍事支援이 1950年代 以後 複合의으로 追求해 왔다. “最近 蘇聯이 試圖하는 것으로 새로운 접이란 過去의 好戰性에다 目標達成方法을 多樣하게 擴大시키는 것이다. 現在 蘇聯軍事要員 및 顧問들은 30個 非同盟國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蘇聯製 武器가 33個 NNA(Non-Aligned) 國에서 팔리고 있다.”

第3世界를 顛覆시키기 爲한 이러한 方法들만 가지고는 滿足하지 않고 蘇聯은 最近 보다 洗練된 接近策을 採擇했는데 이들에게는, 非同盟國과의 長期友好協力條約締結, 國內軍事施設의 蘇聯建設 그리고, 特別 蘇聯의 代理國으로 非同盟國을 利用할 策略들이 包含된다. 이 主된 보기가 쿠바로서, 이 나라의 軍事要員과 顧問團들은 20個國 以上에서 軍, 民합백 수천명에 達하는 숫자로 찾아볼 수 있다.

일부 美軍事專門家들은 蘇聯이 쿠바, 北韓, 이디오피아, 아젠, 에덴, 아프카니스탄 그리고 特別, 베트남을 그들의 代理國으로 利用해서 重大한 役割을 遂

行토록 할 “電擊擴張”非常計劃을 作成해 왔다는 證據를 잡고 있다. 이들 專門家들이 豫想하는 바, 蘇聯 介入의 軸점은 中南美와 回教國에 놓인다. 中南美에 있어 介入의 主關鍵은, 이들의 오래 고향인 社會, 經濟的 병폐와 蘇聯의 指導 아래 쿠바가 만들어내는 마르크스主義者들의 勢力擴大.

回教國에 있어, 어떤 凶事에도 좋은 反面은 있다는 式의 西方의 지나친 樂天家들의 생각은 2가지 面으로 害로운 것이다. 蘇聯의 아프카니스탄侵攻이 베트남에서처럼 困境에 빠질 것이라는 안이한 생각은 政治, 軍事的 觀點에서 뿐만 아니라, 地理의으로도 論理的이거나 事實의이 아니다. 산 많은 아프카니스탄 北部地域에 일부 抵抗의 根據地가 남아 있는지 與否는 蘇聯戰略家들에게 甚로 重要的 것이 이니다. 주로 開闢地로서 개발된 活動에는 不利하기 때문에 보다 쉽게 장악할 수 있는 南部地域은 明白히 소련의 다음 目標인 파키스탄과 이란에 對해 公開 또는 비밀作戰을 遂行키 爲한 理想的인 跳躍臺가 되고 있다. 이같은 侵略行爲는 蘇聯政策上 단지 中東과 南部 中東에 面한 페르시아만과 기타 油

田이 풍부한 回教國들을 掌握하기 爲한 序曲에 不過하다.

西方對外政策研究家들 사이에 나도는 獨에 理論으로 最近 蘇聯侵略性的 根本原因이 심각한 經濟問題에 봉착해 있기 때문이라는데, 이는 蘇聯에게 매우 有利한 생각이다. 이 事實에 對한 보다 비판적인 檢討에서, 蘇聯은 全世界産業國中 自然資源, 特히 에너지資源에서 가장 獨立的이라는 結論을 내리고 있다. 더욱 決定的인 것은, 蘇聯이 아무리 缺乏을 불가피하게 받아들여야만 할지라도 이에 따른 國內政治結果를 統制할 能力을 갖고 있다는 事實이다. 따라서 中東에서 蘇聯의 侵略行爲가 “에너지危機”의 감정에서 싹트다는 생각은, 蘇聯의 好戰性이 經濟的인 問題로 完化될 수 있다는 希望과 마찬가지로, 蘇聯軍이 베트남에서처럼 아프리카니스탄에서 수렁에 빠질 것이라는 생각만큼이나 터무니없는 妄想이다.

世界霸權主義를 向한 蘇聯의 現推進段階에서는, 그리고 中共과 상대하는데 있어서는 베트남을 利用할 것이다. 蘇聯의 軍事, 經濟의 援助로 支持되고 한때 인도 지나로 알려진 모든 나라를 統治하도록 蘇聯의 強制가 차츰 들어드는데 鼓舞된

베트남은 物質面에서는 全的으로 蘇聯에 依存하고 있고 政治的, 自立面에서는 항구적인 侵略性을 追求하고 있다. 또한 웅장원정의 形態로 이 까다로운 이웃國에게 또 한 차례의 敎訓을 주려고 버리고 있는 中共이라는 恐怖의 對象은 하노이로 하여금 얕전하게 蘇聯의 命令에 따르는 外에는 달리 選擇權을 주지 않는다.

美軍事專門家들의 見解에 따르면, 東南亞事態가 爆發할 可能性은 지난 10年前보다 오늘날 더 크다. 베트남의 캄보디아征服 餘波가 여러 캄보디아陣營에 避難처를 提供하고 있는 泰國으로 쉽게 넘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거의 自動的으로 美國은 蘇·越, 中共間의 大規模衝突속에 東南亞에서 再介入하게 될 것이다. 技術的인 면에서도 蘇聯代理國 베트남에 依한 泰國攻擊은 마닐라條約에 따라 美國이 방위防禦에 나서도록 의무짓고 있다.

베트남內 蘇聯軍事力 駐屯은 美專門家들이 큰 不安感을 갖고 指摘하는 바 “상당하며 또 漸增”하고 있다. 軍事動向報告에 따르면 “蘇聯은 前例없이 많은 베트남內 港口와 飛行場을 使用하고 있다. 蘇越兩國間의 긴밀한 관계로 蘇聯은 東

南亞에 駐屯해서 中共과 西方의 影響力을 점차 弱화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變하고 있는 蘇聯指導層

萬一 수명豫想統計가 어느 정도 信憑性이 있다면 앞으로 數年內 蘇聯에는 經年 퇴직한 指導層의 代代的인 交替가 豫想된다. 內密한 弱肉強食의 世界에서 누가 蘇聯共產黨政治局員이 될지는 예측불허다. 그래서 專門家들도 다가올 變換期中 나타날 基本趨勢만 提示하는데 그치고 있다.

여기서는 2가지만 引用한다. 將次 蘇聯指導層은 새로운 이니셔티브를 通해 共產黨 下部組織內의 持續的인 支持를 얻어야 할 것이다. 이때 政治, 軍事的 範疇內에 있는 이니셔티브를 取하는 것이 그들을 懷柔하는 것보다 훨씬 強力한 것이다.

둘째로, 다가올 蘇聯指導層 後代는, 專門家들의 見解에 依하면 人事面에서, 너무 젊어 第二次世界大戰의 傷處를 입지 않았고 總動員下의 美國의 힘을 모르는 사람들이 包含된 것이다. 現指導層은 거의 例外없이 第二次大戰의 直接經驗을

갖고 있어 慎重하게 世界戰을 유발한 行動을 꺼릴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自制와 冷靜이 缺如된 未來의 指導層은 前指導層보다 더 위험을 무릅쓰고 核戰爭을 誘發시킬 수 있는 政治, 軍事的 도박을 벌일 것 같다. 冒險을 거는 傾向은 틀림없이 蘇聯과 그 追從國들을 史上 처음으로 世界 여타國보다 優勢한 軍事強國으로 만들 것이다.

蘇聯問題專門家들 사이에 나도는 또다른 理論에 따르면 蘇聯指導層의 變化가 이미 進行中이라는 것이다. 最近 蘇聯의 冷戰再開行爲는 國防相 우스티노프의 作品으로 傳해진다. 비록 病든 브레즈네프보다 2살 아래지만 우스티노프는 強健하며 後繼者競爭에서 先頭다툼에도 열성인 것으로 보인다. 자신의 權力바탕을 強化하고 聲望을 높이려고 D. F. 우스티노프가, 아프카니스탄 侵攻과 같은 "愛國的 國防勞力"으로 國家를 再武裝시키기 爲해 軍需 및 防衛産業에 力點을 두고 있다는 確實한 證據가 보인다. 이 말이 事實이라면 그것은 우스티노프가 무슨 일일 수 있는 蘇聯政治局員들 사이에 強力한 지지를 받고 있어 브레즈네프서기장으로부터의 궁극적인 政權引受를 爲한

先決要件을 마련했다는 신호가 될 것이다.

아웅은 蘇聯의 아프카니스탄侵攻을 爲한 그들 内部運用方式에 對해 별로 알려진 것이 없는 바, 國防省 소식통에 따르면 많은 數의 蒙古軍이 侵攻作戰을 遂行할 軍駐屯地로 移動되었다는 것이다.

蘇聯異民族集團 사이에 나있는 蒙古軍의 評判으로 그들이 侵攻軍 속에서 높은 忠誠과 낮은 逃亡率을 보였을 地라는데 疑心할 餘地는 없다.

上昇하는 蘇聯國防費

今年初 發表된 美 CIA의 달러價 對比 “1970~1979年 美·蘇國防費” 報告에 따르면 지난 10年間 累積된 蘇聯國防費는 美國國防費보다 30% 앞서있고 年支出成長率은 約 3%를 나타냈다. 現在 生産, 開發中인 武器體系를 바탕으로 重要防衛産業體建設이 繼續되고 現代武器가 차츰 高價化하기 때문에 長期的인 趨勢로 蘇聯國防費는 1980年代에도 같은 比率로 계속 늘어날 것이다. 昨年 CIA가 算定한 蘇聯國防費는 約 1,650億弗로 美國의 1,030億弗보다 5%가 더 많았다.

<表 1> 전략무기 제작비단위: 천弗

제 2 차대전 중	단위	수량	총액
항공모함	55,000	2,500,000	
전투기	54	19,000	
신예폭격기	210	100,000	
잠수함	4,700	303,000	

1970년에 루블貨로 算定되어 GNP占有率로 發表된 蘇聯國防費는 10年 동안 평균 GNP의 11~12%를 차지해 왔다. 이에 비해 美國國防費는 1970년에 GNP의 約 8%를 차지했지만 1979년에는 5%로 떨어졌다. 武器와 裝備調達, 設備建設을 包含하는 主要投資部門에서 지난해 蘇聯은 美國보다 놀랍게도 8%나 더 컸다.

蘇聯은 또한 軍事作戰費面에서도 美國을 凌駕했는데 1979年 蘇聯軍事作戰費는 美國보다 35%나 더 많았다. 전체 10년 동안 그들은 美國보다 總 15% 더 投資했다. 蘇聯은 1970~79年間中 RDT & E(研究, 開發, 實驗 및 評價) 分野에서도 비슷한 趨勢의 經費擴大과 成長을 나타냈다. 지난 10年間 蘇聯 RDT & E 活動費는 美國의 支出보다 1.5배나 더 많았다.

蘇聯軍 兵力數는 1979年 約 430萬으로

美軍의 2배가 넘는다. 이 숫자에는 國防省 直屬 5軍과 蘇聯國境警備軍만 包含했고 內務省保安軍 및 鐵路, 建設軍 50萬은 蘇聯이 國防軍으로 認定하지 않기 때문에 除外됐다.

CIA研究에 따르면 軍兵力趨勢는 兩國 國防組織體에 드는 總經費와 일치했다.

1970年 이래 10年 사이에 蘇聯軍은 40萬名以上이 늘어났다. 最大增加는 蘇聯地上軍에서 20萬이 늘었다. 이와 對照的으로 美軍兵力은 베트남戰 때 最高를 나타낸以後 每年 떨어져 1970年 310萬으로부터 1979年 210萬으로 減少됐다.

特殊任務遂行部門의 美·蘇 달러支出 對比에서 大陸間攻擊, 戰略防禦, 戰略統制 및 監視, 그리고 末梢神經攻擊軍(이分野 美國은 없음)으로 構成되는 戰略軍의 境遇 蘇聯의 支出은 지난 10年 동안 美國의 3배에 達했다.

大陸間攻擊軍의 境遇, 蘇聯의 支出은 現在 그들의 4代 ICBM인 SS-17, SS-18 및 SS-19의 配置가 完了했으므로 開發中에 있는 新型 第5代 ICBM體制를 配置할 것으로 豫想되는 1980年代 증반에 급격히 上昇하기에 앞서 잠깐 떨어져질 것으로 CIA는 내다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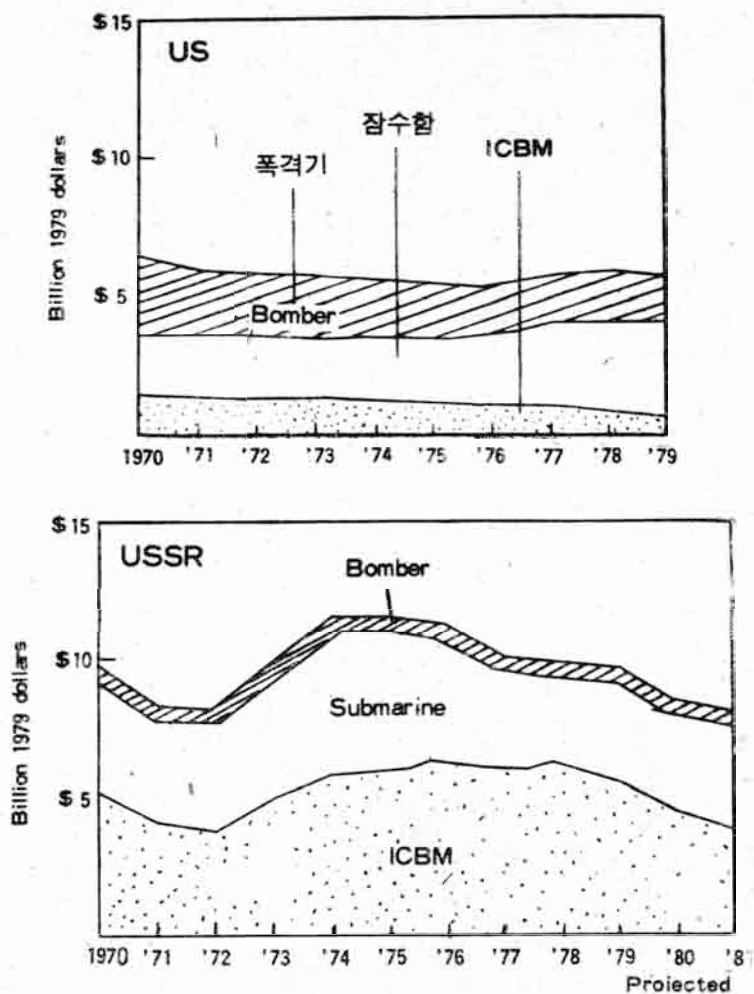
지난 10年間 蘇聯戰略防禦軍이 쓴 經費는 전체 蘇聯戰略任務遂行總經費의 약 반을 차지했다. 反面 美戰略防禦軍費는 美戰略軍總經費의 불과 15%를 차지했다. 10년 동안 蘇聯戰略防禦軍費는 1970年 美國의 5倍로부터 作年에는 25倍로 늘어났다.

蘇聯은 그들의 防空網을 加一層 改善하기 爲해 새로운 世代의 遊擊戰開機와 地對空미사일을 開發할 것이므로 蘇聯戰略防禦軍費는 1980年代 初에도 계속 增加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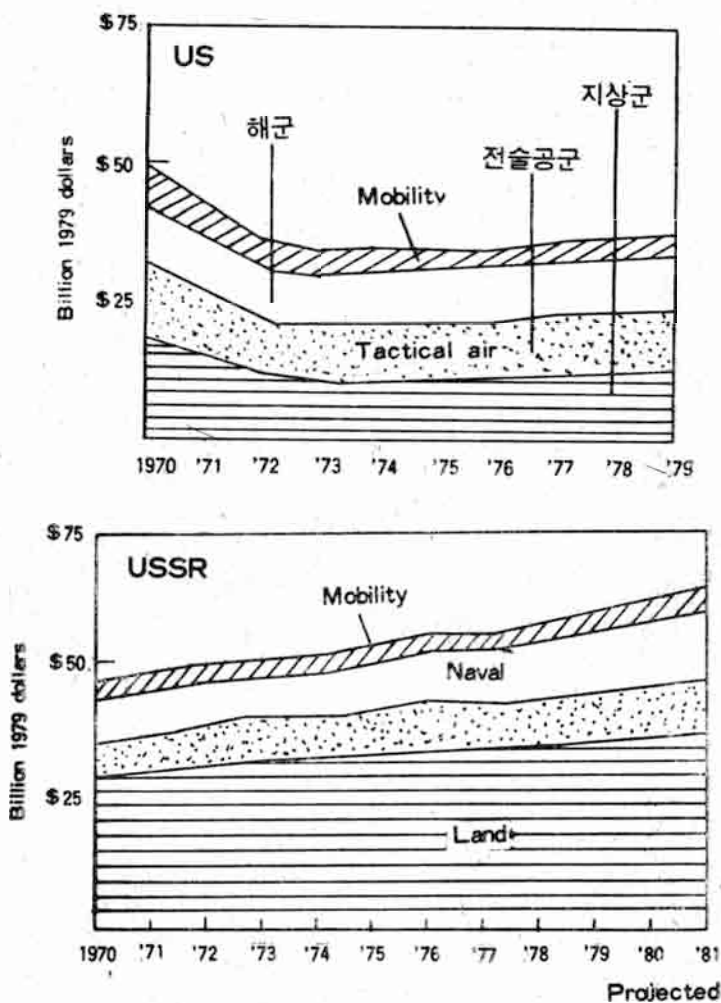
陸·海·空軍 및 機動軍을 包含하는 전체 軍分野에서 蘇聯은 美國보다 약 55%나 더 많은 經費를 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航空母艦과 附屬航空機를 包含하는 美戰術空軍의 活動費는 1970년부터 74년까지는 떨어져졌지만 그以後에는 增加됐다. 蘇聯戰術空軍費도 비슷하게 週期的이지만 위로 上昇하는 樣相을 보였다. 70年代 末까지 美戰術空軍費는 蘇聯보다 20%나 더 많다. 그러나 美航空母艦과 그 附屬航空機들이 包含되지 않는다면 蘇聯은 美國보다 1979年 한해에는 35%, 지난 10年間은 45%나 더 쓴 셈이다.

〈表 2〉 美・蘇 大陸間攻擊武器 달러價 支出對比 (1970~1981)



<表 3> 美·蘇 全軍 달러價 支出對比 (1970~1981)



海軍에서도 攻擊 및 多目的用 航空母艦과 附屬航空機들을 除外하면 蘇聯海軍費는 美國보다 約 50%나 지난해 더 많았다. 그러나 이들 戰力이 包含되면 事情은 달라져 美海軍費는 蘇聯보다 지난해 最高인 20%, 그리고 전체 10年間은 5% 더 많았다.

後方支援軍費에서도 큰 變化가 있었다. 美國의 後方支援軍活動費는 10年 동안 전체적으로 約 20% 上升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1970년에 美後方支援軍費는 蘇聯보다 3/4나 많았지만 70年代末 兩國은 똑같아졌다. 蘇聯後方支援軍費의 明白한 增加理由는 他任務遂行軍의 成長에 따라 後方支援軍의 規模를 擴大시킬 必要性 때문이었다.

地理的인 面에서, 蘇聯國防費의 莫大한 대부분이 東, 西部 前線에 쓰이지만 蘇聯國防費(RDT & E 經費除外)의 10~15%는 주로 中共前線에 쓰이는 것으로 믿어진다. 이 中共前線軍의 一部는 또한 기타 非常事態에 對處하는데 使用된다.

美軍事動向報告書가 CIA統計를 數衍해서 指摘한 바 “蘇聯의 繼續된 期間 동안 큰 폭의 國防費增加로 蘇聯은 現在

美國보다 25~50% 더 많은 軍事資産을 갖고 있다. 이 差異는 1980年代 中盤에 가면 蘇聯쪽으로 40~60% 더 커질 것이다. 蘇聯은 지난해 10年 동안 美國보다 軍事費를 더 썼을 뿐 아니라 投資도 더 했다. 長期間에 걸친 높은 軍事費 支出로 이룩된 蘇聯軍事力增強計劃의 推進力이 적어도 가까운 상태에는 軍事力均衡에 있어 美國이 現在 취하고 있는 國防豫算 增大에도 불구하고 現在の 趨勢를 계속 保障할 것이다. 다시 말해서 美國이 國防豫算을 크게 增加시키더라도 앞으로 數年內에는 軍事費의 「점」을 메꿀 수는 없을 것이 豫想된다.

蘇聯戰略軍

어느 나라의 戰略攻擊力도 勝利보다는 核戰을 防止하도록 設計돼야 한다는 西方軍事專門家들의 高邁한 생각을 信奉하는 者가 蘇聯政治局이나 總參謀部內에는 없다. 核戰에서 勝利하겠다는 意志와 能力이 缺如된 核戰抑制力이란 민약한 理由와 不充分한 戰力을 나타내기 때문에 蘇聯은 결코 이 概念에 贊成하지 않는다. 蘇聯의 核戰略 및 戰力構造는 核戰

에서의 勝利가 在來戰에서처럼 達成해야 할 必須的인 것이라는 原則에 못박혀 있다. 그러므로 蘇聯戰略軍에게 重點의 要求되는 것은 適當한 期間內에 완전히 回復될 수 있는 充分한 剩餘能力을 갖춘 地球上에서 가장 強力한 生存國으로 浮上할 것을 保障하겠다는 覺悟 속에 持久戰을 遂行할 수 있는 것이다.

이미 配置됐거나 開發中인 蘇聯戰略戰力도 이 原則에 따른다. 蘇聯戰略攻擊軍의 主戰力은 ICBM, SLBM 爆擊機의 새작인데 이들은 각기 5천個 以上の 兵器

를 美目標에 투여할 수 있다. 蘇聯戰略軍의 主攻擊力은 約 1,400基의 ICBM(大陸間彈道誘導彈)과 不確實하지만 틀림없이 많은 예비彈道彈이 차지한다. 蘇聯의 ICBM戰力은 1975年 SALT I 協定에 따라 209基의 舊式 SS-7과 SS-8이 解體된 後 數의으로 줄었다. 그러나 數的 減少는 兵器性能의 現代化로 相殺되고도 남았다. SS-16, SS-17, SS-18, SS-19로 構成된 第4代 ICBM들은 性能面에서 크게 向上해 每年 約 150基의 比率로 舊式兵器和 交替되고 있다.

<表 4> 美·蘇 戰略武器 比較(1979~1980)

	JANUARY 1, 1979		JANUARY 1, 1980	
	US	USSR	US	USSR
Offensive				
Operational ICBM Launchers ^{1,2}	1,054	1,398	1,054	1,398
Operational SLBM Launchers ^{1,3}	656	950	656	950
Long-Range Bombers(TAI) ⁴				
Operational ⁵	348	156	348	156
Others ⁶	221		225	
Force Loadings ⁷ Weapons	9,200	5,000	9,200	6,000
Defensive⁸				
Air Defense				
Surveillance Radars	99	7,000	88	7,000
Interceptors(TAI)	327	2,500	327	2,500
SAM Launchers	0	10,000 ⁹	0	10,000 ⁹
ABM Defense Launchers	0	64	0	64

이들 新型 ICBM은 디지털컴퓨터, 發射後 推進體(Post-boost vehicles), MIRVs(SS-16은 除外) 등 進歩된 誘導 System을 갖고 있다. 사일로와 指揮統制施設들도 3代 ICBM보다 훨씬 改善됐다. 4代 ICBM의 基本 特徵은 高度의 正確性, 큰 發射重量, 많은 MIRV彈頭수용력, 그리고 높고 빠른 警報反應率 등에 있다. 3代로부터 4代 ICBM의 轉換으로 蘇聯은 約 5,500個의 彈頭增加와 3/4nm으로부터 낮게는 500피트까지

CEPs(예상원형오차)를 줄이는 正確性增大를 얻게 되었다.

世界最大 ICBM은 SS-18인데 이것은 發射重量이 Titan의 2배, Minuteman III의 6배나 된다. 이 誘導彈은 303基의 舊式 SS-9의 交替用으로 지금까지 210基以上の SS-18이 4個의 다른 變形으로 配置되어 있다. Mod-4로 알려진 SS-18의 最新 變形은 不確實하지만 틀림없이 일부가 約 600킬로톤, 나머지는 約 1메가톤의 彈頭出力을 갖는 14個의 彈頭를

<表 5> 蘇聯 4代 ICBM들

Missile	SS-16	SS-17		SS-18			SS-19	
Missiles Deployed ★		About 150		More than 200			More than 200	
		Mod		Mod			Mod	
		1	2	1	2	3	1	2
Warheads	1	4	1	1	8/10	1	6	1
Maximum Range (km)**	9, 200	10, 000	11, 000	12, 000	11, 000	16, 000	9, 600	10, 100
Launch Mode	Hot	Cold	Cold	Cold	Cold	Cold	Hot	Hot
Fuel	Solid	Liquid	Liquid	Liquid	Liquid	Liquid	Liquid	Libuid

運搬할 수 있을 것이다.

2個의 다른 變形인 Mod 1과 3은 18에서 25메가톤 出力을 갖는 단독彈頭를 갖고 있다. SS-18은 發射形態가 Cold式 ICBM으로 主推進 엔진이 불붙기 前에

가스發生機의 도움으로 사일로 밖으로 튀어나온다. 이 技術은 미사일의 "Rattle space"를 줄이고 上昇力을 增加시켜 利用할 수 있는 사일로 크기보다 미사일 크기를 增大시킨다. 더구나 이 Cold-1

aunch技術은 Hot-launch보다 사일로에 Damage를 훨씬 적게 하고 附隨하여 비교적 짧은 時間 안에 사일로의 再裝填을 可能하게 한다. 이 再裝填特徵은 美監視體制가 正確히 미사일發射臺數는 셀 수 있지만 發射된 사일로에 再裝填하여 使用하는 숨겨진 미사일數는 셀 수 없기 때문에 매우 重要的 것이다.

SS-19는 美空軍이 計劃한 MX移動미사일과 대략 같은 크기인데 發射重量은 「타이탄」Ⅱ와 같고 Minuteman Ⅲ의 3배인 Hot-launch시스템이다. 이 미사일은 지금 約 200基가 配置돼 있는데 約 600킬로톤의 彈頭出力을 가진 6個의 MIRV를 운반한다.

SS-17은 또하나의 Cold-launch시스템으로서 約 150基가 配置돼 있다. SS-19보다 다소 性能이 떨어지는 SS-17은 보통 600킬로톤級 彈頭 4個를 운반하지만 단獨彈頭를 갖고 實驗된 하나의 變形이 있다. 西方專門家들도 SS-19가 대략 같은 크기中 더 優秀한 武器라는 사실에도 불구하고 SS-17이 大規模로 配置된 점에 對해서는 說明을 못하고 있다.

蘇聯 4代 ICBM中 유일하게 고체燃料를 쓰도록 設計된 것이 SS-16인데 이것

은 원래 機動性있는 ICBM으로 개발됐다. 이 미사일의 現在 變形들은 다 1個의 彈頭를 운반하지만 MIRVs를 改造시킬 選擇權을 주는 發射後推進體를 갖고 있다. 이 미사일의 實驗은 1974년에 完成됐지만 이 System의 미래는 SALT Ⅱ의 不確實性 때문에 분명하지 않다. SALT Ⅱ協定은 蘇聯의 아프카니스탄侵攻으로 現在 담보상태에 있는데 이協定은 蘇聯에게 SS-16미사일이나 또는 그 독특한 構成要素의 生産, 實驗, 配置를 못하도록 의무짓고 있다. 그러나 이 誓約은 틀림없이 무의미한 것이 될 것이다. 蘇聯은 現在 3段階推進 SS-16보다 2段階나 적어서 SALT要件에 해당되지 않는 機動性있는 MIRVed SS-20 中距離彈道誘導彈을 大量으로 配置하고 있다. 실제 兩미사일들이 운반되는 「케너스터」가 비슷하게 보이게 만들어 질 수 있어 美國은 그들을 구별할 수 없기 때문에 豫防立證을 할 수 없을 것이다.

더구나 蘇聯은 SS-16보다 2段階 높은 SS-21 MRBM(中距離彈道誘導彈)을開發하고 있다. 따라서 SS-16이나 그 독특한 構成要素를 模倣한 것의 生産, 實驗, 配置에 對한 SALT Ⅱ의 禁止는 못

음극의 성능을 비교 있다. 그러므로 SS-16은 蘇聯에게 生存力있고 機動性있는 ICBM을 美國보다 數年 앞서 迅速하고 비밀히 配置한 選擇權을 주고 있다. 合參이 指摘한 대로 蘇聯은 틀림없이 SS-16으로 機動性있는 ICBM實驗을 계속할 것이다.

ICBM性能에 있어 앞서는 蘇聯을 따라 잡을 展望은 長期間에 걸쳐서조차 밝지 못하다. 合參이 軍事動向報告에서 認定한 대로“ 308基의 SS-18級 現代式 대형 彈道誘導彈 부스터와 비교적 큰 SS-17과 SS-19부스터들로 蘇聯은 美國이 計劃한 MX展開後에도 ICBM戰力 優位를 堅持할 것이 豫想된다.

潛水艦發射誘導彈(SLBM)

지금까지 蘇聯은 SALT I 限界인 950基의 SLBM을 保有해 왔다. 이 숫자는 대략 美保有量의 1倍半이다. 이들 미사일들은 SALT監督下에 있는 62隻의 現代式「양키」및「델타」SSBN(核力艦除彈道潛水艦)으로 운반된다. 그렇지만 이밖에 25隻의 核, 또는 非核發電潛水艦에 戰區核兵器로서 SALT에 고려

안 된 Hotel과 Golf級 彈道미사일 75基가 더 있다. 美國의 칼스론 S.C에 寄港한 美海軍의 SSBN들에게 重大한 위협이 될 수 있는 것이 쿠바의 Cienfuegos에 배치된 이들 미사일이다.

現在 作戰中인 62隻의 現代式 SSBN보다 더 많은 Delta III SSBN이 建設中인 것으로 믿어진다. 蘇聯은 또한 Delta III보다 큰 Typhoon이라는 新型 SSBN을 建造中인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新型 SSBN用 미사일은 현재 配置된 蘇聯의 最新 SLBM인 4,050노티컬마일 射距離의 MIRVed SS-N-18보다 더 클 것이 豫想된다. Typhoon SSBN用 新型 미사일들은 MIRVed 이지만 固體보다는 액체推進燃料을 쓸 것이다.

現在 展開된 SLBM인 SS-N-18s와 4,800노티컬마일 射程의 SS-N-8s 대부분의 蘇聯寄港으로부터 美國目標에 發射될 수 있는 充分한 射程距離를 갖고 있다. 이 能力은 蘇聯潛水艦들이 일단 그들의 寄港인 무르만스크와 블라디보스톡을 떠나기만 하면 그린랜드-아일랜드-英國(GIUK)의「갭」, 발틱海, 흑해 및 東海와 같은 美國과 NATO ASW軍이 지키고 있는 “초크포인트”(목점)를 지나야

하기 때문에 重要한 것이다. 페트로파블로프스크의 시베리안港에 駐屯한 潛水艦들은 직접 大洋으로 接近할 수 있지만 美海軍聽音陣에 依해 모니터되는 地域을 通過해야 하므로 쉽게 對潛戰鬪兵器의 발이 될 수 있다. 蘇聯의 新型 SLBM들은 이제 막 재고품으로 들어가는 美國의 Trident(C-4) 미사일보다 射程距離와 Payload에서 優勢하다. 따라서 美國에 對한 蘇聯 SLBM의 위협은 繼續 增大될 것이다.

그러나 또다른 次元의 蘇聯潛水艦威脅은 作戰訓練中에 實驗되는 많은 蘇聯技術들이 매우 進歩되어 美專門家들이 關聯原理들을 理解하지 못한다는 點에 있다. 또한 蘇聯 Alpha潛水艦의 最近變型은 現存하는 혹은 計劃된 어떤 美潛水艦보다 더 빨리 가고 더 깊게 潛水할 수 있게 하는 티타늄船體와 精巧한 流體力學 및 進歩된 操縱裝置를 使用하고 있다. 그래서 美情報專門家들은 蘇聯이 바야흐로 ASW와 SSBN技術에서의 美國의 優位를 따라잡을지 모른다고 우려하고 있다.

蘇聯長距離空軍(LRA)

長距離空軍은 蘇聯全域에 걸쳐 3個의

主攻擊司令部에 配置된 800臺 以上の 戰略爆擊機로 構成된다. LRA軍의 約 75%는 NATO에 對해 布陣되고 나머지는 中·蘇國境에 配置돼 있다. 約 600臺의 長距離 및 中距離戰略爆擊機, 미사일運搬體들이 主攻擊力을 提供한다. LRA軍에는 約 100臺의 「터어보프롭」 엔진 Bear爆擊機와 56臺의 「터어보제트」 Bison 폭격기가 包含된다. SALT限界가 156臺인데 蘇聯에는 이 밖에 50臺 이상의 可變翼 Backfire 폭격기가 LRA와 海空軍에 각각 더 있다. Backfire機 生産은 매달 約 2.5臺꼴로 계속된다. SALT II에는 考慮되지 않았지만 Backfire의 最大航續距離는 Bison에 比較된다. 最大航續距離推定이 구구하지만 Backfire는 분명히 再給油없이 美國과 다른 나라의 目標까지 도달할 수 있다. 再給油되면 이것은 蘇聯極基地로부터 高高度, 亞音速으로 美國을 왕복할 수 있다. 美空軍의 推定에 따르면 재급유 안된 Backfire의 戰鬪반경은 約2,950nm인데, 再給油되면 5,600nm으로 늘어난다. 西方情報機關에 포착된 대부분의 Backfire가 再給油用 受油파이프를 갖고 있다. 給油機로 利用할 수 있는 約 50臺의

Bison機 또는 II-76 Candid 제트輸送機에서 파생된 新型 給油機와 공동작전으로 Backfire機는 상당한 航積距離를 延長할 수 있을 것이다.

LRA軍의 中距離用 戰力에는 연타기 ECM/ELINT Badger機 그리고 給油機로 支援받는 約 400臺의 Badger機와 Blinder機가 包含된다.

美本土에 對한 主空中威脅은 Bear機와 Bison機로부터 나온다. 4個의 「터보프롭」 엔진을 가진 Bear機는 長距離 戰略爆擊機의 最大戰力을 形成한다. 1980軍事動向報告書에 따르면 Bear機의 반 이상이 AS-3 「캅가루」 空對地미사일로 裝備되어 있다. 이 미사일은 約 650 km 射距離에 約 5메가톤 出力을 갖는 彈頭를 운반한다. 同時에 Backfire機는 AS-4 「키친」 미사일로 裝備했는데 이 미사일은 約 270nm射距離에 3~4메가톤級 彈頭를 갖고 있다. 게다가 1,000nm에 超音速으로 發射될 수 있는 크루즈미사일이 Backfire의 궁극적인 使用을 위해 개발됐다는 정보가 몇 가지 있다.

지난 수년간 蘇聯은 B-1과 비슷한 特徵을 가진 새로운 장거리爆擊機의 개발을 꾀해 왔다. 이미 여러개의 原型이 개

발되고 있으며 그들 中 한 둘은 Tu-144 Soviet SST의 派生體일 수 있다는 情況的인 證據가 있다. 이들 航空機의 飛行實驗이 始作되지 않아서 航空機性能에 관한 特別한 知識을 美정보당국이 갖고 있지 않지만 軍事動向報告書에 依하면 이들 新型爆擊機의 配置는 1988년이 될 것으로 豫想된다.

비록 SALT II 協定の 批准이 의문사되지만 蘇聯이 同協定을 준수한다고 가정하면 蘇聯戰略攻擊武器는 대략 다음과 같은 2,250基(또는 臺)의 戰略武器運搬體들로 이루어진다.

- 308基의 SS-18型 "重 MIRVed"미사일
- 510基의 SS-17 또는 SS-19型 MIRVed미사일
- 新型이 未립없는 506基미만의 단독 RVICBM
- 380基의 SS-N-18型 MIRVed SLBMs
- 470基(臺) 以上の 단독 RVSLBMs와 爆擊機의 混合體

戰略防禦軍

強力한 防禦態勢를 取해온 蘇聯의 歷

史的인 배경으로 蘇聯은 戰略防禦分野에서 明白한 戰力優位를 누리고 있다. 蘇聯防空軍은 約 12,500機の 地對空미사일 約 7,000臺의 監視레이다, 그리고 2,700臺의 遊擊機로 構成된다. 戰時에 이 軍은 約 4,500臺의 戰鬪機와 約 4,200機の SAM으로 構成되는 戰術防空軍의 몹으로 戰力を 增大시킬 것이다.

蘇聯의 主遊擊戰力은 高高度 및 中高度目標에 對한 포괄적인 능력을 제공한 다. 미그-23 Flogger와 미그-25 Foxbat는 지난 수년간 가장 널리 展開된 遊擊機가 될 것이다. "B"모델로 알려진, 向上된 레이다 性能과 強化된 저고도 遊擊能力을 갖춘 Flogger의 한 變型이 最近 配置되고 있다.

Su-15 Flagon이 防空力의 큰 몫을 차지하고 있고 Su-9 Fishpot, Yak-28 Firebar, Tu-128 Fiddler, MIG-19 Farmer, MIG-17 Fresco같은 舊式航空機가 蘇聯防空力의 約 30%를 占하고 있다.

現在 蘇聯防空能力은 정교한 底空監視레이다를 가진 조기경보기의 缺如로 절름발이 狀態에 있다. 그러나 美空軍의 E-3A AWACS에 버금가는 早期警報機

가 開發됐다는 증거가 있다.

蘇聯본토 地對空미사일 防禦軍은 長距離 高고도防禦用 SA-5 Gammon, 저고도防禦用의 SA-3 Goa, 그리고 中距離 中고도防禦用 SA-2 Guideline 미사일로 構成돼 있다. 또한 한정된 數의 SA-I Guild級 舊式미사일들이 모스크바 주위를 防禦하려고 아직 남아 있다.

蘇聯 SAM軍은 SA-5미사일 추가配置와 SA-3의 改善된 變型의 도입으로 現代化되고 있다. 게다가 크게 進歩된 SA-X-10 戰略地對空미사일이 實驗을 끝내고 配置中에 있는데 이것은 크루즈 미사일防禦用에 適合한 것으로 보인다.

彈道미사일防禦(BMD)分野에서도 蘇聯은 분명히 美國에 앞서 있다. 蘇聯 BMD軍은 Hen House早期警報레이다, Dog House 및 Cat House戰鬪制御레이다 그리고 Try Add 交戰레이다로 構成된다. Galosh-Ib遊擊體制는 모스크바 부근에 配置돼 자기 16個의 發射臺를 갖춘 4固의 콤플렉스로 이루어진다. 各 콤플렉스는 사이트마다 2個의 대형추적레이다, 4個의 소형遊擊機추적 및 유도레이다를 갖춘 Try Add交戰레이다사이트를 2개씩 갖고 있다. Galosh는 수백마

일射程距離에 1~2메가톤급 핵탄두를 운반한다. 蘇聯이 現在 展開된 64個體制 이외의 요격기발사대를 증가할 計劃이라는 증거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해서 현재의 早期警報 및 전투제어레이다를 向上시키고 Hen House 早期警報網을 擴張시키고 있다. 또한 蘇聯은 레이다改善과 새로운 요격기미사일의 研究開發을 強化하고 있다. 소위 4個의 X3 BMD戰鬪制御레이다들이 蘇聯外部에 配置된 進歩된 레이다와 컴퓨터能力을 統禦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新型 레이다들은 舊 System과 함께 前보다 좋은 目標操作과 충돌豫報를 할 것이 될 것이다.

싸트는 民防衛力

蘇聯은 民防衛를 전체軍事戰略의 統合體로 다룬다. 萬一 戰爭이 일어나면 다른 수단과 함께 民防衛를 通해 自國의 生存을 保障하고 蘇聯을 相對方보다 더 強力한 戰後 위치를 갖도록 하고 있다. 따라서 民防衛는 계속되는 軍事作戰 동안 병참기지기능을 유지하고, 제한된 人的, 物的 손실을 돕고, 핵전의 영향으로부터

빠른 회복을 하는데 기여하는 수단이다.

民防衛活動은 蘇聯政府 및 經濟構造에 있는 10萬名 以上の 전담자로 구성되는 전국 民방위組織에 依해 指示된다.

蘇聯민방위計劃의 한가지 主目的은 核戰에서 蘇聯指導層의 生存을 保障하는 것이다. 적어도 소련 지도층 110萬名을 위한 초강력방커들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전체 민간노동력의 20~24%에게도 높은 수준의 保護가 주어진다. CIA報告에 따르면 “불과 수시간의 경보에 依한 攻撃의 경우에도 많은 퍼센트의 指導層이 살아 남을 것이다. 최악의 경우에도 무제한의 核戰으로부터 死傷者는 1億, 最上の 境遇에는 수천만名으로 줄일 수 있을 것이다. 經濟生産資源, 特別 工業의 生存을 保障하는데 관계된 蘇聯民防衛計劃의 效果는 꽤 많은 편이다.”

점증하는 蘇聯戰區核軍(TNFs)

蘇聯軍事路線은 유럽에서 軍事的 衝突이 核戰을 加増시킬 것이라는 敎理와 일치된다. 소련戰區核軍의 비대한 成長도 이 路線의 結果다. 蘇聯의 TNFs軍에 할당된 重要任務中的 하나가 빠르고 先

<表 6> 美/NATO와 蘇聯地上基地 戰區核武器 比較

	Missile Range/ Aircraft Radius(km)	Strike Inventory				
		1980		Mid-1980s (Estimated)		Weapon per System ^c
		Total Worldwide	European Theater ^b	Total Worldwide	European Theater ^b	
Soviet						
SS-20 Launchers	4,400	100	60	250~300	°	3
Backfire Bombers ^d	4,200	60	40	100~150	°	4
Older Missile Launchers	1,900~4,100	450	450	50~? ^f	50~? ^f	1
Older Bombers ^d	2,800~3,100	450	350	350	300	2
NATO						
UK Vulcan Bombers	2,000	56	56	0	0	?
US F-111 DCA	1,800	365	170	254	166	2
US GLCM ^e	2,000	0	0	464	464	1
US Pershing II ^g	1,000	0	0	108	108	1

手權을 가진 NATO TNFs과괴에 있지 만 3,000마일 以上 사정거리를 가진 IRBM인 機動性있는 MIRVed SS-20의 연구 및 대대적인 配置가 이 軍의 기본 방향이 攻擊的이라는 것을 證明한다.

현재 配置된 300基 외에 各各 500킬로 톤급 탄두 3개를 가진 SS-20미사일 約 1,200基가 計劃되고 있다. 現在 配置된

미사일 約 半이 NATO目標에, 나머지 半이 中東·中共·日本의 目標에 布陣하고 있다. SS-20의 增大는 거의 20年된 舊式 SS-4「센달」과 SS-5「스케안」中 距離彈道彈과 交替하기 爲해서다.

蘇聯內 사이트에서 全西區를 威脅할 수 있는 SS-20 미사일은 各各 9個의 發射管을 갖고 있는 35個 Launch 콤플렉

스속에 配置돼 있다. 차례차례로 各發射臺는 3個미사일을 再裝填할 수 있어 約 1,200基의 미사일을 더 갖는 셈이다. SS-20은 美國의 감시 統制에 아랑곳 없는 고도로 機動性있는 體制로 美情報기관에서 평가한다. 이 미사일은 어떤 事前 감시 안된 사이트로부터 發射될 수 있고 生存力도 높은 것으로 評價된다.

蘇聯 TNFs는 誘導 Frog 전술로켓트, 160노티컬마일射程의 Scud, 500노티컬마일射程 Scaleboard도 包含한다. 2個 新型體制인 SS-21과 SS-22가 在庫되고 있어 조만간 Frog와 Scaleboard를 代替할 것이 豫想된다.

蘇聯은 또한 현대식 2重性있는 전투, 爆擊機로 그들의 核武器수송能力을 크게 增加시켰다. 最近의 Fencer, Flogger 및 Fitter機는 生存力도 좋고 射程거리와 Payload도 增加해서 NATO후방 깊숙한 目標까지 核威脅을 増大시키고 있다. 게다가 소련은 戰區核戰任務에 約 500臺의 Badger와 Blinder 장거리爆擊機 뿐 아니라 Backfire機까지 利用할 選擇權을 갖고 있다.

소련海軍도 全 유럽목표를 强打할 수 있는 核武装된 彈道미사일로 TNF軍에

加勢할 수 있다. 기타 海空, 海上, 海底 플랫폼에서도 크루즈미사일, SAMs, ASW水中爆彈 및 로켓트, 어뢰, 艦砲 등을 通해 다양한 核武器를 發射할 수 있다. 蘇聯과 바르샤바조약군의 방사능戰遂行을 爲한 訓練은 심각한 것이다.

蘇聯地上軍

蘇聯地上軍은 約 180萬으로 蘇聯內 16個 軍區, 東區의 4個集團軍, 몽고 1軍으로 組織된다. 地上軍의 主戰衛部隊은 24軍, 10軍團, 173個師團으로 편성돼 있다. 蘇聯地上軍師團의 3/5는 各其 1萬2千의 兵力을 가진 自動소총師團이고 나머지는 空輸師團과 戰車師團, 그리고 砲師團으로 構成돼 있다.

蘇聯地上軍은 지난 70年 以來 約 20萬의 兵力과 22個師團이 增加됐다. 또한 새로운 裝甲體制가 많이 도입됐고 在來戰遂行能力도 新型砲, 對戰車誘導彈, 對空武器도하裝備, 소형武器, 裝甲輸送차량 등의 追加配置로 強化됐다.

바르샤바條約軍은 NATO地域에 約 4萬 5千臺의 輕, 中, 重戰車를 保有하고 있는데 그 대부분이 T-62로 美國의 嚴

新 M-60戰車에 比較된다. 이밖에 더 새롭고 進歩된 T-64 및 T-72戰車가 大量으로 配置中에 있다.

前線空軍(Frontal Aviation)

지난 수년간 새로운 現代式 航空機의 大대적인 도입으로 蘇聯은 前線空軍 多方面의 戰鬪力을 向上시켰다. 이들 신형 航空機는 IR誘導미사일 및 스마트폭탄 같은 現代式병기를 갖고 있다. 前線空軍은 4百 30臺의 戰鬪訓練機를 除外한 約 4千 7百臺의 固定翼航空機를 갖고 있다.

蘇聯신형戰鬪機들은 적어도 最大속도가 7百노트(1,295km/시)에 約 15nm射程의 空對空미사일을 갖고 있으며 戰鬪반경은 5百노트킬마일을 넘는다. 蘇聯對地攻擊機들은 約 3百노트킬마일 반경에 4千파운드의 Payload를 갖고 있다. 보다 단거리에서 이들 戰鬪機들은 1萬파운드와 폭탄과 로케트 誘導미사일을 發射한다.

대대적인 現代化計劃으로 前線空軍(FA)의 戰鬪力이 強化되고 있다. FA의 全遂擊機와 對地攻擊機의 75%가 지난

10年內 紹介된 航空機들이다.

約 5,500臺의 蘇聯헬리콥터軍도 成長과 現代化를 슬로건으로 내세우는데 이中 NATO에 對해 配置된 對地空擊헬機들의 現代化가 特別 強調되고 있다. 여러가지 新型 高性能헬機들이 개발되서 멀리서도 目標를 强打할 수 있다.

蘇聯은 現在 前線空軍의 對地攻擊力을 向上시키기 爲해 보다 精巧한 多目的 航空機開發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輸送空軍(Military Transport Aviation)

蘇聯空軍에 從屬된 3個司令部中 하나인 蘇聯輸送空軍(VTA)의 火物運搬力은 約 20미터톤(20,000kg)의 積載량을 가진 中距離用 터보프롭 4엔진의 An-12 Cubs機가 거의 대부분인 約 700臺의 中 및 重輸送機가 提供하고 있다. 保有中인 最大輸送機는 An-22 Cook機로서 戰車같은 特大形貨物을 包含한 80미터톤 Payload를 運搬할 수 있는 長距離用 터보프롭엔진 航空機다.

VTA의 最新航空機는 Il-76 Candid機로서 現在 120臺가 취역 중이다. 蘇聯

의 유일한 航空社인 Aeroflot所屬機들도 戰時 또는 非常時에 軍輸送力을 增大시킨다. 승무원들은 動員軍事訓練을 받는다.

Aeroflot의 1,300臺 中距離 및 長距離航空機 대부분이 後尾적제特徴을 갖지 않아서 그들은 대형차량은 운반할 수 없고 따라서 소형裝備과 兵力輸送에 限定된다.

海軍(Naval Forces)

연안방어용에서 世界最強중의 하나로 까지 蘇聯海軍의 比較的 빠른 發展은 많은 수의 소형, 단순형 배로부터 보다 크고 성능좋은 배로의 政策변환을 通해 달성된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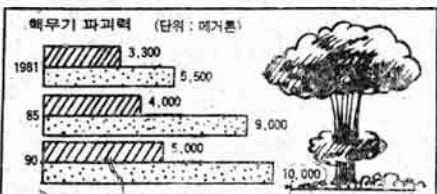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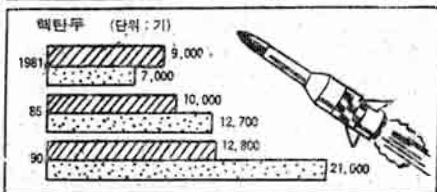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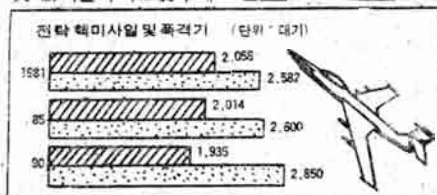
蘇聯海上軍은 2隻의 키에프급航空母艦(또 한척이 最近 進水되었음), 2隻의 모스크바級 순양함, 25隻의 미사일순양함, 10隻의 砲순양함, 36隻의 유도미사일로 장비된 구축함, 35隻의 재래식 구축함, 163隻의 프리게이트艦(1943년형 對潛水艦用 소형구축함)으로 構成된다. 蘇聯해군은 또한 270隻의 多目的潛水艦과 約 90隻의 水陸兩用船을 자랑하고 있다.

蘇聯艦船들은 전반적으로 西方艦船보다 重武装되어 훨씬 더 많은 砲와 在來式 ASW 兵器를 갖고 있다.

蘇聯艦船들은 長期戰보다는 短期, 集中 交戰에 有利한 것으로 보인다.

蘇聯海空軍은 多様な 任務를 遂行할 수 있는 約 1,320臺의 航空機로 構成된다. 對艦미사일로 裝備된 約 300臺의 배적機와 블라인더機가 對艦主攻擊力을 이

美·蘇核戰力 비교 및 추세  미국  소련



※ 1980년대 美·蘇 核戰力 趨勢

문다. 約 50臺의 對艦用 백과이어爆擊機들이 最近 配置됐고 母艦에 基地를 둔 많은 수의 Forger V/STOL機와 Fitter 地上基地機들이 海軍攻擊用으로 할당되었다.

蘇聯海空軍은 約 130臺의 연락기와 約 80臺의 Badger 給油機로 支援받는다. 그밖에 ASW任務에 할당된 370臺의 航空機와 헬機, 290臺의 水陸兩用機, 輸送

機 및 訓練機가 海軍을 補強하고 있다.

끝으로 이와 같이 蘇聯의 軍事力이 全世界에 걸쳐 增強되고 있는데 이처럼 覆權主義를 向한 蘇聯의 突進으로 야기될 1980年代의 前兆는 무엇인가?

萬一 美合參의 評價가 옳다면 蘇聯의 아프카니스탄侵攻은 世界覆權을 장악하기 爲한 시험에서 '1980年代의 1回戰을 알리는 始作俑에 불과한 것이다.

<名將 名言>

戰爭에서 성공하는 四분의 三은 精神的 要素에 기인하고 四분의 一만이 物資에 좌우된다.

— 나폴레옹 —

절대로 陣地를 양보하지 말라! 진지를 고수하는 것이 잃었던 진지를 재 탈환하는 것보다 몇 갑절의 犧牲을 적게 하기 때문이다.

— 팻튼 —

勇氣는 모든 軍事活動을 成功시키는 基礎이다.

— 맥아더 —

高麗名將

姜

邯

贊

編輯室

姜邯贊의 처음 이름은 殷川이요, 본관은 衿州(경주)이다. 그의 5대조 餘清이 신라 때에 始興郡으로 와서 살았는데, 이곳이 곧 衿州다. 그의 아버지는 弓珍인데 고려 太祖를 섬겨 三韓壁上功臣이 되었다.

감찬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기이한 계략이 많았다. 成宗朝 때 甲科 제1인에 뽑혔고, 벼슬이 여러 번 옮겨져 禮部侍郎이 되었다. 顯宗 元년에 契丹(거란) 임금이 스스로 장수가 되어 평양을 공격해 와서 우리 군사가 패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때 여러 신하들은 항복하자는 의견들이었으나 감찬은 홀로 말하기를,

「오늘날의 일은 그 죄가 康兆에게 있으니 벌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적은 군사로서 많은 적을 대항할 수 없으니, 마땅히 적의 銳鋒을 피했다가 서서히 회복을 도모할 것입니다」 했다.

이에 왕을 권하여 남쪽으로 거둥하게 했다. 2년에 國子祭(齎)酒가 되었다가 다시 翰林學士, 承旨, 左散騎常侍로 옮기고 中樞使가 되었다. 이 때 社稷壇을 수리할 것을 청하여 禮官으로 하여금 의논하여 결정짓게 했다. 다음에 吏部常書로 벼슬이 끝났다. 감찬은 본래 발 12結이 開寧顯에 있었는데, 왕에게 아뢰어 이것을 軍戶에 주도록 했다.

9년에는 西京留守 內史侍郎 同內史門下平章事가 되었다. 이때 왕이 손수 사

령장을 써서 주면서,

「경술년에 오랑캐의 난리가 일어나 적병이 한강가에까지 들어왔었는데, 당시 姜公의 말을 듣지 않았더라면 온 나라가 오랑캐의 땅이 되었을 것이다.」
했다. 이것을 당시 세상에서 모두 영광스럽게 여겼다.

거란의 蕭排押이 침입해 왔을 때, 그들 군사의 수가 10만 명이라고 떠들었다. 이 때 감찬은 西北面 行營都統使로 있었는데, 왕은 그를 上元帥 大將軍에 임명하고 姜民瞻으로 副將을 삼고, 內史 舍人 朴從儉과 兵部郎中 柳參을 判官으로 삼아, 군사 20만 8천 3백 명을 거느리고 寧州(安州)에서 興化鎮(義州郡 咸遠面)에까지 주둔했다. 여기에서 다시 騎兵 1만 2천명을 뽑아서 산골짜기 속에埋伏시키고, 긴 새끼에 쇠가죽을 꿰어 성 동쪽의 큰 배를 막고 기다리고 있었다. 적병이 도착하자 막았던 넷물을 트고 伏兵이 내달아 크게 깨쳤다. 排押이 군사를 이끌고 바로 鏡城으로 달아나자 姜民瞻이 뒤를 쫓아 慈州 來口山에서 또 크게 깨쳤다. 또 侍郎 趙元은 馬灘에서 공격하여 적병 만여 명을 죽였다.

이듬해 정월에 거란 군사가 서울을 침략한다 하자 감찬은 兵馬判官 金宗鉉을 보내어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빨리 가서 지키게 했다. 또 東北面 兵馬使도 역시 군사 3천 3백 명을 보내어 이를 후원했다. 이 때 거란은 군사를 돌려 連川,

渭州에 이르렀다. 감찬 등은 이를 엄습해서 적병 5백여 명을 베었다. 2월에 거란 군사가 龜州를 지나게 되었다. 이 때 감찬 등은 동쪽 들에서 맞아 싸웠는데 양쪽 군사가 서로 비티고 있어 승부가 결정되지 않았다. 이에 宗鉉이 군사를 이끌고 달려 들어가니, 갑자기 風雨가 남쪽에서 일어나서 깃발들이 북쪽을 향했다. 우리 군사는 이 형세를 타고 힘껏 싸우니, 용기가 배나 생겨 거란 군사들은 패해 도망했다. 우리 군사는 그 뒤를 쫓아 쳐서 石川을 지나 盤嶺에 이르렀는데, 적의 시체가 들에 널려 있고, 모로로 잡은 군사와 馬匹, 그리고 병기는 그 수를 셀 수 없이 많았다. 이 때 적군으로 살아 돌아간 자는 겨우 수천 명 밖에 되지 않았으니, 거란이 이렇게 크게 패해 보기는 처음이었다.

거란 임금은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하여 사신을 보내어 排押을 책망했다.

「네가 적을 경솔히 여기고 깊이 들어갔다. 이 꼴이 되었으니, 무슨 면목으로 나를 보려느냐? 朕은 마땅히 네 낮가죽을 벗겨 죽일 것이다.」

감찬이 3군을 거느리고 개선해 돌아와서 포로를 바치자, 왕은 친히 迎波驛에 나와 맞고, 비단으로 누각을 만들어 음악을 갖추고서 壯士들에게 잔치를 베풀어 주었다. 이 자리에서 왕은 친히 금으로 만든 꽃을 감찬의 머리에 꽂아 주고 왼손으로는 감찬의 손을 잡고 오른손으

로는 술잔을 잡고서, 감찬을 위로하고 칭찬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감찬은 절하고 감사해 하기를 마지 않으니, 드디어 이 역 이름을 고쳐서 興義라 하고,驛吏들에게 冠帶를 하사하고, 고을 관리들에게도 모두 상을 주었다.

감찬이 글을 올려, 늙었기 때문에 벼슬을 내놓겠다고 청했으나, 왕은 이를 허락하지 않고 几杖을 하사하고, 사흘에 한 번씩만 조회에 나오도록 하고, 그에게 檢校太尉 門下侍郎 同內史門下平章事 天水關開國男의 칭호를 더해주고 食邑 3백 戶를 내렸다. 그리고 推忠協謀 安國功臣의 칭호를 내렸다.

11년에 감찬은 또 글을 올려 벼슬을 내놓겠다고 청하니 왕은 이를 허락하고, 特進檢校太傅城 天水關開國子의 칭호를 더 내리고 食邑 6백 호를 주었다. 감찬은 서울에 성곽이 없으므로 羅城을 쌓도록 청하자, 왕은 이를 좇아 王司道를 시켜 성을 쌓게 했다.

21년에 門下侍中을 拜했다. 德宗이 즉위하자 開府儀同三司 推忠協謀 安國奉土功臣 特進檢校太師侍中 天水郡開國侯의 벼슬을 제수하고 食邑 1천 戶를 내렸다. 얼마 후에 감찬이 죽으니 나이가 84세였다. 3일 동안 조회를 폐지하고 시호를 仁憲이라 내렸다. 왕은 百官에게 명하여 舍葬하고 조상하게 했으며, 부의를 내리는 것을 한결같이 侍中 劉瓘에게 하면

禮와 같이 했다.

세상에 전하는 말에, 어느 사신이 始興郡에 들어가다 보니 큰 벌이 어떤 民家로 떨어지는 것이었다. 사람을 시켜 그 집에 가 보게 했더니, 여인이 사내 아기를 낳았더라고 한다. 사신은 마음속으로 이상히 여겨 그 아이를 데려다가 길렀는데, 이가 바로 姜邯贊이었다고 한다.

감찬이 정승이 된 뒤에 宋나라 사신이 우리 나라에 왔다가 그를 보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내려가 절을 하고는, 「文曲星을 뵈은 지 오래 되었더니 이제 이곳에 계십니까?」 했다고 한다.

감찬은 성질이 청아하고 겸소하여 塵業을 경영하지 않고, 몸질은 작은데다가 다 떨어진 옷을 입은 보통사람에 지나지 않았다. 하지만 얼굴빛을 바르게 하고, 조정에 서서 큰 일을 처리하고, 큰 계책을 결정 지을 때에는 뚜렷한 국가의 柱石이 되었다. 이 때 국식은 풍성하고 백성은 편안하여 안팎이 태평하니, 사람들은 이를 감찬의 공이라 했다.

벼슬을 내놓고 성 남쪽에 있는 별장으로 돌아와서는 「樂道郊居集」과 「求善集」을 저술했다.

뒤에 顯宗의 廟庭에 배향되고, 文宗은 守太師兼 中書令을 증직했다.

우리는 대한민국군

모기윤 작사
김희조 작곡



영광된 조국앞에 자랑스런 우리용사
땅에 서 바다에서 높이 포문을 하늘에서



나라 위한 보람에 의기도 드높다
필승의 굳은신념 태양보다 뜨겁다



살아서 겨레의 꽃 죽어서 겨레의 별
늘름한 우리 위풍 충정에 불타오니



장히 다 새역사의 선봉에 선 대한의 건아
애국애족 붉은정열 내 나라에 바치리라

(후렴)



아! 우리는 용감한 대한의 국군



빛 내리 내 조국 영원무궁빛 내리

은익의 노래

조지훈 작사
김성태 작곡

힘차게



국 토 - 물 지 키 려 는 원 이 뭉 - 쳐 서
하 늘 - 을 지 키 려 는 원 이 뭉 - 쳐 서



하 늘 높 이 메 지 어 솟 아 오 - 르 - 니
죽 음 으 로 맹 세 코 날 개 를 - 퍼 - 니



그 이 름 도 아 름 답 다 창 공 의 용 사
그 모 습 도 믿 어 읊 다 창 공 의 용 사



해 - 동 청 보 라 매 - 가 바 람 을 - 탄 - 다
검 은 구 림 해 - 치 - 며 웃 으 며 - 간 - 다



하 늘 에 살 아 서 높 아 저 라 이 상 아
하 늘 에 살 아 서 넓 어 저 라 도 량 아



희 망 에 빛 나 는 아 - 은 빛 날 개 다
정 의 에 빛 나 는 아 - 은 빛 날 개 다

보라매의 꿈

정훈감실 작사
여 매영 작곡

즐겁게



1. 기상 의 나 팔 소 리 나 - 들 깨 우 고
2. 출격 의 요 동 소 리 지 - 축 혼 들 고



우 령 찬 폭 음 소 리 삼 천 만 을 깨 우 - 네
폭 음 이 메 아 리 처 하 - 늘 - 지 킨 - 다



질 구 른 하 늘 위 에 하 얀 줄 두 너 -
오늘 도 나 른 - 디 저 하늘 높 이 -



오늘 도 우 리 - 는 하 - 늘 - 에 산 - 다
오늘 도 나 른 - 다 저 - 하 - 늘 높 - 이

(후렴)



이 곳 이 내 집 이 다 내 목 - 숨 건 곳



끝 없 이 별 차 지 는 보 라 매 의 꿈

비행 행진곡

최용덕 작사
김성태 작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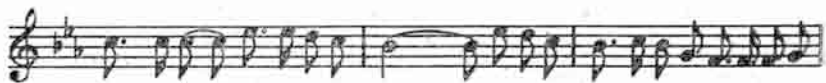
대담하게



1. 석 석 한 이 나 라에 대 한 의 아 - 들 - 빛 나 는
2. 용 감 한 젊 은 - 이 대 한 의 아 - 들 - 하 늘 도



배 달 문 화 전 통 을 잇 - 고 - 새 로 운
좁 을 새 라 용 솟 는 의 - 기 - 날 새 인



지 유 낙 원 건 설 하 고 자 - 거룩한 싸 움터 에 이 몸 바 쳤
애 기 에 - 몸 을 실 고 서 - 오늘 도 날 고 나 배 무 든 하 늘

(후렴)



네 - 저 하 늘 - 늘 - 넓 은 들 에 날
로 - 하 - 은 - 우 리 들 의 영



개 - 처 - 가 세 막 힘 이 있 - 을 -
원 - 한 - 소 망 하 늘 은 우 리 들 -



까 위 르 - 아 래 르 하 터
의 영 원 한 일 -

선 고(宣 告)

프란츠 카프카

<作者紹介>

프란츠 카프카는 1883년 프라하에서 출생하여 비엔나 군교 키어링에서 1924년 사망하였다. 그는 부유한 유태인 상가에서 태어나 프라하 대학에서 법률학을 전공하여 1906년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 후 베를린에서 문필생활을 계속하였는데 대표작으로는 변신(1916), 선고(1916), 시골의사(1920) 등의 단편과 심판(1925), 성(城)(1926), 아메리카 등의 장편과 기타 일기(1951), 미래에나에 보내는 편지(1952) 등이 있다.

그가 실존주의 문학의 유니크한 소설가로서 독일과 전세계에 새로운 평가를 받게 된 것은 제2차대전 후부터이며 영국과 미국에서 먼저 인식되었다.

<선고>는 카프카의 다른 작품처럼 너무나 암시적인 작품이다. 따라서 아무도 단정적인 해설을 할 수 없는 한편 누구에게나 하나의 해설이 가능한 작품이기도 하다.

아버지와*아들과 또 아들의 친구와의 삼각관계에서 율법의 수호자인 아버지는 율법의 충실한 실행자인 아들의 친구가 참된 아들이고 자기 아들은 위선자로 규정해 버린다. 아들의 눈에는 아버지가 우스꽝스러운 희극배우로 보인다.

아들은 아버지에게나 친구에 대해서 표면상 성실하고 세심하나 마음 속에는 해명할 수 없는 고독감과 배타적인 방만과 옹고집에 굳어 있다. 아버지는 양심이 경직된 이 아들에게 익사형(溺死刑)의 사형선고를 내린다. 그리하여 양심의 가책을 받은 아들은 강에 투신 자살한다.

화창한 이른 봄의 어느 일요일 오전이었다. 젊은 상인(商人) 게오르크 베데만은 2층에 있는 자기의 거실에 앉아 있었다. 부근의 주택들은 개천을 따라 나직하고 아담하게 늘어서 있었고 높이와 색깔만이 서로 조금씩 다를 뿐이었다. 그는 방금 외국에 나가 있는 어린 시절의 친구에게 편지를 써 놓고는 마치 장난이라도 하듯 그것을 천천히 봉했다. 그런 다음 그는 책상에 팔꿈치를 피고 창 밖으로 시선을 던졌다. 거기에는 개천과 다리와 연초록으로 물든 맑은편 언덕이 바라다 보였다.

그는 집안 살림에 대해 불만을 품고 몇해 전에 소련으로 도망쳐 버린 그 친구를 생각해 보았다. 그 친구는 페테르부르크에서 어떤 사업을 경영했었다. 처음에는 괜찮게 되었던 모양이나 수년 전부터는 그의 귀향(歸鄉)이 점차로 드물어졌을 뿐더러 그때마다 사업상의 고충을 늘어놓는 것으로 보아 이미 사업은 기울어진 것 같았다. 그 친구는 이국에서 쓸데없이 고생만 축도록 했고 어린 시절부터 낯익은 그 얼굴에는 어울리지 않는 수염만이 거칠었으며 누런 안색은 무슨 병자 같았다. 그의 말하는 품으로 보아 그는 동향 사람들인 그 지방의 독일 사람들과 별로 연락도 없는 모양이었다. 게다가 토착민들과도 접촉이 있는 것도 아니어서 그는 할 수 없이 독신생활을 하고 있었다. 확실히 길을 잘못 든

사람이었다. 누구나 동정은 하면서도 도와줄 수가 없는 사람, 그런 사나이에 게 도대체 뭐라고 편지를 쓴다는 말인가.

고향으로 돌아와 여기서 다시 살림을 시작하고 옛 친구들과의 관계도 다시 회복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제로 아무런 장애도 없었지만 그리고 그 밖에도 친구들의 협조를 믿어 보라고 그에게 충고해 주어야 할까? 그러나 그렇게 말해 준다는 것은 결국 그때까지의 그의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으니 이제는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 집으로 돌아와야 되며, 또 되돌아온 사람은 언제나 모든 사람들의 조소를 받게 마련이지만 그래도 친구들만은 그를 어느 정도 이해할 것이니 고향에 남아 있으면서 성공한 친구들의 뒤를 이제부터 따라야 할 나이 먹은 어린애에 불과하다는 의미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그를 괴롭히는 그러한 모든 고민이 도대체 무슨 목적이 있겠는가? 어느 무엇으로도 그를 고향으로 다시 데려올 수는 없을 것이다. 그 자신도 이미 고향의 사정들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다고 말했었다. 그러니 그는 무슨 일이 있어도 그냥 이역에 남아 있을 것이며 친구들의 충고로 인해 오히려 기분을 상해서 친구들과도 소원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가 실제로 그런 충고에 따라 이곳에 돌아와서 그의 마음이 비켜서라기보다는 여러가지 사정 때문이겠지만 오히려 더욱 생기를 잃어버리고 친구들

사이에서나, 혹은 혼자 있을 때나 수치감에 괴로와하며 고향도 친구도 사실상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된다면 차라리 이역에 그냥 남아 있는 것이 그를 위해서 더 좋지 않을까! 그런 사정들을 고려해 볼 때는 그가 이곳에 와서 더 나아지리라 하는 보장도 없지 않은가!

이러한 여러가지 이유 때문에 멀리 떠나 있는 다른 친구라면 기탄없이 전할 수 있는 것이라도 그에게만은 사실대로 편지를 쓸 수가 없었다. 그 친구는 벌써 3년 이상이나 고향에 돌아오지 않았다. 그것은 소련의 정국이 불안해서 할 수 없다고 그 친구는 설명했던 것이다.

수 많은 소련인들이 마음놓고 세계를 돌아다녀도 소상인은 잠시라도 집을 비울 수가 없었다고 했던 것이었다. 그러나 그 3년 동안에 고향의 게오르그에게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우선 2년 전에 모친이 돌아가셨고 그 후부터 게오르그는 늙은 부친과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은 잘 아는 터였고 어느 편지에선가 그 친구는 무뚝뚝한 말투로 어머니가 돌아가신데 대해 조의를 표해 온 일도 있었다. 이역방에 있으면서도 그런 사건에 대해서 슬픔을 느낀다는 것은 좀처럼 상상할 수도 없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무척이나 무뚝뚝한 말투였었다.

게오르그는 언제나 그랬지만 그때부터 더욱 단단한 결심을 가지고 자기의 사업을 꾸려가고 있었다. 모친이 살아 있을

때는 사업상에 있어서 부친이 너무 자기의 고집만 내세웠었다. 사실 게오르그씨는 많은 활동에 제약을 받았으나 모친이 세상을 떠난 다음에는 부친은 장사일을 돌보기는 했으나 여러가지 면에서 손을 떼게 되었다. 그리고 우연한 사건이 커다란 계기가 되어 2년 동안에 사업은 갑자기 번창하게 되었다. 종업원도 배로 늘려야 했으며 매상고도 4, 5배나 늘게 되었다.

그러나 그 친구는 게오르그의 이러한 변화를 조금도 모른다. 훨씬 전의 일이지만 그 친구가 마지막으로 조의를 표해 온 어느 편지에서였다. 그는 게오르그더러 소련으로 이주하라고 말하면서 페테르부르크에는 게오르그의 영업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여러가지로 보인다고 자세히 적어 보내온 일도 있었다. 그러나 게오르그의 사업이 이론 발전에 비한다면 그가 제시한 그런 숫자쯤은 아무 것도 아니었다. 그러나 게오르그는 자기의 사업상의 성공을 그 친구에게 적어 보내고 싶지는 않았었다. 그리고 그 후라도 만일에 그런 편지를 썼더라면 정말 그 꼴이 이상하게 되었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게오르그는 일요일 같은 쉬는 날이면 흔히 떠오르는 대수롭지 않은 사건만을 그에게 적어 보내었다. 고향친구로 하여금 오랫동안 떠나있으면서 고스란히 지낼 수 있고 만족할 수 있었던 고

함에 대한 여러가지 생각을 호트리고 싶지가 않았던 것이다. 그래서 게오르그는 그 친구에게 어떤 평범한 남자가 그저 그런 평범한 여자와 결혼한 사실을 벌써 세 번씩이나 적어 보낸 적이 있었다. 게오르그로서는 미처 생각지도 못한 일이지만 그 친구는 그러한 사연에 대해서 매우 흥미를 느끼기 시작했던 것이다.

그러나 게오르그는 그런 남의 일은 써 보내면서도 자신이 한 달 전에 어떤 부유한 집안 처녀인 프리다부란덴펠트 양과 약혼했다는 사연은 써 보내지 않았다.

게오르그는 가끔 자기 약혼녀에게 그 친구와 자기와의 특별한 서신 연락에 대해서 말해준 적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분은 우리 결혼식에는 참석 못하겠군요.」하고 그녀는 말했다.

「저는 무엇보다도 당신의 친구들을 모두 알아두고 싶었는데요.」

「나는 그 친구를 괴롭히고 싶지 않아. 내 말을 잘 들어 봐요. 그 친구는 틀림없이 울거야. 틀림없다니까. 그러나 그가 내키지 않는 길을 왔다가 기분을 잡치거나 나를 부러워하고 불만스럽게 느끼면 나머지 그 불만을 한아름 안은 채 혼자 다시 돌아갈지도 모르지, 혼자서 말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하겠어?」

「네, 알겠어요. 그렇지만 그 분이 저희들의 결혼소식을 다른 데서 알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물론 그거야 나로서는 어쩔 수 없는 일이지. 그러나 그의 생활태도로 미루어 보전대 그런 일은 없을 거야.」

「당신에게 그런 친구가 있다면 당신은 이에 약혼도 하지 말 걸 그랬어요.」

「그래, 그건 우리 두 사람의 책임이지 그러나 나는 지금에 와서 마음을 돌릴 생각은 없어.」

이때 그녀는 갑작스런 그의 키스를 받아 숨을 헐떡이며 말했다.

「그래도 그 친구가 마음에 걸려요.」 여자가 그렇게 말하자 게오르그는 그 친구에게 모든 사건을 다 적어 보내도 그것이 정말 그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되었다.

「나는 이런 사람이야. 그러니 그 친구도 나를 이런 인간으로 받아들여야 되지.」하고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리다가 이어서 말을 계속했던 것이다.

「아마 그 친구와 이렇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은 나밖에 없을 거야.」

그리고 그는 그 친구에게 이 일요일 오전에 쓴 편지에서 자기의 약혼건에 대해서 이렇게 알렸던 것이다.

<나는 나의 가장 중요한 소식을 끝까지 미루어 왔었네. 나는 프리다 브란덴펠트 양과 약혼했다네. 부잣집 딸인데, 자네가 떠난 후 얼마를 있다가 이곳으로 이사를 왔으니 자네는 아마 그녀를 모를 걸세. 그녀에 대해서는 차차 자세히 알게 될 기회가 있을 것이니 오늘은 내

가 몹시 행복하며 또한 우리들의 우정도 약간 변해서 자네가 보다 행복한 친구를 갖게 되었다는 사실을 알려 주는 것으로만 끝내겠네.

자네에게 진심으로 문안을 보내게 될 나의 약혼자는 자네의 진실한 친구 중에 하나가 될 것이네, 그리고 앞으로는 자네에게 직접 편지도 하게 될 걸세. 그리고 그런 일은 미혼자에게는 무엇보다도 의미있는 일이 될 것일세. 자네가 여러 가지 일 때문에 우리를 찾아주지 못하는 것을 알고는 있네만, 나의 결혼식 때는 만사를 제쳐 놓고라도 우리를 꼭 찾아주리라 믿고 있네. 그렇기는 하지만 너무 무리해서까지 올 수 있나. 그저 자네의 소신대로 태도를 결정해 주게나. >

이 편지를 손에 들고 게오르그는 오랫동안 밖을 내다보며 책상 앞에 앉아 있었다. 창가를 지나치다가 그에게 인사를 보낸 어떤 편지를 보고도 그는 답례조차 짓고 있었다.

마침내 그는 주머니에 편지를 넣고는 방에서 나왔다. 복도를 지나 몇달 동안이나 물어간 적이 없었던 아버지의 방으로 들어갔다. 지금껏 그 방에 들어갈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아버지와는 상점에서 언제나 함께 지냈고 점심식사도 식당에서 함께 했다. 저녁에는 각자 마음대로 행동하기는 했지만 게오르그는 친구들과 어울리거나 자기 약혼녀를 방문할 때 외에는 대개 잠시 동안이라도 부

자는 제각기 신문을 들고 안방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햇빛이 내려쬐이는 맑은 오후인데도 아버지의 방이 너무 컴컴한데 게오르그는 깜짝 놀랐다. 좁다란 뜰 저쪽에 우뚝 서 있는 높은 울타리가 것처럼 그림자를 던져 주었던 것이다.

아버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위해 방안의 여러가지 기념물에 장식을 해 놓았다. 아버지는 창문가에 앉아서 신문을 읽고 있었다. 시력을 조절할 켈인지 신문을 눈앞에서 약간 비스듬히 들고 있었다. 식탁 위에는 아침에 먹다 남은 음식들이 그대로 놓여 있는데 그리 많이 먹은 것 같지는 않았다.

「게오르그냐!」하며 아버지는 그를 맞아 주었다. 아버지의 특징한 잠옷이 발을 옮길 때마다 썰렁이며 옷깃이 그의 몸에 감겼다.

「아버지는 아직 건강하신 걸」

게오르그는 혼자말처럼 중얼거리다가 큰 소리로 말했다.

「여기는 몹시 어두운데요.」

「그래, 너무 어두운 것 같구나.」하고 아버지가 대답했다.

「그런데 왜 창문까지 닫아 놓으셨어요?」

「그러는 것이 더 좋구나.」

「밖은 몹시 따듯한데요.」하고 게오르그는 자리에 앉았다. 아버지는 식탁의 식기를 들어서 그것을 상자 위에다 치

었다.

「실은 말씀드릴 게 좀 있어서요.」

그는 아버지의 동정을 살피면서 이야기를 계속했다.

「제가 약혼한 소식을 페테르부르크에 알릴까 하는데요.」

그는 편지를 반쯤 주머니에서 꺼냈다가 다시 넣었다.

「페테르부르크에?」하고 아버지가 물었다.

「저의 친구에게 말이에요.」

게오르그는 아버지의 눈치를 살폈다. 상점에서의 아버지의 모습은 지금 저렇게 편히 앉아서 팔짱을 끼고 일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는데……

「그래, 네 친구한테?」

아버지는 힘을 주면서 말했다.

「아버지도 아시겠지만 본래는 저의 약혼소식을 그에게 알리고 싶지 않았어요. 별다른 이유는 없었지만 좀더 두고 보려고 했던 거였어요. 아시다시피 그 친구는 좀 까다로운 사람이니까요. 저는 가끔 이렇게 생각했었지요. 그의 고독한 생활태도로 보아서선 반드시 그럴 것 같지는 않지만 그가 저의 약혼소식을 다른 방면에서 알게 될지도 모른다고 저는 생각했었지요. 그것까지 제가 막을 수는 없는 일이니까요. 그러나 그런 소식을 저 자신이 전해서는 안 될 것 같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다는 말이지?」

아버지는 펼친 신문을 그대로 창 문턱에 걸쳐 놓고는 그 위에 안경을 벗어 놓더니 한손으로 그 안경을 만지작거렸다.

「네, 그 문제를 다시 한 번 꼼꼼히 생각해 보았지요. 만약 그가 저의 진정한 친구라면 저의 행복한 약혼은 그에게도 역시 기쁜 일일 것이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에게 알리는 것을 더 이상 망설이지 않기로 했어요. 그러나 편지를 보내기 전에 아버지에게 그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게오르그야!」

아버지는 이가 다 빠진 입을 크게 벌려 이렇게 말했다.

「좀 들어 봐라! 너는 그 문제를 나하고 상의하겠다는 말인데 물론 너의 그런 성의만은 매우 고맙다. 그러나 네가 이 자리에서 모든 사실을 다 털어 놓지 않으면 아무 것도 아니다. 아니 그렇지 않으면 오히려 불쾌할 뿐이다. 이 문제와 관계없는 일들을 꺼내고 싶지도 않다. 인정 많던 너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다음부터는 벌써 몇가지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었다. 이제 그러한 일들을 말할 때가 온 모양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빨리 다가온지도 모르겠지만, 사업상에서도 나는 여러가지 일에 실망을 느꼈다. 물론 너는 내게 숨기는 것은 없을 제다. 이제와서 숨기는 것이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싶지도 않다. 이미 나는 기력도 없거니와 기억력도 감퇴되었

다. 또한 여러가지 소소한 일들을 보살필 힘도 없다. 그것은 첫째 자연의 탓이며, 둘째는 너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난 것이 너보다도 나를 훨씬 더 의기소침해게 해준 탓이다. 그러나 게오르그야, 우리가 이런 일, 바로 이 편지 같은 문제에 부닥쳤으니 제발 부탁인데 나를 속이지 말아라. 그런 것이 무어 대단한 일이라고 나를 속이려 하니, 그때 정말 페테르부르크에 친구가 있느냐？」

게오르그는 당황해서 자리에서 일어났다.

「친구들이 있으면 뭘 합니까? 제 아무리 친구가 많아도 아버지를 대신할 수는 없을 겁니다. 저의 전심을 아시겠어요? 아버지께서는 너무나 건강을 돌보지 않으세요. 그러나 나이는 당연히 여러가지 권리를 요구하지요. 사업상에 있어서도 아버님은 절대로 필요하신 분이라는 것쯤은 아버지께서도 잘 아실 테지요. 그러나 만일 사업이 아버지의 건강을 해치게 된다면 저는 내일 당장이라도 사업을 아주 치워 버리겠습니다. 사업 때문에 아버지의 건강을 해쳐서는 안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아버님을 위해서 다른 생활방도를 모색해야만 합니다. 원래 아버지는 이 킁킁한 방안에 앉아 계시기를 좋아하시지요. 안방에 가시면 아름다운 햇빛도 받으실 수가 있을텐데 말입니다. 아침을 그렇게 적게 드시고서야 어떻게 건강하시기를 바라겠어요. 창문을 달아

놓고 앉아 계시는 것보다는 바람을 통하게 하는 것이 훨씬 건강에 좋을 겁니다. 아닙니다. 아버지! 저는 의사를 부르겠습니다. 의사의 처방에 따르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방을 바꾸십시오. 아버님이 안방을 쓰시고 제가 이 방으로 옮기겠습니다. 그렇다고 아버지께 무슨 일이 생기는 것은 아니니까요. 모든 가구는 고스란히 옮겨 놓겠습니다. 무슨 일이든지 때가 있습니다. 우선은 좀더 침대에 누워 계시시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니까요. 이리 오세요. 옷을 벗겨 드릴테니까요. 제가 그만한 일쯤은 할 수 있으리라는 것을 아시지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 일른 안방에 가서서 우선 저의 침대에 누워 계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게오르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아버지 옆에 서 있었다.

「게오르그야!」

아버지는 꿈쩍도 하지 않고 조용히 말했다. 게오르그는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다. 피로에 지친 아버지의 얼굴에서 자기를 노려보는 커다란 두 눈동자가 보였다.

「페테르부르크에는 너의 친구는 없어. 너는 항상 장난을 치는데, 나한테도 예외는 아니었어. 어떻게 그런 곳에 친구가 생겼어? 아무래도 믿을 수가 없어.」

「좀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

하면서 게오르그는 아버지를 의자에서

일으켜 세웠다. 원기없이 그 자리에 서 계시는 아버지의 잠옷을 벗겨 주었다.

「그 친구가 우리 집에 처음 찾아왔던 때가 머지 않아 1년이 되는군요. 아직도 기억이 생생하군요. 아버지는 그를 유난히 싫어하시는 눈치였습니다. 그래서 그가 바로 저의 방에 앉아 있을 때에도 저는 두 번씩이나 그가 없다고 아버지에게 거짓말을 했었습니다. 그에 대한 아버지의 혐오감은 제 눈에도 역력했으니까요. 저의 친구는 매우 성미가 까다롭지요. 그러나 그 후에는 어찌된 일인지 아버지는 매우 정답게 그와 서로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저는 그때 아버지가 그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머리를 끄덕거리기도 하시며 가끔 질문도 하시는 것을 보고 아주 기뻐했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아마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때 그는 믿기 어려운 러시아 혁명가를 얘기했지요. 예를 들면 그가 장사 일로 키에프에 갔을 때인데 어떤 발코니 위에 목사가 있었는데 자기의 넓은 논밭담에는 피어린 십자가를 새기고 그 손을 높이 쳐들어 군중을 향해 외치고 있었다는 따위의 이야기였지요. 아버지께서도 그 후 가끔 그 이야기를 되풀이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동안 게오르그는 아버지를 다시 자리에 앉혔다. 그리고 아마로 짠 아버지의 내의를 양말과 함께 조심스럽게 벗겨낼 수가 있었다. 더러운 내의를 보자 그는 그동안 아버지께 너무나 소홀히 했었

구나 하고 자책감을 느꼈다. 아버지에게 내의를 갈아일게 하는 것은 확실히 의무일 게다.

그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여생을 편히 태드릴 수 있나 하는 점에 대해 약혼녀와 구체적으로 의논한 적은 없었다. 그들은 무의식적이거나 아버지는 낯은 집에 혼자 있게 되리라고 생각했었던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자기들이 앞으로 새 살림을 하게 되면 아버지를 모셔야겠다고 단단히 결심을 했다. 그런데 오늘은 좀더 자세히 살펴보자니 그동안 아버지에게 너무나 소홀했던 것처럼 여겨졌다.

그는 아버지를 안아 침대로 옮기려고 두서너 걸음 걸어갔다. 그러나 그때 아버지가 자기 가슴에 눌어진 시계줄을 만지작거리는 것을 알고는 몸서리가 쳐졌다. 아버지가 시계줄을 꼭 붙잡고 있었으므로 그는 아버지를 얼른 침대에 눕힐 수가 없었다. 그러나 막상 침대 위에 눕히자 아버지는 어느 정도 안심하는 듯했다. 어찌까지 이불을 끌어 올렸다. 아버지는 게오르그를 쳐다 보았다. 별로 악의가 있는 시선은 아니었다.

「이제는 그 친구가 생각나세요?」 하고 게오르그는 물으면서 아버지에게 힘을 내라는 듯 고개를 끄덕여 보였다.

「이젠 잘 났었느냐?」 아버지는 발이 보이지 않으니 어쩔 수가 없다는 듯 물었다.

「이제는 침대에 누우셨으니 마음이 편안되실 거예요.」

하머 게오르그는 이불을 끌어 잘 덮어 주었다.

「이젠 잘 덮었느냐?」

아버지는 또다시 그렇게 물었으나 그의 대답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는 것 같았다.

「열려주세요. 잘 덮었으니까요.」

「아니야!」

아버지는 소리를 질렀다. 게오르그의 대답이 자기의 질문하는 의도에 거슬리는 듯, 아버지는 단번에 이부자리를 걷어차 버렸다. 이불은 모두 젖혀지고 아버지는 침대 위에 똑바로 일어나 있었다.

한쪽 손으로는 천정을 가볍게 붙들고 있었다.

「나를 이불로 덮어 싸우려고 그러지? 다 알고 있다. 이 패설한 놈아! 그렇게 쉽게 덮어 싸워지지는 않는다.

내 비록 최후의 힘일망정 너를 상대하기에는 충분하다. 나는 물론 너의 친구를 잘 알고 있어. 어쩌면 그는 내 마음에 꼭 드는 자식일는지도 모르지. 그래서 너는 몇 년 동안이나 그를 속여 왔어. 그 밖에 무슨 다른 이유라도 있니? 너는 내가 그를 위해서 지금까지 눈물을 흘린 적이 없다고 믿느냐? 그래서 너는 사무실에 치박혀 사장은 집무 중이니 아무도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서는 소련으

로 허위의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거야.

그러나 다행히도 아버지에게 아들의 정체를 가르쳐 준 사람은 없었지. 너는 아비를 완전히 정복했다고 생각하겠지. 아예 꼼짝도 못하게 해놓았다고 말야. 그러고는 이제 결혼할 결심을 했다 이 말이지!」

게오르그는 아버지의 놀라운 표정을 쳐다 보았다. 뜻밖에도 아버지는 페테르부르그의 친구에게 마음이 사로 잡혔다. 그런 일은 처음이었다. 게오르그의 눈앞에는 친구가 넓은 소련 땅에서 배회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빼앗겨 텅 빈 상점 문 옆에 있는 친구의 모습도 보였다. 다 부서진 진열장과 못쓰게 된 상품과 쓰러져 가는 가스등 사이에 그 친구는 그냥 그대로 서 있었다. 그 친구는 왜 그렇게 먼 이국으로 떠나야만 했을까!

「나를 좀 봐라!」

아버지는 또 한번 외쳤다. 게오르그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려고 급히 침대로 달려가다가 그만 중도에서 발걸음을 멈추었다.

「그년이 결맞으면 치맛자락을 치켜올린 탓이지.」

하고 나직히 중얼거렸다.

「그년이 치맛자락을 치켜올린 때문이야, 빌어먹을 년이!」

그렇게 말하면서 아버지는 그런 시늉을 해 보였다. 전쟁통에 입었던 허벅다리의 상처가 다 드러나도록 자기의 잠옷을 높

이 치켜올린 것이었다.

「그년이 치맛자락을 이렇게 높이 치켜 들었지. 그래서 너는 그녀를 가까이 하게 되었고 마음 놓고 그녀와 놀아나려고 어머니에 대한 추억조차 더럽혔으며 친구를 배반하고 아버지를 꺾을 수 없게 이 침대에 처박아 놓았던 거야. 그러나 그 아버지가 어떻게 몸을 움직일 수가 있는지 한 번 두고 볼까?」

그러면서 아버지는 아주 자연스러운 동작으로 두 다리를 쭉 폈다. 아버지는 모든 일을 다 알아차렸다는 듯 눈을 반짝하였다.

게오르그는 될 수 있는 대로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 방 한쪽 구석에 서 있었다. 조금 전에 그는 뒤에서든 위에서든 어떤 기습에도 피할 수 있도록 모든 일을 하나하나 정확하게 잘 살피겠다고 결심했었다. 지금 그는 그 결심을 다시 상기했으나 이내 잊고 말았다.

「그러나 그 친구는 이제는 절대로 배반당하지 않는다.」

아버지는 외치면서 둘째 손가락을 이리저리 움직여 그 말을 강조했다.

「나는 그를 대신해서 이 자리에 와 있다는 말이다.」

「최극 배우!」

게오르그는 그렇게 외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내 자신의 물리적인 점을 깨달았다. 그는 두 눈을 부릅뜨고 헛바닥을 깨물었다. 어찌나 아프던지 그는

허리를 굽혔지만 이미 너무나 늦은 감이 들었다.

「그렇다. 나는 지금까지 최극을 연출했었다! 최극이었지! 그거 참 말 잘했구나! 다 늙어 할아버지까지 된 이 아버지가 그 외에 다른 무슨 낙을 바라겠느냐? 말좀 해봐라—대답하는 순간만이라도 적어도 너는 살아 있는 내 아들일게다—오로지 꿈방에서 의리도 없는 고용인들에게 시달리면서 다 늙어빠진 내게 남은 게 도대체 뭐냐? 그런데도 배놈은 거들먹거리면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애비가 마련해 놓은 사업을 모두 망치다시피 환락에 빠지면서 날뛰다가도 아버지 앞에서는 정직한 사람처럼 심각한 얼굴을 짓는구나! 너에게 배반당한 내가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고 너는 생각하느냐?」

<기운이 없어져 쓰러지면 허리를 굽히겠지> 그런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아버지는 허리를 굽혔으나 쓰러지지는 않았다. 그의 예측은 빗나갔다. 쓰러지기는 커녕 게오르그가 가까이 오지 않았으므로 아버지는 다시 몸을 일으켰다.

「그 자리에서 있거라! 너 같은 놈은 필요가 없다. 너는 아직 나를 부추켜 줄 힘이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그건 생각뿐으로 그렇게 주춤거리고 서 있을 뿐이다. 오해하지 말아라. 나는 아직도 건강하다. 나는 벌써 이 세상을 떠났어야 했을지도 모르겠으나 보다시피 네 어머니

너가 자기 힘을 고스란히 내게 남겨 주었지. 그럴 뿐더러 나는 너의 친구와도 멋지게 연락을 해서 너에 대한 정보들이 주머니 속에 갖고 있다는 말이다。」

「잠옷에도 주머니가 있구나!」

게오르그는 혼자말로 중얼거리면서 자기가 만일 이런 말을 하면 온 세상의 아버지들을 증상하게 되는 것이 되겠지 하고 생각했다. 그러나 그의 이러한 생각은 잠시였고 이내 모든 일을 다 잊어버리고 말았다.

「너의 약혼자를 데리고 내 앞에 나타나기만 해봐라. 그대를 짝 쓰러내고 말테니까. 어떻게 할는지 너는 모를거야!」

게오르그는 아버지의 그런 말이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얼굴을 찡푸렸다.

아버지는 자기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 것을 다짐이라도 하듯 게오르그가 서있는 방구석을 바라보며 머리를 끄덕였다.

「오늘 내가 찾아와서 친구에게 약혼에 대해서 편지를 내는 것이 어찌냐고 물었을 때 사실 나는 반가왔단다. 그러나 그는 이미 모든 일을 다 알고 있다. 어리석은 자식아, 다 안다는 말이다! 네가 어리석게도 내 핑기도구를 치워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나는 그에게 편지를 쓸 수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는 이미 몇 년 동안이나 나타나지는 않았지만 모든 것을 훤히 알고 있어. 그는 네 편지를 읽기는 커녕 왼손으로 구겨 버렸지만 네 편지를 읽으려고 오른 손을 높이 쳐들고

있다는 말이다!」

「그는 모든 일을 너보다 더 알고 있어!」 하고 아버지는 감동이나 한듯이 팔을 높이 쳐들었다.

「만배는 아니고요!」 게오르그는 아버지를 무시하듯이 이렇게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그의 입 속에서 뿐이었다.

「벌써 몇 년 전부터 네가 그런 질문을 들고 오리라고 나는 예측했었다. 너는 내가 어떤 다른 일을 염려하는 줄 아느냐? 내가 신문을 읽을 줄 알아? 자!」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면서 게오르그에게 침대 속에서 신문 한 장을 꺼내 던졌다. 게오르그로서는 이름조차 알 수 없는 낯은 신문이었다.

「네가 크기까지는 정말 많은 세월이 흐르기도 했다. 어머니는 좋은 날을 못 보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 너의 친구는 소련땅에서 파멸해 버렸어. 이미 3년전에 모든 것을 포기하고 말았지. 그리고 나의 취지는 너 역시 잘 알고 있는 바이다. 너도 그런 것쯤은 알아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겠지!」

「그러고 보니 아버지는 저를 엿보아왔군요!」 게오르그는 소리를 질렀다.

아버지는 동정이나 하듯 「그래 그런 말을 벌써 했어야 마땅하다. 이제는 그런 말은 당치도 않아.」

「그러니까 너 이외에 무엇이 또 있다는 것을 너도 알았겠지, 지금까지 너는 너밖에 몰랐다! 사실 너는 순진한 어린

아이였으나 정확히 말하면 어떤 의미에
서는 너는 악마같은 인간이었어! 그러
므로 나는 너에게 물에 빠져 죽으라는
선고를 내리는 바이다!」

게오르그는 밤에서 쫓겨나는 기분으로
나왔다. 그의 뒤에서 아버지가 침대 위
로 쓰러지는 소리가 들렸다.

그는 마치 내리막길을 달리듯이 총계
를 내리 달렸다. 계단 위에서 그는 뜻밖
에도 지실을 정돈하려고 2층으로 올라오
면 하녀와 마주쳤다.

「어머나!」

하녀는 외치며 행주치마로 얼굴을 가
렸으나 그는 곧 그 자리를 떠나 버렸다.
그는 문 밖으로 뛰어나와 차도를 넘어

강가로 달렸다. 굶주린 자가 먹을 것을
움켜잡듯이 난간을 꼭 움켜쥐고 있었다.
그러다가 그는 난간을 뛰어 넘었다. 그
는 어릴 때에는 유망한 운동가여서 양친
의 자랑거리였었다. 그는 점점 맥이 빠
져 가는 두 손으로 난간에 매달려 난간
사이로 버스가 지나가는 것을 바라보
았다. 버스의 소음은 그가 강으로 떨어
지는 소리를 상쇄해 줄 것 같았다. 그는
입속으로 중얼거렸다.

「사랑하는 부모님, 저는 이때까지 두
분을 사랑해 왔읍니다.」

그러고는 그는 아래로 떨어졌다.

이때 다리 위로는 끊임없이 차들이 지
나갔다.

독자에게 알립니다.

이 책자에는 보안규정에 저촉되는 내용이 게재되어 있지 않으나 적의
전략 정보로 오용될 수도 있습니다. 독자 채위는 부지중 이 책자가 오
용이 되지 않도록 취급과 보관에 각별히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군본부 정훈감실

발행	처: 공군본부 정훈감실
인쇄	처: 공 군 교 재 창
편집실	전화: 829-3511, 호-5141
인	쇄: 1961년 7월 20일
발	행: 1981년 7월 25일

군 인 의 길

나는 영광스런 대한민국 군인이다.

하나 : 나의 길은 충성에 있다. 조국에 몸과 마음을 바친다.

하나 : 나의 길은 승리에 있다. 불굴의 투지와 전기를 뒀는다.

하나 : 나의 길은 통일에 있다. 기필코 공산적을 쳐부순다.

하나 : 나의 길은 군율에 있다. 엄숙히 예절과 책임을 다한다.

하나 : 나의 길은 단결에 있다. 지휘관을 핵심으로 생사를 같이한다.



필승의 공군 퇴장

자조정신 · 자립경제 · 자주국방



공군의 결의

우리는 자랑스러운 필승의 공군이다.

엄정한 군기 아래 깨끗하고 씩씩하며
서로 도와 단결하여 책임을 완수하고
나아가서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

